





# 目 次

|                                            |              |
|--------------------------------------------|--------------|
| ☞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의 현황 및 개선 방안<br>.....        | 노형규 ..... 1  |
| ☞ TV와 인터넷 뉴스의 이용 정도와 언론 신뢰도의 상관성<br>.....  | 설진아 ..... 19 |
| ☞ 영연방 국가의 영상산업에 관한 연구<br>.....             | 장일 ..... 41  |
| ☞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방법 연구<br>.....         | 이기재 ..... 67 |
| ☞ 호주 빅토리아 대학 유아교육과의 블렌디드 러닝 사례 연구<br>..... | 이영애 ..... 81 |

# CONTENTS

|                                                                                                                                     |                         |
|-------------------------------------------------------------------------------------------------------------------------------------|-------------------------|
|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Public Housing Policies in our Country<br>.....                                           | Noh, Hyung Gyoo ..... 1 |
|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V and Internet news usage and media trust<br>.....                                            | Seol Jinah ..... 19     |
| ☞ A Study on the Visual Industries in 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br>.....                                                  | Il Chang ..... 41       |
| ☞ Weighting Approach in Dual Frame Survey<br>.....                                                                                  | LEE Kee Jae ..... 67    |
| ☞ A case study on blended learning practice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at<br>Victoria University, Australia<br>..... | Youngae Lee ..... 81    |

#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노형규\*\*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Public Housing Policies in our Country

Noh, Hyung Gyoo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공공주택 정책 개선방안 |
| II. 선행연구고찰      | V. 맺음말           |
| III. 공공주택 정책 현황 | 참고문헌             |

## I. 머리말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비하는 재화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주택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이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 수준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거 서비스에 매겨진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주거 서비스는 평생 소비하는 재화 중에서 가장 고가의 재화일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 수준조차도 소비하지 못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 주거수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가 될 것이고 따라서 정책적으로 개입한다.

정부의 주택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주택의 보유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며 주택 소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려고 한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하고자 한다.

공공주택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주거 서비스 공급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 조사(2021)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은 긍정 또는 중립적인 응답이 높으며 가족 계획 시 우선하는 고려 사항은 주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 가격이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양질의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육아 가구에도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공주택 정책의 역할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주택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정책 현황자료는 하성규 외(2024)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공공주택 정책 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주택 제도와 공급 실적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공공주택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정책 방안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맺음말에서는 본 연구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 II. 선행 연구 고찰

고길곤 외(2018)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열등재로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주로 도심 외곽의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공급되기 때문에 도심 내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형 임대주택이 전세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이 재개발과 주택건설 관련 금융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주거 욕구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빈약하다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공급 주체인 LH의 부채 규모와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정부의 기금에 의존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또 다른 제안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대상자의 확대가 단순히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 규모와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종권 외(2019)는 자격 요건의 강화를 통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 자원을 최대한 많은 수요자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할 필요는 있지만 소셜믹스의 관점에서는 퇴거 기준을 완화하여 자연스러운 계층 혼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득 기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 구분을 철폐하고 입주자의 소득 계층에 따라 금융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며 무주택 계층에게는 주택 자산 소유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승수 외(2020)는 입주민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지역 편의시설 및 생활 SOC 등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 복지 시설을 공기업과 민간 운영 주체가 함께 공급하고 활용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고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순석 외(2007)는 구 시가지의 체계적인 재생 사업을 통하여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 지역의 주거 입지 및 주거지 확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 시가지 전 지역의 생활환경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 문제만 해결하기보다는 주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재건축,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젊은 계층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지혜 외(2023)는 건설비용의 상승, 분양시장 위축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2023년 7월 전국 기준 주택 인허가 물량 및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사업 중 공공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신도시 내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때 양질의 정주 환경 제공이 가능한 주민 이주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이주단지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길제 외(2019)는 가구원 수 별 적정한 면적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청 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입주 가능한 면적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입주 후 가구원 수 변동 시 공공임대주택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또한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고 해당 공가에 새 입주자를 모집하는 재공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주체 별로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진미윤 외(2020)는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효과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대기자 명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그들은 현재 대기자 제도에서는 대기 신청 이후 언제 입주할지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만약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이탈자와 포기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정책적 신뢰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출산 간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훈·성진욱, 2022)에 따르면, 첫째 출산의 경우 미입주 상태에서 출산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둘째 출산의 경우 입주상태에서 출산의 가능성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첫째 출산의 경우 입주 신청 당시 자녀 수에 기반한 배점 방식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공공주택의 입주가 추가 출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지연될수록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가구의 첫째·둘째 출산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어 입주의 지연은 추가적인 출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입주 전에 첫째를 출산한 가구가 입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출산을 지체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출산 간격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소영 외(2023)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주거지원 정책 대상자들은 소득 기준이나 제공 면적이 현실성이 떨어져서 공급을 확대해 봤자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든 제도의 소득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해당하는 제도가 전무하고, 입주 자격을 갖더라도 대기가 길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 기존 제 1·2차 기본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상의 저출산 대책을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주거 대책은 정책 커버리지(coverage)가 작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 실제 임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는 약 5%에 불과하며, 매매가 및 전세가의 증가로 정책 효과가 크지 않

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전병목 외(2018)에 의하면 신혼부부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 지원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43.1%), 공공주택 공급 (24.3%)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주택 공급 시에도 약 60%는 분양이 가능한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장기 공공임대 공급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인천·경기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방 광역시는 공공 분양주택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자가주택 마련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지분형 주택 등 처분 수익 및 손실 공유형 주택공급 확대 재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김지혜 외(2019)의 연구에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장기 공공임대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같은 임차 형태보다 자가 마련이 용이한 분양전환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일수록, 아동수 2명 이상인 가구보다 1명인 경우가 이용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급 시 고려되어야 할 우선 순위로는 아동 수, 소득 규모, 자산, 혼인 기간 순의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양육에 필요한 주거 요소를 반영한 면적 확대와 공급 평형 다양화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박진백·권건오(2023)는 우리나라 저출산 심화 원인이 주택가격 상승, 사교육비 상승 등이라고 보고 단기적인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둘째 자녀 출산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안하였다.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과 추가 청약 가점부여 등을 통해 주택의 공급 확대 및 취득 기회를 강화하고 동시에 지분적립형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특별 공급 물량 확대 및 주택 면적 상향 등을 제안하였다.

전병목 외(2018)의 연구는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공급 시 가구의 구성, 출산과 양육까지 가능한 다양한 면적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른 지역, 다른 주택, 다른 주택 규모로 자유로운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철희 외(2023)는 현재 주거지원 공급량은 전체 수요량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므로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자녀 수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확대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의 기간 기준을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신혼부부보다 유자녀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지혜 외(2019)는 주거지원 정책 대상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양육에 필요한 주거 요소들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주택금융 지원제도의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 제공 강화 방안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III. 공공주택 정책 현황

#### 1. 공공주택의 유형 및 공급 실적

##### 가. 공공주택의 유형

공공주택 공급자에 대한 규정과 공공주택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 공사,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택도시보증기금이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된 주택건설 사업자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보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다시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영구 임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민 임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 나. 공공주택의 공급 실적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약 8만 9천 호이고 공공임대주택은 68만 4천 호이다. 이 기간동안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세임대주택의 비율이 24.5%로 가장 높고, 매입임대주택의 비율이 13.4%, 행복주택의 비율이 12.5%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실적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매년 10만 호 정도를 공급하였으며 2018년에 약 18만 호를 건설하여 가장 많은 공급량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 공급량은 점차 줄어들어 2022년에는 약 8만 2천 5백 호를 공급하였다.

[표 1]이 1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년도의 공공주택의 공급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공공주택 공급실적(2018년~2022년)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
| 공공분양주택 | 1.9만호  | 1.4만호  | 1.7만호  | 2.1만호  | 1.8만호  | 8.9만호 |
| 공공임대주택 | 14.8만호 | 13.9만호 | 15.3만호 | 12.3만호 | 12.1만호 | 68만호  |
| 합계     | 16.7만호 | 15.4만호 | 16.8만호 | 14.4만호 | 13.9만호 | 77만호  |

주) 준공기준, 매입·전세임대는 계약기준

2022년 기준으로 임대유형 별 재고 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862,847호이며, 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약 60만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로서 전체 임대주택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1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세 번째이고, 분양 전환되는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재고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의 현황 및 개선 방안

[표 2] 임대유형별 임대주택 재고 수(2022년)

| 유형        | 호수        | 비율     |
|-----------|-----------|--------|
| 영구임대      | 220,711   | 11.8%  |
| 50년 임대    | 112,834   | 6.1%   |
| 국민임대      | 600,404   | 32.2%  |
| 10년 임대    | 176,422   | 9.5%   |
| 5년 임대     | 28,051    | 1.5%   |
| 사원임대      | 7,078     | 0.4%   |
| 장기전세      | 38,371    | 2.1%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309,328   | 16.6%  |
| 행복주택      | 142,807   | 7.7%   |
| 기존주택 매입임대 | 207,624   | 11.1%  |
| 통합공공임대    | 19,217    | 1.0%   |
| 전체        | 1,862,847 | 100.0% |

자료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 다. 공공주택 공급 계획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따르면 2023년 - 2027년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가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7년까지 5년간 수도권 36만 호, 비수도권 14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나눔형 50%(25만 호), 선택형 20%(10만 호), 일반형 30%(15만 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부담가능한 분양가와 주거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 방식을 보완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표 3]는 각 년도별 공급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계획(2023년~2027년)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수도권  | 5.2만호 | 6.0만호 | 7.0만호  | 7.4만호  | 10.0만호 | 35.6만호 |
| 비수도권 | 2.4만호 | 3.0만호 | 3.0만호  | 3.0만호  | 3.0만호  | 14.4만호 |
| 합계   | 7.6만호 | 9.0만호 | 10.0만호 | 10.4만호 | 13.0만호 | 50.0만호 |

자료 : 국토교통부(2024),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

## 2. 공공주택 운영 정책 현황

### 가. 공공분양주택 정책

공공분양주택은 브랜드 ‘뉴홈’ 유형을 세분화하여 수요 맞춤으로 공급하고 있다. 2022년 10월에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요자의 자산과 소득 여건에 따라 주거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급 유형을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임대 후 분양), 일반형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 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표 4]는 각 유형별 특징과 수요 맞춤 공급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공공분양주택의 유형별 특징과 수요맞춤 공급

| 구분           |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 특징           |      | 시세 70% 이하 수준 분양<br>시세차익 70% 보장<br>최저 1.9% 저리대출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br>여부 선택<br>최저 1.9% 저리대출 | 시세 80% 수준 분양<br>최저 2%대 저리대출 |
| 수요<br>맞<br>춤 | 일반공급 | 20%                                            | 10%                                      | 30%                         |
|              | 청년   | 15%                                            | 15%                                      | -                           |
|              | 신혼부부 | 15%                                            | 10%                                      | 10%                         |
|              | 신생아  | 35%                                            | 30%                                      | 20%                         |
|              | 다자녀  | -                                              | 10%                                      | 10%                         |
|              | 생애최초 | 15%                                            | 10%                                      | 15%                         |
|              | 기관추천 | -                                              | 10%                                      | 10%                         |
|              | 노부모  | -                                              | 5%                                       | 5%                          |

자료 : 뉴홈 홈페이지(뉴홈/main.do)

### 나. 공공임대주택 정책

#### 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총 7개 유형으로 공급된다. 각 유형별 특징은 [표 5]가 보여주고 있다.

[표 5]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

| 구분            | 주택규모   | 임대기간                       | 임대조건                        |
|---------------|--------|----------------------------|-----------------------------|
| 영구임대          | 40㎡ 이하 | 50년 이상/영구                  | 시중 시세의 30% 수준               |
| 국민임대          | 60㎡ 이하 | 30년 이상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 행복주택          | 60㎡ 이하 | 최대 6년-20년 <sup>1)</sup>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 통합공공임대주택      | 85㎡ 이하 | 30년                        | 시중 시세의 35-90% 수준            |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85㎡ 이하 | 5년, 10년 <sup>2)</sup>      | 시중 시세의 90% 수준 <sup>3)</sup> |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85㎡ 이하 | 최장 8년-20년 이상 <sup>4)</sup> | 시중 시세의 30-90% 범위 내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85㎡ 이하 | 최장 30년                     |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0-20%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2024), 「한눈에 보는 주거복지사업 안내」

1) 대학생·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등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2) 의무임대기간

3) 분양전환 가격은 5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감정가격의 2분의 1,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격

4) 든든전세주택 최장 8년, 청년 매입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신생아 부부 매입임대 II 최장 10년, 일반, 보호종료 아동,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최장 20년, 고령자 매입임대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 자격

### 가) 영구임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가구원 수 1명 90%, 2명 8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또는 유족 및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 1명 90%, 2명 8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나)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은 규모 별로 입주 자격이 상이하다. 먼저 전용 50㎡ 미만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우선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 50㎡~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주택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전용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 다) 행복 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인 사람들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2세 미만의 자녀 양육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 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지역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달라진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단서 조항으로 세대주일 것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바) 기존주택 매입주택

기존주택 매입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에 대해 순위가 정해져 있다. 1순위에는 생계·의료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포함되고 2순위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3순위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가 포함된다.

#### 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역시 입주 자격에 대해 순위가 정해져 있다. 1순위에는 생애·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포함되고 2순위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 포함된다.

#### 3)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면적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공급 가능한 면적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세대원수에 따라 공급면적을 차등화하고 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단위주택 당 평균 공급면적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은 60㎡ 수준, 영구임대주택은 45㎡ 수준, 장기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은 75㎡-8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호당 평균 전용면적은 영구임대 28.0㎡, 국민임대 43.7㎡, 행복주택 28.7㎡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5㎡까지 공급할 수 있음에도 2021년 처음 공급된 물량은 전용면적 18㎡-56㎡로 기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없었다. [표 6]는 세대원 수에 따른 유형별 공급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면적

| 구분    | 영구/국민/행복 | 통합공공임대 |
|-------|----------|--------|
| 1인    | 35㎡ 이하   | 40㎡ 이하 |
| 2인    | 44㎡ 이하   | 60㎡ 이하 |
| 3인    | 50㎡ 이하   | 80㎡ 이하 |
| 4인 이상 | 50㎡ 초과   | 제한없음   |

주) 전용면적임.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세대원 수가 1-2인이더라도 50㎡까지 공급 가능함.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2024), 「한눈에 보는 주거복지사업 안내」

#### 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현황

##### 가)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 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공공 분양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하며 법정 기준보다 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하고, 지상 공간의 공원화, 통학길 특화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내에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의 지속적 이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급 대상은 신혼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 주택 세대 구성원과 1년 이내에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이 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이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 2명 이상인 경우 20% 가산하여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신혼부부에 대한 또 다른 혜택은 신혼부부의 실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형의 경우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주택 가격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50%를 정산하되, 정산 시점에 장기 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형의 경우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 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저소득 신혼부부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으로서 입주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I, II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의 입주 대상자는 무 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족이 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의 입주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세대이다.

이 형태의 임대주택에는 입주 순위가 정해져 있다. 1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이 되고 2순위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된다. 그리고 3순위에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가 된다.

#### 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며 신혼부부 전세 임대 I형과 II형이 있다.

신혼부부 I형의 입주 대상자에는 무 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포함된다.

신혼부부 II형의 입주 대상자에는 무 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포함된다. 즉 I형과 II형의 차이는 입주 자격에 있어서 소득 수준의 차이이다.

#### 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며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중점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주거지원 대상자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시세의 70%-7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이 정책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전용 85㎡ 이하 분양·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하여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청약통장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치 기준 상당 금액을 납입하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이거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그 외 2순위로 하며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지역, 미성년 자녀의 수, 추첨의 순으로 선정한다.

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이루어져 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인 자 및 세대주·세대원 전부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시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4억 원이며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 수준, 대출 기간에 따라 책정되며 연 1.85% - 연 2.7%이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 액 3.61억 원 이하인 자 및 세대주·세대원 전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이다.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 보증금에 따라 책정되며 연 1.2% - 연 2.1%이며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2년씩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며 1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 IV. 공공주택 정책 개선 방안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정도 규모의 공급만으로 공공주택의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공주택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불리한 입지 선정과 협소한 단위세대 면적 등

은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면적의 협소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건설되거나 정비되는 주택의 면적 수준을 현재보다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면적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면적이 각각 45㎡, 60㎡, 60㎡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평균 면적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면적의 50% 수준, 국민임대의 경우 최대 면적의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면적은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기준이 1인 가구 기준 14㎡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수립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가구원의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라 주택 내의 특별한 설비,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 안전설비 설치, 자녀 계획 및 출산에 대비한 공간구성 및 평면구성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주택의 공급을 통해 주거취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고 공공주택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공공분양제도는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지만 민간 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을 받게 되는 가구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공공주택 정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공적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최저 소득 계층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자가 소유를 지원하는 정책은 현행의 모기지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하고 공공 분양주택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중간적 형태로써 소유권 중 처분권을 제한하는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정책은 양호한 입지 조건의 공공분양 물량을 일정 시세 이하로 재매입 및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도심거주를 지원할 수 있다.

셋째,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건설, 매입, 임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목표량을 달성하는 방식이었으며 주택의 공급은 대부분 LH공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5년-2021년까지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주택은 LH가 80%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담당하였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주택사업 승인 전체로 확대하여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의무를 강화하고 그 외 지방 도시는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맞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은 공공주택 사업자 이외에도 주택 사업자,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원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의 확대를 위해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주택저축 상품 출시, 기업에서 종업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매출 일부를 주택 보조비 또는 주거 지원비 명목으로 주택 기금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재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정비사업

주진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확대하여 주택사업 승인 시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승인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은 지역 내 주택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필요한 교육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거지원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보편적 주거복지로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 시 공공주택 입주자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생활 SOC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주거 약자 계층에게 모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주택 입주 시에도 필요에 따라 금융 지원과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3년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수립한 바 있고 2024년 6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혼부부와 육아 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면적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자녀 출생을 염두에 두어 면적을 36㎡로 공급하였으나 행복주택의 실제 공급면적은 평균 28㎡ 정도로 여전히 협소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육아 가구, 출산(예정) 가구의 경우 넓은 면적의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협소한 주거에 거주하고 있던 신혼부부, 육아가구에 있어서 임신, 출산(예정)의 경우 보다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한 소득 수준을 초과하거나 면적 또는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적당한 공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해 민간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육아 가구에게 주거 수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주거 실태 조사에서 신혼부부의 이사 이유는 주택의 물리적 수준 향상을 제외하고 직주 근접·직장 변동,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육아 가구의 일과 육아 병행을 고려한 주거지원 및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육아 가구의 주거 지원 및 양육 환경 조성으로는 육아,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의 신규 공급 시 육아 지원을 위한 생활 기본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기존의 공공주택지구의 유휴 커뮤니티 공간이나 상업시설을 활용하여 공동 육아 나눔터와 같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맺음말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자에 대한 규정과 공공주택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862,847호인데 국민임대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존주택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가 그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계획대로 공공주택이 공급되어라도 공공주택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공주택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면적의 협소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건설되거나 정비되는 주택의 면적 수준을 현재보다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주택의 공급을 통해 주거취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고 공공주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자가 소유를 지원하는 정책은 현행의 모기지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하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중간적 형태로써 소유권 중 처분권을 제한하는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그 외 지방 도시는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맞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확대를 위해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주택저축 상품 출시, 기업에서 종업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매출 일부를 주택 보조비 또는 주거 지원비 명목으로 주택 기금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필요한 교육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한 주거 약자 계층에게 모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주택 입주 시에도 필요에 따라 금융 지원과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와 육아 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면적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육아 가구의 주거지원 및 양육 환경 조성으로 육아,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의 신규 공급 시 육아 지원을 위한 생활 기본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기존의 공공주택 지구의 유휴 커뮤니티 공간이나 상업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길곤·조수연, 임대주택 정책 추이 및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8
- 국가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 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 전략. 2023
-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3 국토교통부, 2023년 주택업무편람
- 국토교통부,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 2024
- 김근용 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 김승주 외, 공공주택의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 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연구. SH도시연구원. 2020
- 김영란 외, 저출산 대책의 정책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김지혜 외,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2019
- 김지혜 외, 주택공급상황 분석 및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23
- 박준·봉인식,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분석. 주택연구. 제30권 2호. pp.107-139, 2022
- 박진백·권건우,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23
- 박진백·이재희,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육아 정책연구. 10(3). 2016
- 배순석 외,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주택보급률 110% 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 국토연구원. 2007
- 이길제 외,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2019
- 이소영 외,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 이종권 외,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체계 및 계획모델 개선 연구; (I) 공급체계. LH토지주택연구원. 2019
- 이종권 외,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체계 및 계획모델 개선 연구; (II) 계획모델. LH토지주택연구원. 2019
- 이훈·성진욱,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출산 간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계획, 57(5), 136-156, 2022
- 전병목 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18
- 진미윤 외,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 운영관리 방안. LH토지주택연구원. 2020
- 진미윤·김남정, 한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시스템 비교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2019
- 최은희 외, 가구특성을 고려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연구: 면적별 공급기준을 중심으로. LH토지주택연구원. 2020
- 하성규 외,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공공주택공급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24



## TV와 인터넷 뉴스의 이용 정도와 언론 신뢰도의 상관성\*

설진아\*\*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V and Internet news usage and media trust

Seol Jinah

###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론 및 논의 |
| II. 이론적 논의 |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논문초록       |
| IV. 연구결과   |            |

##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뉴스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 회피 현상과 뉴스에 대한 불신은 오늘날 언론 산업이 수용자들의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방증한다. 갤럽(Gallup)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32%만이 뉴스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믿고 있으며, 40%에 달하는 사람들은 뉴스의 공정성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NMA, 2024).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드러났는데, 2023년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뉴스 이용이 매체 유형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TV와 같은 전통매체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이용도 70% 이하로 하락했으며, 더 나아가 뉴스 및 시사 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가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에 대한 회피는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즉 뉴스 회피자는 뉴스 비회피자와 비교해 평소 뉴스 이용과 언론 전반, 언론인에 대한 신뢰(trust)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주, 오세욱, 2024, 10쪽). 특히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공급원이 증가하면서 어떤 정보를 믿고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뉴스 신뢰도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는데, 인터넷 포털이 추천하는 뉴스와 시사 정보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에 비해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이러한 현상은 언론 매체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인식 증가와 함께 뉴스 대부분을 불신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며, 뉴스를 이용하거나 어떤 뉴스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뉴스 신뢰도가 다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제까지 뉴스 신뢰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대부분 뉴스 매체 신뢰와 신뢰성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졌고(강길홍·이민규, 2015; 오현경, 2022; 우형진, 2021; Fawzi, Steindl, Obermaier, Prochazka, Arlt, Blöbaum & Ziegele, 2021; Kalogeropoulos, Toff, & Fletcher, 2024), 뉴스 매체의 이용과 신뢰성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도 많았으나(김연중, 안정임, 2019; 박노일, 정지연, 장정현, 2017; 성동규, 박상호, 2005; 신태범, 권상희, 2013; 장운재, 김미라, 2020; 정영주, 황현서, 김연주, 한규섭, 2024; Lu & Andrews, 2006; Mehrahi, Hassen, & Shahkat Ali, 2009), 뉴스 접근 플랫폼에 따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뉴스 및 시사 정보 인식 정도와 실제 이용하는 뉴스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미디어 유형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언론 신뢰 또는 신뢰성에 대한 한 개 또는 너무 일반적인 지표들에 의존해 연구하거나, 미디어 신뢰에 대한 공통된 개념 정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Engelke, Hase, & Wintterlin, 2019; Fischer, 2016). 또한 기존의 언론 또는 뉴스 미디어 신뢰(trust)에 관한 연구들은 연관된 개념인 신뢰성(credibility)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신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실증적 증거 제시가 미흡하였다. 언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미디어 신뢰성(media credibility), 적대적 매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s), 언론의 품질 인식(journalistic quality perceptions)과 같은 연관된 개념들에 천착했지만, 미디어 신뢰를 혼용해 사용하거나 미디어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물론 언론 매체에서 신뢰(trust)에 관한 보편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체로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신뢰란 과거의 경험과 긍정적인 기대감들에 근거해 믿는 사람(trustor)이 신뢰할 대상(trustee)에 대해 기꺼이 취약할 용의가 있으며, 신뢰할 대상에 의존하여 능동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갭을 신뢰가 메울 수 있다는 점이다(Grosser, 2016; Mayer, Davis, & Schoorman, 1995; Vanacker & Belmas, 2009). 언론 매체의 신뢰와 관련해 근거를 두는 기대감과 과거의 경험들은 미디어의 규범적이고, 민주적인 기능을 지칭하며, 언론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는 것이다. 신뢰란 또한 미지의 미래를 향한 것이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만들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제공받은 정보를 증명할 수 없을 때나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사회적 복잡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이다(Fawzi et al., 2021, p. 156; Luhmann, 2017). 이에 반해 미디어의 신뢰성(credibility)은 “수용자에게 전달된 내용 또는 메시지가 얼마나 믿을만한가”로 정의될 수 있는데(강길홍, 이민규, 2015). 여기서 신뢰성이란 대체로 신뢰보다 좁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미디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언론 매체에서 뉴스 신뢰(News Trust)는 언론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규범과 가치에 따라 만족할 만하게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근거해 뉴스 및 시사 정보를 포함해 미디어 대상들(objects)에 취약하기 쉬운 것이라 본다면, 뉴스이용자들의 언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평가도 뉴스 콘텐츠 신뢰(trust)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다매체 환경에서의 뉴스 신뢰 형성은 단순히 뉴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뉴스 소비 플랫폼과 패턴에 따라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용자의 뉴스 이용 관습과 선호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소은, 오현경, 2021), 이 역시도 언론의 역할에 대한 뉴스이용자의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이 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요 사회문제를 의제로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뉴

스이용자들과 언론사가 오보나 낚시성 기사를 배포한다든지, 편파적 기사나 광고성 기사, 허위 조작 정보를 제공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뉴스이용자들은 언론의 공정성과 전문성, 정확성, 영향력과 같은 언론 전반에 대한 가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이용하는 뉴스 및 시사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언론 전반에 대한 뉴스이용자의 인식은 뉴스 접근 플랫폼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인식은 뉴스 신뢰(trust)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수용자의 언론 인식이 플랫폼별 뉴스이용자 신뢰 사이에 과연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국내 주요 뉴스 매체로서 영향력이 여전히 큰 TV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인터넷 포털 뉴스만을 이용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언론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른 뉴스 신뢰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뉴스매체 신뢰와 뉴스 신뢰성

매체 신뢰(media trust) 또는 뉴스 신뢰성(news credibility)에 관한 연구는 언론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았던 연구 주제이다(김연중, 안정임, 2019). 광범위한 신뢰(trust)의 개념을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보면, 이제까지 뉴스매체 신뢰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명료성이 부족했으며, 더욱이 뉴스 신뢰의 원인과 결과들에 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드물다. 신뢰의 개념은 다양한 층위 및 요소들로 구성되어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 간에도 미디어 신뢰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인식론적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오현경, 2022, 102쪽).

파우지 외 동료들은(Fawzi et al., 2021) 포괄적인 문헌 고찰을 토대로, 매체 신뢰성이나 적대적 매체 지각과 같은 개념들을 분류함으로써 명료하게 뉴스 매체 신뢰(trust)에 관한 틀/framework을 만들었으며, 뉴스 신뢰의 원인 및 결과를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구분해 뉴스 매체 신뢰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뉴스 매체에서 신뢰란 미디어가 사회에서 지배적인 규범과 가치에 따라 개인 또는 전체를 위해 만족하게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 인식에 근거해 매체 대상들에 기꺼이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Fawzi et al., 2021, p.156).

한편, 뉴스 연구에서 신뢰성(credibility)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고 다양한 개념으로 접근되었다. 신뢰의 구성요소 또는 하위 차원을 지칭하는 용어들로는 언론 신뢰(media trust), 공신력/신뢰성(credibility), 정보원 공신력/신뢰성(source credibility), 지각된 공신력/신뢰성(perceived credibility), 지각된 진실성(perceived truthfulness) 등이 있다. 학자들은 신뢰의 대상이 갖는 속성에 주목해서 진실성(trustfulness, trustworthiness)을 기능이나 자질의 측면에서 전문성과는 구별하여 사용했는데(오현경, 2022), 뉴스 매체에서 신뢰성은 커뮤니케이터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메시지 수용자가 내리는 판단이며(O'Keefe, 1990), 신뢰할 정보란 믿을만한 정보를 지칭한다(Fogg et al., 2001). 그것은 정보 조작이 진실하다는 개인의 인식에 토대를 둔다(Eisend, 2006). 양성관과 양성운(2003)은 뉴스 신뢰성의 개념을 수용자 신뢰성, 메시지 신뢰성, 정보원 신뢰성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그중 정보원 신뢰성은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개별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신뢰성은 주로 신뢰보다 좁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매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관한 것을 지칭한다. 예를 들자면, 특정한 주어진 시간대에 인지된 정보의 정확성과 같이 구체적인 뉴스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미래를 향해 맞춰진 것이 아니다(Engelke et al, 2019; Prochazka & Schweiger, 2019; van Dalen, 2019). 장정현, 하주용과 김선호(2014)의 연구에서도 매체 신뢰성이란 수용자에게 전달된 메시지나 내용이 얼마만큼 믿을만한지로 정의하였다. 뉴스의 신뢰성은 또한 크게 전문성(expertness)과 진실성(trustworthiness)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시의성, 불편부당성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주장도 있다(우형진, 2021).

이상의 다양한 연구들은 매체 신뢰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확장해서 사용하였지만, 그러한 조사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본다면, 첫째, 매체 신뢰에 대한 합의된 측정 도구 또는 조작적 정의가 부재하다(Engelke et al., 2019; Fischer, 2016, 2018). 둘째, 매체 신뢰가 일반화된 뉴스 미디어 신뢰를 언급하는 것인지, 다른 유형의 매체에 대한 신뢰인지, 구체적인 뉴스 언론사나 보도된 뉴스에 대한 신뢰성 혹은 언론인들에 대한 신뢰성인지 다양성이 매우 크다. 셋째, ‘신뢰’가 매체를 기관이나 조직으로서 언급하는 것인지, 이런 기관이나 조직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인지, 혹은 다양한 매체가 보도한 뉴스에 관한 것인지 가변성(variability)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다양한 매체가 보도한 뉴스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그것은 또한 뉴스 전 범위에 관해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신뢰 문항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넷째, 뉴스 기사들 주제에 따라 신뢰가 얼마나 다른지를 깊이 조사한 연구들은 매우 극소수이다. 다섯째, 실제로 매체 내용에 대한 신뢰와 언론인들, 언론사들 혹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 더 큰 제도적 차원이나 일반적 차원에서의 신뢰를 연계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Stromback et al., 2020, p. 144). 이처럼 뉴스 매체 신뢰에 대한 개념은 포괄적이기도 하고, 다소 명료함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일반화된 언론 매체의 신뢰를 언급하는 수용자조사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 신뢰(trust)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들은 대부분 뉴스 매체 신뢰와 신뢰성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한국 언론수용자조사 연구에서도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와 신뢰성 개념이 혼용되어 조사되었다. 언론에 대한 신뢰(trust)는 “특정 언론사의 기능에 대해 만족할 것을 기대하면서 해당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영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자의 의향”(Hanitzsch, van Dalen & Steindl, 2018, p. 5)이며, 일반적인 신뢰와 구체적인 신뢰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일반화된 신뢰 양식은 사람들이 뉴스매체에 갖고 있는 제도적인 신뢰 또는 언론 전체에 대해 갖는 신뢰이며, 구체적인 양식의 신뢰란 특정한 매체 대상에 사람들이 갖는 신뢰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반화된 매체 신뢰는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상은 개인들이거나 집단들이 될 수 있고, 대인 간 혹은 사회적인 신뢰를 지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제도적인 신뢰 양식으로서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를 다룬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공적 제도(기관)로서 언론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것이다. 그와 같이 신뢰는 언론인이나 신문사, 방송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와 뉴스 매체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인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언론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이 매체별로 어떠하며,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뉴스 및 시사 정보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 2. 뉴스 신뢰와 뉴스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

뉴스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뉴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은 뉴스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뉴스매체의 특성, 언론인의 역할, 뉴스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뉴스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영주, 황현서, 김연주, 그리고 한규섭(2024)은 이용자의 연령과 교육 수준, 정치 성향 등이 뉴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전나진(2023)은 정치적 관심도 또한 뉴스 신뢰를 조절하는 것을 시사했다. 뉴스 자체에 대한 평가로는 뉴스 가치와 이슈의 중요성 등이 뉴스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김봉덕, 2018).

특히 뉴스가 제공하는 기능과 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뉴스 신뢰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된다. 뉴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정보 제공, 의견 제시, 해결책 제시, 의제 설정, 정부 및 기업 감시, 사회적 약자 대변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공론장의 형성과 사회적 책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에 속한다. 칼로게로폴로스, 토프, 그리고 플레처(Kalogeropoulos, Toff, & Fletcher, 2024)는 언론의 감시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뉴스 신뢰도와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코링과 매튜(Kohring & Matthes, 2007)는 뉴스 신뢰가 주제 선택의 공정성, 사실 선택의 객관성, 보도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인의 평가 능력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뉴스가 수행하는 기능은 뉴스 신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뉴스이용자가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신뢰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뉴스 신뢰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개별적인 요인의 분석을 넘어, 뉴스의 공적 기능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언론 신뢰도 조사 및 연구를 살펴보면 언론의 역할 및 윤리적 지향점의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연구마다 논의의 방향성이 다르며, 또 다른 특징은 수용자 지각(audience perception)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실증 연구는 언론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지각된 영역을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해야 하므로 ‘지각된(perceived) 신뢰도’라는 개념이 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오현경, 2022, 105-106쪽). 지각된 신뢰도 측정이란 TV와 인터넷과 같은 뉴스매체가 언론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용자의 평가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뉴스매체 신뢰도의 결정요인으로 메시지나 정보원의 특성보다 수용자의 지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신뢰도가 매체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수용자에 의한 주관적 판단과 평가임을 강조한다(오정호, 2021; Li & Zhang, 2018; Tsftati & Ariely, 2014). 이러한 측면에서 뉴스매체 신뢰도의 결정요인으로 수용자의 언론에 대한 지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스매체의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News Credibility Scale) 항목들은 자신이 가장 친숙한 일간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 응답자들이 뉴스가 공정한지, 편견이 있는지,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지역사회에 대한 안녕에 관한 것인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믿을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Gaziano & McGrath, 1986). 키우시스(Kiousis, 2001)도 가자아노와 맥그래스(Gaziano & McGrath, 1986)의 뉴스 신뢰성 척도 항목을 사용해 신문, 텔레비전 뉴스 그리고 온라인 뉴스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외국의 선행 연구를 통해 언론 매체의 저널리즘적 전문성과 관련된 5가지 항목(공정성, 전문성, 정확성, 독립성, 영향력)에 뉴스의 사회적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더해서 신뢰성의 영향 요인을 조사하였다(박정의, 2001).

한편, 뉴스는 정보 제공, 의견 형성, 공공 감시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부정적인 역기능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오보(misinformation)와 가짜뉴스(fake news)의 확산은 뉴스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낚시성 기사(click bait)와 어뷰징 기사(content abuse)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표현과 반복적인 기사 재생산을 유도하여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다. 또한, 편파적 보도(biased reporting)는 특정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따라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그로 인해 뉴스이용자의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뉴스의 부정적인 역기능은 학계에서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뉴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영주 외(2024)는 정부의 뉴스 개입으로 인한 편파성이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김관규와 김진원(2010)은 신문이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신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칼슨과 알베르그(Karlsen & Aalberg, 2023)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유포하는 방식은 뉴스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반데르미어, 햄리어스 그리고 오메(Van Der Meer, Hameleers, & Ohme, 2023)는 허위 정보에 대한 경고가 오히려 사실 기반 뉴스의 신뢰도까지 낮추는 부정적 파급 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혔다. 결국 뉴스의 부정적인 역기능은 단순히 개별 기사나 매체의 문제를 넘어, 뉴스 신뢰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 신뢰도 연구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이 어떻게 뉴스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의 언론수용자 조사(2023)에서도 언론에 대하여 공정성, 전문성, 정확성, 영향력, 독립성 등을 신뢰성의 척도로 삼아 언론의 전문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질문하였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구체적으로 신뢰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언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함께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의 언론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정보 제공, 의견 제시, 해결책 제시, 의제 제시, 비판 및 감시, 사회적 약자 대변에 관해 질문하였으며, 뉴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오보, 낚시성 기사, 어뷰징 기사, 편파적 기사, 광고성 기사, 이기주의적 기사, 받아쓰기식 기사, 가짜뉴스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 인식은 뉴스 매체가 공정한지, 전문적인지, 정확하고, 독립적인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수용자의 언론 일반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스의 긍정적·부정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뉴스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뉴스 신뢰에 있어 긍정적 요소가 더 중요한지, 부정적 요소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뉴스의 정보제공, 감시 기능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짜뉴스, 편향성, 선정적 보도 등의 부정적 요소가 신뢰 저하의 핵심 원인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신뢰 형성 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어떤 비중을 가지며, 뉴스 소비자가 신뢰를 평가할 때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중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라 어떠한 지각된 신뢰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라 뉴스이용자가 인지한 뉴스의 기능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3. 뉴스 매체 이용 플랫폼과 뉴스 신뢰성

기존의 뉴스매체 신뢰 연구는 사람들이 ‘언론’ 또는 ‘대중매체’와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유형의 미디어를 신뢰하거나 확신하는지 질문하면서 일반적인 차원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매체별 신뢰(media trust)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조사해 왔다. 갤럽 미디어 조사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신뢰(trust)란 신문, TV와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가 뉴스를 보도할 때 완전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보도하는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확신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며(Jones, 2018), 미디어 플랫폼 유형에 관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와 같이 구체적인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를 조사하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8). 많은 뉴스 미디어 조사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공통적인데, ‘언론’ 일반이나 텔레비전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질문한다.

뉴스이용자의 매체별 신뢰 연구는 신문,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매체 사이의 차이점들과 같은 매체 효과에 관한 것으로 발전하였으며, 새로운 뉴스매체로서 인터넷 매체의 신뢰성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Newhagen & Nass, 1989). 플라나긴과 메츠거(Flanagin & Metzger, 2000)는 인터넷 정보가 텔레비전 정보만큼 신뢰할 수 있으나 정보 유형에 따라 신뢰성은 매체(뉴스 플랫폼) 채널별로 다양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키우시스(Kiousis, 2001) 또한 매체 타입이 뉴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했다. 메라히 등(Mehrahi et al., 2009)도 인터넷과 텔레비전 뉴스매체의 신뢰성을 모두 조사했는데, 연구 결과, 텔레비전이 인터넷보다 뉴스 전달에 더 신뢰할 만한 매체로 나타났고, 미디어 이용이 인터넷과 텔레비전 신뢰성 인식과 정적이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하승태와 이정교(2011)는 지상파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케이블TV, DMB 등 6개의 미디어별 이용량과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뉴스 이용량과 신뢰성 간 상관관계는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경성콘텐츠 이용이 많을수록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인터넷 포털 뉴스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에서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뉴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박노일 외, 2017), 대학생들의 인터넷 매체의 신뢰성 연구에서도 정보탐색을 위해 포털 뉴스를 이용했을 경우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연중, 안정임, 2019). 장윤재와 김미라(2020)의 연구에서도 뉴미디어(SNS와 메신저 포함)의 뉴스 이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매체에 대한 신뢰는 늘어났으며, 동시에 전통매체(신문, TV)에 대한 신뢰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매체 환경의 변화로 뉴스이용자들이 뉴스 정보를 취득하고, 소비하는 뉴스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신뢰성은 감소하고 인터넷 뉴스 매체의 신뢰성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김연중, 안정임, 2019; 신태범, 권상희, 2013; 장윤재, 김미라, 2020; Eveland & Dylko, 2007; Kaye & Johnson, 2006).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뉴스 이용 플랫폼마다 언론 매체로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공정성이나 정확성 같은 언론에 대한 전문성 항목을 수용자들이 다르게 지각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 뉴스 이용 플랫폼별 수용자의 언론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뉴스매체가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뉴스 이용 플랫폼(TV와 인터넷)에 따라 뉴스의 기능 인식은 뉴스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I.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3년 10월에 진행한 <언론수용자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2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언론수용자조사>는 대한민국 내 미디어 이용 실태와 언론에 대한 인식 조사로 미디어별 이용 행태, 언론 및 뉴스 인식, 신뢰도 경험에 대한 항목을 조사한다. 해당 데이터는 층화 2단 추출법을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의 표본을 확보했다. 본 연구는 뉴스 이용 플랫폼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대표 플랫폼으로써 TV와 인터넷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독립된 두 그룹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 TV 뉴스만을 이용하는 표본과 인터넷 뉴스만을 이용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 간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과 부정적 기능 인식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선행하였으며, 등분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Welch's t-test 결과를 참조하였다.

각 집단(TV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별로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과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뉴스 신뢰, 독립변수는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과 뉴스 부정적 기능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로는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 t값, p값을 제시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 $R^2$ )과 수정된 설명력(Adjusted  $R^2$ ) 또한 보고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하였다. VIF가 10 이하로 나타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 간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과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Z-test를 실시하였다(Paternoster et al., 1998). Z값은 각 집단의 표준화 회귀계수( $\beta$ ) 차이를 각 회귀계수의 표준오차(SE)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beta_1$ 과  $\beta_2$ 는 각각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의 표준화 회귀계수이며,  $SE_1$ 과  $SE_2$ 는 각 집단의 표준오차이다. 산출된 Z값이  $\pm 1.96$  이상일 경우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 1).

$$Z = \frac{\beta_1 - \beta_2}{\sqrt{SE_1^2 + SE_2^2}} \quad (1)$$

#### 2. 측정변인

##### 가. 인지된 긍정적 기능

인지된 긍정적 기능은 우리나라의 언론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제공, 의견 제시, 해결책 제시, 의제 제시, 비판 및 감시, 사회적 약자 대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잘하지 못한다’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로 구성된 5점 척도

로 측정되었다.

#### 나. 인지된 부정적 기능

인지된 부정적 평가는 뉴스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보, 낚시성 기사, 어뷰징 기사, 편파적 기사, 광고성 기사, 이기주의적 기사, 받아쓰기식 기사,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도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매우 심각하다’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다. 뉴스 신뢰

뉴스 신뢰는 뉴스 및 시사 정보 신뢰도에 관한 내용으로 뉴스 및 시사 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 평가와 응답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뉴스 및 시사 정보에 대한 신뢰 두 가지를 질문하였다. 모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신뢰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뉴스 이용 플랫폼 (TV와 인터넷) 두 그룹을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실제 이용하는 뉴스 및 시사 정보는 각 그룹이 이용하는 TV, 인터넷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뜻한다.

#### 라. 이용 플랫폼

이용 플랫폼은 지난 1주일 동안 TV 또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TV 뉴스이용자 그룹과 인터넷 뉴스 이용자 그룹을 분리하기 위해 TV 뉴스와 인터넷 뉴스 모두 이용하는 표본은 제외되었으며 이외 잡지, 종이신문, 라디오 등 타 기기 및 플랫폼도 제외하였다. TV 이용자 그룹의 경우 TV에서 제공하는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했으며, 인터넷의 경우 모바일 또는 컴퓨터 중 하나의 기기라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터넷 이용자로 분류되었다. 인터넷 이용의 경우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 사이트, 메신저, SNS, 온라인 동영상, 팟캐스트 등을 통한 뉴스 이용을 모두 포함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표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총 1,342명으로, TV 뉴스이용자와 인터넷 뉴스이용자가 각각 671명으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1> 참고). 연령별로는 TV 뉴스이용자의 경우 60대(276명)와 50대(150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20대(209명)와 30대(175명)에서 두드러졌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TV 뉴스이용자는 남성 299명, 여성 372명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남성 325명, 여성 346명으로 조사되었다. 최종 학력별로는 TV 뉴스이용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366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학 재학/졸업(19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대학 재학/졸업(494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167명)이 그 뒤를 이었다.

&lt;표 1&gt; 표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        |           | TV 뉴스 이용자   | 인터넷 뉴스 이용자  |
|--------|-----------|-------------|-------------|
| 나이     | 20대       | 36 (5.4%)   | 268 (39.9%) |
|        | 30대       | 37 (5.5%)   | 175 (26.1%) |
|        | 40대       | 93 (13.9%)  | 97 (14.5%)  |
|        | 50대       | 150 (22.4%) | 70 (10.4%)  |
|        | 60대       | 276 (41.1%) | 54 (8.0%)   |
|        | 70대이상     | 79 (11.8%)  | 7 (1.0%)    |
| 성별     | 남성        | 299 (44.6%) | 325 (48.4%) |
|        | 여성        | 372 (55.4%) | 346 (51.6%) |
| 최종학력   | 중학교 졸업 이하 | 112 (16.7%) | 11 (1.6%)   |
|        | 고등학교 졸업   | 366 (54.5%) | 167 (24.9%) |
|        | 대학 재학/졸업  | 190 (28.3%) | 484 (72.1%) |
|        | 대학원 재학 이상 | 3 (0.4%)    | 9 (1.3%)    |
| 합계     |           | 671 (50%)   | 671 (50%)   |
| 전체 표본수 |           | 1342 (100%) |             |

## 2.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뉴스이용자의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 항목의 내부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요인 회전 방식으로는 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 검정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은 0.912로 나타나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 = 10836.367$ ,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데이터가 요인 분석을 위한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표 2> 참고).

요인분석 결과, 부정적 기능 요인과 긍정적 기능 요인 총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58.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고유값(Eigenvalue)은 부정적 기능 요인이 4.595(분산 설명력: 30.637%), 긍정적 기능 요인이 4.175(분산 설명력: 27.833%)로 확인되었다. 이는 두 요인이 뉴스이용자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설명력을 제공함을 시사한다. 각 항목의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s)은 모두 0.7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Communalities) 값 역시 0.56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각 측정 항목이 해당 요인과 강한 상관성을 가지며, 요인 구조 내에서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 항목의 내부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 기능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0.893, 긍정적 기능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0.88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되며(Nunnally & Bernstein, 1994),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0.8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은 내부 일관성을 갖고

# TV와 인터넷 뉴스의 이용 정도와 언론 신뢰도의 상관성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전체 이용자 모형의 종속변수에 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 요인    | 변수         | 요인적재값 | 공통성   | 고유값   | 분산(%)  | Cronbach's $\alpha$ |
|-------|------------|-------|-------|-------|--------|---------------------|
| 부정적기능 | 가짜뉴스       | .784  | 0.620 | 4.595 | 30.637 | .893                |
|       | 어뷰징 기사     | .768  | 0.590 |       |        |                     |
|       | 받아쓰기식 기사   | .761  | 0.580 |       |        |                     |
|       | 이기주의적 기사   | .761  | 0.579 |       |        |                     |
|       | 낚시성 기사     | .760  | 0.578 |       |        |                     |
|       | 편파적 기사     | .757  | 0.573 |       |        |                     |
|       | 오보         | .730  | 0.541 |       |        |                     |
|       | 광고성 기사     | .729  | 0.532 |       |        |                     |
| 긍정적기능 | 기업 비판 및 감시 | .791  | 0.630 | 4.175 | 27.833 | .886                |
|       | 의제 제시      | .785  | 0.616 |       |        |                     |
|       | 해결책 제시     | .781  | 0.613 |       |        |                     |
|       | 정보 제공      | .771  | 0.597 |       |        |                     |
|       | 의견 제시      | .759  | 0.577 |       |        |                     |
|       | 정부 비판 및 감시 | .758  | 0.577 |       |        |                     |
|       | 사회적 약자 대변  | .750  | 0.567 |       |        |                     |

KMO(=.912), Bartlett의 구형성검정( $\chi^2 = 10836.367$ ,  $p = .000$ ), 전체분산설명력 58.47(%)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이용자와 TV 뉴스이용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때문에 모형을 두 개로 구성하여 추가적인 모형에 대해서도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이 도출되었다. 먼저 인터넷 뉴스 이용자 모형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인터넷 뉴스이용자의 뉴스 인식은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61.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기능 요인은 고유값 4.954(설명력: 33.027%), 긍정적 기능 요인은 고유값 4.234(설명력: 28.223%)로 확인되었다. KMO 값은 0.919로 요인 분석에 적합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5216.571$ ,  $p < .001$ )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 구조가 적절하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요인 적재값은 모든 항목에서 0.7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값도 0.56 이상을 유지하여 측정 항목들이 요인 구조 내에서 안정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부정적 기능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0.912, 긍정적 기능 요인은 0.889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lt;표 3&gt; 인터넷 뉴스 이용자 모형의 종속변수에 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 요인    | 변수         | 요인적재값 | 공통성   | 고유값   | 분산(%)  | Cronbach's $\alpha$ |
|-------|------------|-------|-------|-------|--------|---------------------|
| 부정적기능 | 가짜뉴스       | 0.819 | 0.679 | 4.954 | 33.027 | 0.912               |
|       | 낚시성 기사     | 0.792 | 0.613 |       |        |                     |
|       | 이기주의적 기사   | 0.792 | 0.629 |       |        |                     |
|       | 어뷰징 기사     | 0.783 | 0.601 |       |        |                     |
|       | 편파적 기사     | 0.78  | 0.628 |       |        |                     |
|       | 오보         | 0.779 | 0.626 |       |        |                     |
|       | 받아쓰기식 기사   | 0.771 | 0.599 |       |        |                     |
|       | 광고성 기사     | 0.757 | 0.575 |       |        |                     |
| 긍정적기능 | 기업 비판 및 감시 | 0.782 | 0.67  | 4.234 | 28.223 | 0.889               |
|       | 해결책 제시     | 0.782 | 0.611 |       |        |                     |
|       | 정부 비판 및 감시 | 0.777 | 0.589 |       |        |                     |
|       | 사회적 약자 대변  | 0.771 | 0.601 |       |        |                     |
|       | 의제 제시      | 0.766 | 0.608 |       |        |                     |
|       | 정보 제공      | 0.756 | 0.585 |       |        |                     |
|       | 의견 제시      | 0.751 | 0.565 |       |        |                     |

KMO(=.919), Bartlett의 구형성검정( $\chi^2 = 5216.571$ ,  $p = .000$ ), 전체분산설명력 61.25(%)

이에 더하여, TV 뉴스이용자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KMO 값은 0.896으로 요인 분석에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5690.243$ ,  $p < .001$ )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4> 참고). 이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요인 구조를 형성하는 데 적절함을 시사한다.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적용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56.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기능 요인의 고유값은 4.315(설명력: 28.768%), 긍정적 기능 요인의 고유값은 4.092(설명력: 27.282%)로 확인되었다. 각 항목의 요인 적재값은 모두 0.68 이상으로, 측정 항목들이 해당 요인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부정적 기능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0.877, 긍정적 기능 요인은 0.880으로 계산되었다. 두 요인 모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며, 내부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lt;표 4&gt; TV 뉴스이용자 모형의 종속변수에 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 요인    | 변수       | 요인적재값 | 공통성   | 고유값   | 분산(%)  | Cronbach's $\alpha$ |
|-------|----------|-------|-------|-------|--------|---------------------|
| 부정적기능 | 어뷰징 기사   | .755  | 0.574 | 4.315 | 28.768 | .877                |
|       | 가짜뉴스     | .755  | 0.574 |       |        |                     |
|       | 받아쓰기식 기사 | .752  | 0.566 |       |        |                     |
|       | 낚시성 기사   | .738  | 0.545 |       |        |                     |
|       | 편파적 기사   | .735  | 0.541 |       |        |                     |
|       | 이기주의적 기사 | .733  | 0.537 |       |        |                     |
|       | 광고성 기사   | .706  | 0.500 |       |        |                     |
|       | 오보       | .687  | 0.475 |       |        |                     |

## TV와 인터넷 뉴스의 이용 정도와 언론 신뢰도의 상관성

| 요인    | 변수         | 요인적재값 | 공통성   | 고유값   | 분산(%)  | Cronbach's $\alpha$ |
|-------|------------|-------|-------|-------|--------|---------------------|
| 긍정적기능 | 의제 제시      | .784  | 0.618 | 4.092 | 27.282 | .880                |
|       | 정보 제공      | .777  | 0.604 |       |        |                     |
|       | 해결책 제시     | .776  | 0.608 |       |        |                     |
|       | 기업 비판 및 감시 | .767  | 0.591 |       |        |                     |
|       | 의견 제시      | .761  | 0.581 |       |        |                     |
|       | 정부 비판 및 감시 | .749  | 0.561 |       |        |                     |
|       | 사회적 약자 대변  | .727  | 0.531 |       |        |                     |

KMO(=.896), Bartlett의 구형성검정( $\chi^2 = 5690.243$ ,  $p = .000$ ), 전체분산설명력 56.05(%)

### 3.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른 뉴스의 기능 인식 차이

뉴스 기능 인식에 있어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5> 참고). 분석 결과,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t = -5.080$ ,  $p < .001$ ), 인터넷 이용자( $M = 3.225$ ,  $SD = 0.705$ )가 TV 이용자( $M = 3.043$ ,  $SD = 0.692$ )보다 뉴스의 긍정적 기능을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 = 1.244$ ,  $p = .214$ ).

<표 5>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른 뉴스의 기능 인식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 구분     | 평균    |       | 표준편차  |       | t값     | p값   |
|--------|-------|-------|-------|-------|--------|------|
|        | TV    | 인터넷   | TV    | 인터넷   |        |      |
| 긍정적 기능 | 3.043 | 3.225 | 0.692 | 0.705 | -5.080 | .000 |
| 부정적 기능 | 3.761 | 3.717 | 0.699 | 0.702 | 1.244  | .214 |

### 4.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른 뉴스의 기능 인식과 뉴스 신뢰의 상관관계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뉴스의 긍정적 기능 및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6> 참고). 분석 결과,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668) = 146.704$ ,  $p < .001$ ), 결정계수는  $R^2 = .305$ , 수정된  $R^2 = .303$ 으로, 독립변수들이 뉴스 신뢰의 약 3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은 뉴스 신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530$ ,  $SE = 0.033$ ,  $\beta = 0.519$ ,  $t = 15.942$ ,  $p < .001$ ). 반면,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은 뉴스 신뢰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133$ ,  $SE = 0.033$ ,  $\beta = -0.130$ ,  $t = -3.994$ ,  $p < .001$ ). 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가 1.0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t;표 6&gt; 긍정적, 부정적 기능과 뉴스신뢰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인터넷 이용자)

|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 유의확률 | 공차   | VIF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2.125  | .176 |       | 12.084 | .000 |      |       |
| 긍정적기능 | .530   | .033 | .519  | 15.942 | .000 | .981 | 1.020 |
| 부정적기능 | -.133  | .033 | -.130 | -3.994 | .000 | .981 | 1.020 |

R=.552,  $R^2 = .305$ , 수정된  $R^2 = .303$ ,  $F=146.704$ , Durbin-Watson=1.570

인터넷 이용자와 더불어 TV 이용자를 대상으로 뉴스의 긍정적 기능 및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877) = 201.604$ ,  $p < .001$ ), 결정계수는  $R^2 = .315$ , 수정된  $R^2 = .313$ 으로, 독립변수들이 뉴스 신뢰의 약 3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은 뉴스 신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579$ ,  $SE = 0.029$ ,  $\beta = 0.561$ ,  $t = 20.052$ ,  $p < .001$ ). 반면,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은 뉴스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023$ ,  $SE = 0.031$ ,  $\beta = 0.020$ ,  $t = 0.726$ ,  $p = .468$ ). 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가 1.0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7> 참고).

&lt;표 7&gt; 긍정적, 부정적 기능과 뉴스신뢰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TV 이용자)

|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 유의확률 | 공차    | VIF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1.323  | .147 |       | 9.003  | .000 |       |       |
| 긍정적기능 | .579   | .029 | .561  | 20.052 | .000 | 1.000 | 1.000 |
| 부정적기능 | .023   | .031 | .020  | .726   | .468 | 1.000 | 1.000 |

R=.561,  $R^2 = .315$ , 수정된  $R^2 = .313$ ,  $F=201.604$ , Durbin-Watson=1.654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 간 뉴스의 긍정적 기능 및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Z-test를 실시하였다(<표8> 참고). Z-test는 각 집단의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표준화 회귀계수( $\beta$ )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바탕으로, 두 집단 간 회귀계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의  $\beta$  값 차이를 각각의 표준오차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Z값을 산출하였으며, 이때 Z값이  $\pm 1.96$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Z = 0.797$ ,  $p > .05$ ). 반면,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Z = 3.31$ ,  $p < .001$ ), 인터넷 이용자 집단에서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lt;표 8&gt; 긍정적, 부정적 기능과 뉴스신뢰의 관계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Z-test 결과

| 경로                   | TV 이용자 $\beta$ | 인터넷 이용자 $\beta$ | Z값    | 결과                           |
|----------------------|----------------|-----------------|-------|------------------------------|
| 뉴스 긍정적 기능<br>→ 뉴스 신뢰 | 0.561          | 0.596           | 0.797 | 유의미한 차이 없음<br>( $p > .05$ )  |
| 뉴스 부정적 기능<br>→ 뉴스 신뢰 | 0.02           | -0.13           | -3.48 | 유의미한 차이 있음<br>( $p < .001$ ) |

## V. 결론 및 논의

매체 신뢰란 개인이 특정 매체를 얼마나 믿을만한 것으로 평가하는지를 뜻하며, 이는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수용자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Jakobsson & Stiemstedt, 2023). 본 연구는 뉴스 신뢰 하락과 뉴스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라 뉴스의 긍정적 및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미디어 신뢰나 신뢰성 개념에 대한 개념적 논의에 머무르거나, 플랫폼에 따른 이용자 인식 차이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국내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를 구분하여 뉴스 기능 인식과 뉴스 신뢰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 수준은 인터넷 이용자가 TV 이용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 수준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은 양 집단 모두에서 뉴스 신뢰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은 인터넷 이용자 집단에서만 뉴스 신뢰를 유의미하게 저하시키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TV 이용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Z-test를 통한 회귀계수 비교 결과,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의 부정적 기능을 인지한 인터넷 이용자가 뉴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뉴스 및 시사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전통 미디어인 텔레비전에 익숙한 뉴스이용자들은 대체로 매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높은 신뢰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정적 기능이 뉴스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TV 뉴스이용자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수십 년간 축적된 매체 이용의 연속성과 습관적 사용에 기반한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TV 뉴스가 오랫동안 믿을만한 정보원의 지위를 누려왔음을 함축한다. 이와는 달리 인터넷 뉴스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20-30대 연령층이 많았으며, 그들은 인터넷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뉴스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박노일 외, 2017; 장운재, 김미라, 2020)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디지털 매체 환경의 변화로 뉴스이용자들이 뉴스 정보를 취득하고, 소비하는 뉴스 플랫폼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뉴스매체 신뢰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 언론 매체의

긍정적 기능보다 부정적인 기능 인식이 인터넷 뉴스 이용자의 뉴스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발견은 몇 가지 학술적, 실무적 함의를 지닌다. 먼저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뉴스 신뢰 형성 과정이 플랫폼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뉴스 신뢰를 설명하는 요인을 긍정적 기능 인식과 부정적 기능 인식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뉴스이용자들의 신뢰 인식 구조에 관한 정교한 분석 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뉴스 신뢰 연구에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실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뉴스 생산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차별화된 신뢰 관리 전략을 요구한다. TV 뉴스이용자는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이 신뢰 저하로 직접 연결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를 유의미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플랫폼 환경에서 뉴스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의 부정적 인식 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려는 전략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인터넷 뉴스이용자는 언론사의 품질 관리 실패(예: 오보, 낚시성 기사, 편파적 보도 등)에 대해 더 즉각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므로, 인터넷 기반 뉴스 제공자들은 뉴스의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뉴스 공급자는 뉴스의 긍정적 사회 기능을 수용자 관점에서 분명하게 부각하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신뢰 회복을 위해 부정적 이슈에 대한 빠른 대응, 정정보도 및 오해 해소 노력, 투명한 편집 방침 공개와 같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신뢰 복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 노출에 취약한 뉴스이용자들의 경우 매체를 불신하면서도 뉴스를 소비하고, 사실 확인 없이 뉴스를 받아들이거나 공유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Munyaka et al, 2022), 플랫폼 차원에서 정보의 선별과 수용에 대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나, 뉴스 이용자들이 정보 검증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 기반의 공통된 뉴스 ‘팩트체크’ 사이트 운영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2차로 활용하였으므로 뉴스 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른 신뢰 형성의 장기적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뉴스 소비 방식이 단순히 플랫폼 차원에서만 구분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연령별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나 정치적 성향과 같은 개인적 요인도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TV 뉴스이용자와 인터넷 뉴스이용자의 나이 차이가 두드러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노년층의 인터넷, 유튜브,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뉴스와 정보 소비 채널로써 뉴스 소비 플랫폼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통매체를 신뢰하고 젊을수록 인터넷 기반 매체를 신뢰하는 경향은 뉴스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혹은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뉴스 신뢰 변화 및 뉴스 이용 패턴의 동적 효과를 분석하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고, 디지털 뉴스 매체의 이용 정도와 리터러시 수준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언론에 대한 신뢰와 뉴스 소비 플랫폼 간의 관계 변화를 시계열로 추적하여 분석함으로써 실무적 차원에서 플랫폼별 뉴스 신뢰 제고를 위한 후속 연구도 요망된다.

## 참고문헌

- 강길홍, 이민규(2015). 모바일 뉴스 시대의 미디어 신뢰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김관규, 김진원. (2010).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기사 표제 차이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0권 2호, 39-72.
- 김미경, 김봉덕. (2018). 뉴스 소비자의 사실 중심 뉴스 가치 인식, 이슈의 중요성 인식, 뉴스의 편향적 지각이 뉴스의 신뢰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사드'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권 1호, 343-356.
- 김연중, 안정임. (2019). 대학생들의 인터넷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권 2호, 438-449.
- 김영주, 오세욱(2024). 누가, 왜 뉴스를 회피하는가?. <Media Issue>, 10권 4호.
- 남유원, 지성욱. (2022). 뉴스 이용, 참여, 출처 인지가 뉴스 미디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SNS, 메신저,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6권 5호, 57-94.
- 박노일, 정지연, 장정현. (2017). 고령자 집단의 뉴스 미디어 이용과 신뢰도 연구: 2013~2015 년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4권 1호, 314-347.
- 박정의 (2001). 다매체 시대의 매체별 신뢰도 분석: 온라인과 전통매체의 변별요소-뉴스의 사회성. <한국방송학보>, 15권 3호, 129-154.
- 반현, 권영순 (2007). 포털 뉴스와 기존 뉴스 매체의 이용행위에 대한 상관관계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399-426.
- 성동규, 박상호 (2005). 지상파 3사의 미디어 신뢰도와 TV 뉴스 이용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선택집단별 미디어 신뢰도 평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60호, 213-242.
- 신대범, 권상희 (2013). 국내 청소년의 포털뉴스 이용특성과 뉴스신뢰, 공공성인식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권 1호, 241-294.
- 양성관, 양성운 (2003).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의 위기지각 (risk perception)에 미치는 영향: 위기에 관한 수용자의 관여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279-305.
- 오정호 (2021). 뉴스매체 신뢰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시기별·매체별 비교 분석. <사회과학연구>, 60권 2호, 199-232.
- 오현경 (2022). 언론 신뢰도의 개념적 고찰. <언론과 사회>, 30권 1호, 99-132.
- 우형진 (2021). 공영방송사 방송독립성과 뉴스 신뢰도에 대한 시청자 평가가 채널브랜드자산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BS 와 MBC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6호, 155-164.
- 이도연, 김동윤, 김현 (2022). 이용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언론으로 인식하는가?: 가짜뉴스 확산 경로인식, 미디어 신뢰도, 뉴스 소비 행태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53권 1호, 269-288.
- 이소은, 오현경 (2021). 매체, 언론사, 주제별 뉴스 이용과 언론에 대한 평가: 이용자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권 2호, 241-285.
- 장운재, 김미라 (2020). 참여적 뉴스 이용의 효과: 메신저, SNS를 통한 뉴스 이용과 뉴스 및 언론인에 대한 신뢰. <한국언론정보학보>, 99호, 245-274.

- 장정현, 하주용, 김선호 (2014). 정치 정보원으로서 인터넷미디어 신뢰도 연구: 18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4호, 96-128.
- 전나진 (2023). 내가 이용하는 뉴스 신뢰도와 뉴스 전반 신뢰도의 관계에서 정치적 관심도의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 맹신, 불신 그리고 편향성의 확인.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7권 2호, 95-117.
- 정영주, 황현서, 김연주, 한규섭 (2024). 공영방송은 신뢰받고 있는가: KBS 신뢰도와 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8권 6호, 125-170.
- 하승태, 이정교. (2011). 미디어 이용량과 선호 콘텐츠 유형이 미디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413-434.
- 한국언론진흥재단(2024). <2023 언론수용자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p.31.
- Carter, R. F., & Greenberg, B. S. (1965). Newspapers or television: Which do you believe?. *Journalism Quarterly*, 42(1), 29-34.
- Cobbey, R. (1980), Audiences Attitudes and Readership, *American Newspapers Publishers Association News Research Report*, 29, December 15, 8-9.
- Eisend, M. (2006). Source credibility dimensions in marketing communication - A generalized solution. *Journal of Empirical Generalisations in Marketing Science*, 10(2).
- Engelke, K. M., Hase, V., & Wintterlin, F. (2019). On measuring trust and distrust in journalism: Reflection of the status quo and suggestions for the road ahead. *Journal of trust research*, 9(1), 66-86.
- Fawzi, N., Steindl, N., Obermaier, M., Prochazka, F., Arlt, D., Blöbaum, B., ... & Ziegele, M. (2021). Concepts, causes and consequences of trust in news media - A literature review and framework.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45(2), 154-174.
- Fischer, C. (2016). The trouble with “trust” in news media. *Communication Research and Practice*, 2(4), 431 - 465.
- Flanagin, A. J., & Metzger, M. J. (2000). Perceptions of Internet information credibilit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3), 515-540.
- Fogg, B. J., Marshall, J., Laraki, O., Osipovich, A., Varma, C., Fang, N., ... & Treinen, M. (2001, March). What makes web sites credible? A report on a large quantitative study.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61-68).
- Gaziano, C., & McGrath, K. (1986). Measuring the concept of credibility. *Journalism quarterly*, 63(3), 451-462.
- Grosser, K. M., Hase, V., & Blöbaum, B. (2016). Trust in online journalism. *Trust and Communication in a Digitized World: Models and Concepts of Trust Research*, 53-73.
- Hanitzsch, T., Van Dalen, A., & Steindl, N. (2018). Caught in the nexus: A comparative and longitudinal analysis of public trust in the pr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3(1), 3-23.
- Jakobsson, P., & Stiernstedt, F. (2023). Trust and the Media: Arguments for the (Irr) relevance of a Concept. *Journalism Studies*, 24(4), 479-495.
- Jones, R. (2019). *Trusting News Project Report* 2018.

- Kalogeropoulos, A., Toff, B., & Fletcher, R. (2024). The watchdog press in the doghouse: A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s about accountability journalism, trust in news, and news avoid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9(2), 485-506.
- Karlsen, R., & Aalberg, T. (2023). Social media and trust in news: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 of Facebook on news story credibility. *Digital Journalism*, 11(1), 144-160.
- Kiousis, S. (2001). Public trust or mistrust? Perceptions of media credibility in the information age. *Mass Communication & Society*, 4(4), 381-403.
- Kohring, M., & Matthes, J. (2007). Trust in news medi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scale. *Communication Research*, 34(2), 231-252.
- Li, X., & Zhang, G. (2018). Perceived credibility of Chinese social media: Toward an integrated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30(1), 79-101.
- Lu, H., & Andrews, J. E. (2006).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the absolute media credibility about SARS-related news during the SARS outbreak in Taiwan. *China Media Research*, 2(2), 85-93.
- Luhmann, N. (2017). *Trust and Power*. Cambridge: Polity Press.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ehrahi, D., Hassan, M. A., & Shahkat Ali, M.(2009). News media credibility of the internet and televis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11(1), 136-148.
- Munyaka, I., Hargittai, E., & Redmiles, E. (2022). The misinformation paradox: Older adults are cynical about news media, but engage with it anyway. *Journal of Online Trust and Safety*, 1(4).
- Newhagen, J., & Nass, C. (1989). Differential criteria for evaluating credibility of newspapers and TV news. *Journalism Quarterly*, 66(2), 277-284.
- NMA(2024). Engaging News Audiences with Constructive Journalism., Retrieved from <https://newsmediauk.org/journalism-matters/>
- O'Keefe, D. J. (1990). *Persuasion: Theory and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Ozili, P. K. (2023). The acceptable R-square in empirical modelling for social science research. In Saliya, C. A. (Ed.). *Social research methodology and publishing results: A guide to non-native English speakers: A Guide to Non-Native English Speakers*. IGI Global.Social research methodology and publishing results: A guide to non-native English speakers (pp. 134-143). IGI global.
- Paternoster, R., Brame, R., Mazerolle, P., & Piquero, A. (1998). Using the correct statistical test for the equality of regression coefficients. *Criminology*, 36(4), 859-866.
- Prochazka, F., & Schweiger, W. (2019). How to measure generalized trust in news media? An adaptation and test of scales.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13(1), 26-42.
- Rimmer, T., & Weaver, D. (1987). Different questions, different answers? Media use and media credibility. *Journalism Quarterly*, 64(1), 28-44.
- Strömbäck, J., Tsifti, Y., Boomgaarden, H., Damstra, A., Lindgren, E., Vliegenthart, R., & Lindholm, T. (2020). News media trust and its impact on media use: Toward a framework for future research.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44(2), 139-156.
- Tsfati, Y. (2010). Online news exposure and trust in the mainstream media: Exploring possible association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4(1), 22-42.

- Tsfati, Y., & Ariely, G. (2014). Individual and contextual correlates of trust in media across 44 countries. *Communication Research*, 41(6), 760-782.
- Van Der Meer, T. G., Hameleers, M., & Ohme, J. (2023). Can fighting misinformation have a negative spillover effect? How warnings for the threat of misinformation can decrease general news credibility. *Journalism Studies*, 24(6), 803-823.
- Vanacker, B., & Belmas, G. (2009). Trust and the economics of new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4(2-3), 110-126.

## \*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verify how the percep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news on news trust varies depending on the news usage platform amid the decline in news trust and the spread of news avoidanc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 Press Foundation's 'Media User Survey (2023)',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function recognition and news trust by dividing domestic TV users and Internet users. As a result, the level of positive function recognition of new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Internet users than for TV users. In addition, while the perception of negative functions of news did not directly lead to a decrease in trust for TV news users, the perception of negative functions significantly weakened news trust for Internet news use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tructure of news users' perceptions of trust by approaching the differences in trust among news users by platform in detail, and suggests the need for efforts to improve news quality by platform to increase news trust in a multi-media news environment.

Keywords: News Media Trust, News Platform,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News

## \* 초 록 \*

본 연구는 뉴스 신뢰 하락과 뉴스 회피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라 이용자의 긍정적 및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조사(2023)’ 데이터를 활용해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를 구분하여 뉴스 기능 인식과 뉴스 신뢰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 수준은 인터넷 이용자가 TV 이용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TV 뉴스이용자는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이 신뢰 저하로 직접 연결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뉴스이용자는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를 유의미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뉴스이용자들의 플랫폼별 신뢰의 차이를 세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뉴스이용자들의 신뢰 인식 구조에 대한 분석 틀을 제공하였으며, 다매체 뉴스 환경에서 뉴스 신뢰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별 뉴스 품질 향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뉴스 매체 신뢰, 뉴스 플랫폼, 뉴스의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 영연방 국가의 영상산업에 관한 연구\*

장 일\*\*

A Study on the Visual Industries in 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Il Chang

### ◁ 목 차 ▷

- |                                     |                     |
|-------------------------------------|---------------------|
| I. 산업이자 예술인 ‘영화’에 대한 이해             | V. 영상산업과 영상 문화의 독자성 |
| II. 영상산업과 영상 경험                     | 참고문헌                |
| III. 영국의 영화 산업                      | 논문초록                |
| IV.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br>인도의 영화 산업 |                     |

## I. 산업이자 예술인 ‘영화’에 대한 이해

### 1. 영화(映畵)의 정의

오늘날 영화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취미활동으로 영화 관람이 자리를 잡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딱히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영화를 비롯한 각종 영상물의 홍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의미에서이다. 더군다나, 텔레비전이나 PC, 스마트폰 등 미디어의 형태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짐과 동시에 그러한 다양한 채널들과 매체들을 통해서 영상으로 표현된 콘텐츠를 하루라도 접하지 않고서는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과 그 현상들이 함의하고 있는 사회적인 맥락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단지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영화를,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생긴다. 이는 이후 살펴보게 될 영화

\* 이 논문은 2022년도 장기국외연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산업과 영상산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 취미의 대상으로서의 영화든, 학습의 대상으로서의 영화든,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영화는 “映畵”다. 곧이곧대로 해석하자면, 빛에 의해 비추어진(투영된) 그림이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빛의 투영 원리에 따라 카메라라는 기계를 동원해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어 스크린 위에 펼쳐놓은 그림이 영화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영화는 무엇보다도 시각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 매체로서의 영화는 문자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 유통되었던 이전의 다른 다양한 매체 및 장르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다. 영화의 탄생과 더불어, “읽거나 듣는” 문화보다 “보는” 문화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영화는 또 다른 시각 매체인 사진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유사한 과학적 원리에 따라 탄생한 매체들이긴 하지만, 사진은 우리네 삶 속의 여러 모습 중 단지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만을 보여줄 뿐이지만, 영화는 삶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움직이는 영상, 즉 동영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초창기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따라서 영화는 “움직이는 영상(映像)”, “빛에 의해 비추어진 움직이는 그림”, 혹은 “사진의 기술과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여 피사체를 연속 촬영함으로써 만들어진, 스크린 위에서 피사체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상 매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영화를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는 시각 매체”라고 정의 내리면서, 과거 영미 문화권에서 사용했거나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영화에 관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모션 픽처(motion picture)”나 “무빙 픽처(moving picture)”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시각 매체로서의 영화를 표현하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앞서 언급했던 “활동사진(活動寫眞)”이라는 표현이 바로 모션 픽처나 무빙 픽처를 번역할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비(movie)”는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영화를 지칭하는 말로서, 상업영화 전반을 뜻하기도 하고 영화 장르나 개별 영화들을 뜻하기도 한다. 반면, “시네마(cinema)”는 영화의 예술적인 측면이나 이론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 집합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임과 동시에 영화관이나 극장을 뜻하기도 하고, “필름(film)”은 빛에 의한 영상의 투영 원리, 즉 필름 위에 각인된 이미지가 바로 영화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기술적이고도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영화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 2. 산업이자 예술인 영화, 그리고 종합예술로서의 영화

영화는 산업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예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영화는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과학 기술의 발달이라는 근현대사의 커다란 전환기에 탄생했다. 대중의 미적인 관심과 예술에 대한 열망이 영화의 탄생 및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영화라는 매체는 과학적인 호기심과 기술적인 실험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화의 탄생 이전에는 산업과 예술이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영화의 탄생 이후부터 이 두 영역은 서로 동반자 관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사이에서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적인 발달이 커다란 임무를 수행했음은 두말할 필요 없겠다. 너무도 당연하게도, 영화예술의 기술적인 요소들은 영화라는 예술을 급속도로 발전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으며 그 기술들은 이윤 창출이라는 사업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더욱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895년 루미에르가 영화를 탄생시킨 이후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의 흐

름 속에서, 영화는 도전적인 예술가들의 노력과 기술적인 발명, 그리고 사업가 정신이 결합되어 오늘날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대중문화의 꽃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영화는 또한 수 세기에 걸쳐서 발달해 온 수많은 다른 예술 장르 및 매체들, 즉 사진, 연극, 회화, 무용, 문학 등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발전해 왔다. 영화는 때로 배우의 존재와 연기라는 측면 때문에 연극과 흡사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때로 이야기 구조와 플롯을 갖고 있다는 측면으로 인해 문학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더불어 영화는 시각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사진이나 회화와 그 뿌리를 나누고 있기도 하다. 영화가 이렇듯 다양한 예술 장르 및 매체들과 공통점 내지는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영화가 종합예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영화는 다른 예술 장르 및 매체들과 함께 전시될 수 있는 보드빌, 음악회장, 연예 오락장, 장터, 이동 극단 등을 통해서 상영되기도 했었다.

### 3. 영화의 형식과 내용

영화는 동영상이자 시각 매체이고, 산업이자 예술인 동시에, 종합예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영화는 단지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만 그치는 매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시각적으로,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보고 보이는 관계에만 국한되는 매체로 영화를 정의한다면, 영화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적인 차원을 놓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영화를 제대로 바라보고, “보기” 위해서는 영화를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필요성이 생긴다. 영화에서의 사실주의와 형식주의라는 두 가지 전통이 바로 영화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두 측면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영화라는 매체를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다. 사실주의와 형식주의라는 두 가지 전통은 “기록의 영화”와 “이야기의 영화”라는 두 전통으로 바뀌어 표현할 수도 있다.

영화는 그 탄생 이후, 기록영화의 아버지인 뤼미에르 형제와 이야기가 있는 영화의 아버지인 멜리에스를 필두로 두 전통을 발전시켜 왔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주의 영화는 형식적인 실험보다는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형식주의 영화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실험을 마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주의 영화는 단순하지만, 자연발생적이고 직접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형식주의 영화는 좀 더 도전적이고 자유분방하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사실주의 영화는 “보고 보이는” 관계에 주목하는 시각 매체로서의 영화라는 정의 방식에 보다 근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형식주의 영화는 시각 매체로서의 영화라는 형식 속에서 다양한 내용과 의미를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형식주의 영화의 가장 극단적 형태는 전위영화이고, 완전한 추상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전위영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수한 형식들, 즉 선, 움직임, 색조, 형상 등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오히려 형식주의 전통에 기대고 있는 영화일수록 영화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까지도 도출할 수 있다.

영화의 형식이라는 것은 크게 촬영과 편집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뉜다. 카메라라는 기계가 발명된 이후, 영화라는 매체를 다른 매체 및 장르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무엇보다도 카메라로 수행하는 “촬영”이라는 행위였다.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의 지하 <그랑 카페>에서 영화의 서막을 알리는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사람들 앞에 첫선을 보였는데, 이 영화는 필름의 길이가 17m밖에 되지 않고 상영시간이 고작 1분에 지나지 않는 기록영화였으나 이 짧은 영화 한 편이 바로 또 다른 예술의 서막을 알리는 작품이었

다.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를 필두로 한 초창기 영화는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즉, 그 당시 만들어진 영화들은 모두 극영화가 아닌 “기록 영화”였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초창기의 영화는 영화가 지니는 일차적인 미학성인 기록과 사실이라는 측면에 충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를 비롯한 초창기의 영화는 “실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촬영하여 스크린을 통해서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는 시각 매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한편, 멜리에스의 1902년 작품 [달나라 여행]은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탐험한 뒤 다시 지구에 도착한다는 내용으로 영화의 상상력을 최대한 표현한 작품이다. 단순한 기록영화가 아니라 극적인 설정이나 줄거리가 있는 대표적 초기 영화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극장주 겸 유명한 마술가인 멜리에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뤼미에르 형제의 기록영화와는 달리 이야기가 있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했는데, 이때부터 촬영이라는 영화의 형식에 더해, 영화가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 즉 내용적인 측면이 영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는다. 이에, 영화는 “스크린 위의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 특정한,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각 매체”라고 정의되기 시작한다. 촬영이라는 시각 매체의 형식적인 차원과 재미있는 이야기의 전달이라는 내용적 차원이 동시에 영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영화의 형식이라는 것은 촬영과 편집이라는 두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 뤼미에르 형제와 멜리에스 등 초창기 감독들이 주목하고 있던 부분은 바로 촬영이라는 형식이었는데, 촬영이라는 형식만으로는 영화라는 매체의 독자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뤼미에르 형제가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촬영의 형식을 통한 시각 매체로서의 영화를 탄생시켰고, 멜리에스가 촬영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물에 재미있는 내용을 더함으로써 영화 매체의 새 지평을 열었지만, 이때까지의 영화들은 상당 부분 “연극적인 영화”였기 때문이다. 비록 촬영이라는 형식이 영화와 연극을 구별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시각적인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초창기 영화들은 각 장면들을 연극처럼 펼쳐놓고 있었다. 예를 들어, 멜리에스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관객을 향해 연기를 펼쳤고 때로는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치 연극 무대를 촬영해서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겨 놓은 듯이 말이다.

이 지점에서 영화라는 매체의 독자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형식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는 바로 “편집”이라는 형식이다. 특히, 미국의 영화감독 에드윈 포터는 영화 [미국인 소방수의 생활](1902)과 [대열차강도](1903)를 통해 극적인 이야기 구성과 동시편집의 개념을 도입해 “영화적인 영화”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포터와 함께 동시대 미국 영화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그리피스도 솟을 기본 단위로 한 영화 언어의 문법을 확립함으로써, 시간 및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연극과 다른 방식으로 영화적인 이야기를 전개했다. 포터와 그리피스의 영화로부터 영화의 형식이 촬영을 넘어 편집의 영역으로까지 적극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그러한 영화적 형식을 통해서 영화적인 이야기 구성이 더욱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에드윈 포터와 데이비드 그리피스는 두 명의 감독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영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때부터 영화는 “촬영과 편집으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전달해 주는 시각 매체”라고 정의된다. 이와 더불어, 데이비드 그리피스는 “장편영화(feature film)”의 전통도 확립했다. 우리가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장편영화와 같은 의미에서의 장편영화 말이다. 애초 뤼미에르 형제의 기록영화는 그 특성상 고작 1~2분 정도의 길이였고, 멜리에

스의 영화도 연극적인 영화라는 성격 상 대부분 10분을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포터의 영화는 20~30분 정도로 길어지기 시작했고, 그리피스 영화는 말 그대로의 장편영화, 즉 2~3시간 길이의 “피쳐 필름(feature film)”이 되었다.

영화가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준 것은 사운드의 도입이었다. 여태껏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운드가 발명되기 이전의 영화는 “시각 매체”로만 정의되는 경향이 강했다. 사운드가 발명되기 이전의 영화를 흔히 무성영화라고 부른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무성영화의 시대는 “무성의 시대”라기보다는 “무언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무성영화 시대의 영화 필름은 사운드를 담고 있지 않았으나, 스크린 상영 시에는 언제나 사운드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1895년 영화의 첫날밤에서조차 피아노곡이 연주되었다. 게다가 영화의 초창기에는 때때로 음향 담당자가 스크린 뒤에 숨어서 기차 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들려보냈다. 심지어 변사가 등장해 영화에 대한 해설과 위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운드의 도입으로 인해, 영화는 인간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매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사운드의 도입 이전에, 일련의 무성영화 작품들은 1920년대 초까지 무성영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기존 무성영화들 속에서 소리는 극장에서 객석을 향해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연주나 피아노 연주뿐이었는데, 당시 영화에서 음향은 영화의 중요한 한 요소라기보다는 관객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무성영화의 대표적인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유성영화가 시작된 지 9년을 넘게 무성영화를 고집하면서 영화에서 소리의 비중을 경시했었지만, 그마저도 1936년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최초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기에 이르렀다. 1927년 10월 6일 최초의 유성영화인 [재즈 싱어]가 뉴욕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화려하게 유성영화의 시대를 열었다. 영화에서 사운드, 즉 소리의 도입은 영화가 단순히 회화성이 강한 예술의 지위에서 벗어나, 훨씬 실생활에 가까운 세밀한 의사 전달이나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되게 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사운드의 도입은 그때까지 영상과 자막을 교대로 봐야 했던 무성영화의 불편함을 없애며 높은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의 일반 대중들에게 영화가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사운드의 도입은 또한 영화 산업을 확고히 뿌리내리는 데 이바지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성영화는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확대를 불러왔기 때문인데, 사운드의 도입은 촬영 장면과 배우의 수를 줄이고 대사의 길이를 늘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영화 촬영의 일수를 줄이고 인건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제작비의 절감과 영화사 수익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사운드의 도입으로 인해 영화는 내용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매체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영화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자면, 영화는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름상의 화상(畫像)을 편집한 후, 스크린에 투영(投影)하여, 움직임이 있는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청각 매체”라고 할 수 있겠다.

#### 4. 디지털 시대, 오늘날의 영화

이렇듯, 촬영과 형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청각 매체로서의 영화는 탄생 후 100년이 넘도록, 그리고 사운드의 도입 후 8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 존재의의를 명확히 해왔다. 그런데, 변함없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았던 영화의 모습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변모하기 시작한다. 흔히 디지털 시대라고 요약되는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영화가 대중영화의 주류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

본의 장편 극영화는 디지털 영화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모색해 보기로 하자. 디지털 영화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컴퓨터 이미지, 즉 CGI (computer-generated imagery)를 콘텐츠에 포함하고 있는 영화를 디지털 영화로 정의내릴 수도 있고, 디지털 극장에 배급되어 디지털 영사기를 통해 상영되는 영화를 디지털 영화로 정의내릴 수도 있으며,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영화를 디지털 영화로 정의내릴 수도 있다. 각각 첫 번째는 콘텐츠 측면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측면에, 세 번째는 제작 방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디지털 영화에 대한 정의 방식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정의 방식 중에서 세 번째의 의미로서의 디지털 영화가 현재 대부분의 영화 제작의 표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른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디지털로 편집한 영화가 디지털 영화라는 의미에서이다. 여기에서 영화에 대한 정의 자체가 심각하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주지하듯, 여태까지의 영화에 대한 정의는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름상의 화상(畫像)을 편집한 후, 스크린에 투영(投影)하여, 움직임이 있는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청각 매체”였다. 그런데 여기서 아날로그적인 의미에서의 필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포함되기 시작한다. 영화가 “디지털로 제작된 동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청각 매체”가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과연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이 질문하게 된다. 이를테면, “디지털로 제작된 텔레비전 드라마와 디지털 영화의 차이, 혹은 그 둘 간의 경계는 무엇인가?”라든가, “실체의 모습을 촬영한 분량이 아닌, 디지털로 만들어진 영상 이미지를 과연 영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가?” 등의 질문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게다가 3D 입체영화와 후각이나 신체적인 움직임까지 아우르는 4D 영화가 대중화되면서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영상”이라는 영화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 방식까지도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금, 과연 현대사회에서의 영화란 무엇인가? 사진과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여 피사체를 연속 촬영함으로써 만들어진, 스크린 위에서 피사체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 매체? 스크린 위의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특정한,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각 매체? 촬영과 편집으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전달해 주는 시각 매체?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름상의 화상(畫像)을 편집한 후, 스크린에 투영(投影)하여, 움직임이 있는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청각 매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촬영과 편집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입체 영상 혹은 공감각 매체? 실로,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29초 단편영화”나 “3초 초단편영화”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기존의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혹은 “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개념까지 생각한다면 영화에 대한 정의는 한 가지 점으로 귀결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여러 다른 방향으로 나뉘어 갈라지고 있는 듯하다. 결국, 영화는 더 이상 영화라는 하나의 특정 매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상과 사운드를 아우르는 종합적 시청각 매체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결론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답변이지 않을까 싶다.

## II. 영상산업과 영상 경험

### 1. 디지털 시대의 영화 산업과 영상 경험

영상, 특히 영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하나의 예술, 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만 보려 하고, 이윤을 내는 사업으로는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영화의 사업적, 산업적 특징은 영화의 생산과 수용을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영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영화산업은 우선 연예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다른 분야들, 즉 방송, 대중음악, 게임, 만화, 레저, 스포츠 등과 함께 대중영화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중요한 즐길 거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람들은 영화를 하나의 여흥거리 또는 ‘문화생활’로서 즐기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화는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배급되어 관객에게 상영되는 하나의 산업 시스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한 편의 영화가 제작되어 배급, 상영되기까지의 과정은 하나의 상품이 제작되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과정과 흡사하다.

영화는 예술, 오락, 문화인 동시에 산업이기에, 영화제작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다. 영화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본은 여타의 다른 기업이 상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자본과 다르지 않다. 어느 정도의 자본을 들여 제작된 영화는 마치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처럼 배급, 상영되어야 한다. 배급과 상영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의 역할도 중요하다. 더불어,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이 종료된 후에는 홈 비디오나 DVD, 그리고 케이블 텔레비전과 지상파 텔레비전 등의 또 다른 통로로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이렇듯 한 편의 영화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연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창구효과’라고 한다. 예전에는 단지 영화 산업의 부차적 기능으로서만 취급되었던 이러한 콘텐츠 공유의 양상은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 간의 연결 관계에 대한 관심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영화는 산업혁명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는 근현대사에서의 커다란 전환점에서 탄생한 주요 예술이다. 물론 대중의 미적인 관심과 예술에 대한 열망이 영화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는 19세기 이후 과학적인 호기심과 기술적인 실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산업 혹은 상품이라는 말과 예술이라는 말이 본질적으로는 상반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영화라는 매체에 있어서 이 두 단어는 서로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예술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은 영화라는 ‘예술’을 급속도로 발전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으며 그 기술적인 요소들은 또다시 이윤 창출이라는 사업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더욱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895년 뤼미에르에 의한 영화의 탄생 이후 100여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화는 도전적인 예술가들의 노력과 기술적인 발명, 그리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결합되어 오늘날 그 누구도 의심치 못할 만한 대중문화의 꽃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요약하자면, 첫째, 영화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혹은 DVD와는 달리, 공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유되는 매체이다. 영화는 집에서 혼자서 감상하는 매체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소비되는 상품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영화 콘텐츠의 수용 과정은 텔레비전을 비롯한 방송 콘텐츠의 소비 과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둘째, 영화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훨씬 질 높은 영상과 음향을 제공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다. 이 역시도 각종 뉴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발전 과정에서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영화는 다른 산업과의 밀접한 연관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극장은 단지 영화 관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쇼핑, 외식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 쇼핑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흔히 경제학에서는 상품을 형식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한다. 재화를 다시 형식에 따라 세분하면 정보재와 유형재로 나뉘고, 재화를 사용의 측면에서 구분하면 사적재와 공공재로 나뉜다. 공공재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 착각은, 공공재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공공재와 사적재의 구분은 재화의 ‘사용’에 따른 구분이지, ‘제작’이나 ‘제공’, 혹은 ‘생산’ 주체에 따른 구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는 텔레비전 방송과 같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공공재는 아니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기술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청 가능하고,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데 반해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영화는 극장이라는 공간에서만 한정 상영되므로 순수한 공공재라고 할 수 없다. 오늘날의 텔레비전 방송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지상파 몇 개 채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어 수용되는 방송 콘텐츠 역시도 예전과 같은 의미에서의 온전한 공공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한 영화의 콘텐츠를 텔레비전 방영이나 비디오와 DVD 제작 등의 여러 형태로 활용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화라는 매체 전반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재적 성격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각 영상매체의 영역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디지털화와 미디어 통합화 움직임이 가속됨에 따라서 영화의 콘텐츠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는 ‘부분적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재화를 형식에 따라 세분하면 정보재와 유형재로 나뉜다고 했다. 유형재는 물질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 먹거나 만지거나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성질의 재화 말이다. 반면에, 정보재는 눈과 귀, 혹은 머리로 인지하거나 지각하는 방식으로 소비되는 재화를 말한다. 당연히, 영화는 정보재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정보재로서의 영화의 특징은 경험재라는 표현으로도 설명된다. 정보라는 것이 직접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기 전에는 그 상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보통의 재화와는 다른 경험재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험재로서의 영화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즉, 생산자는 필연적으로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이는 영화 콘텐츠 관련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미묘한 이슈와도 관련된다. 이에, 생산자는 스타 시스템이나 스튜디오 시스템 등 영화 장르의 관습적인 법칙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각종 미디어나 서적을 통한 영화상품의 사전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영화가 극장에 개봉되기 전에 홍보나 마케팅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화의 내용이 너무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 개봉이 되어도 관객들의 흥미를 무척이나 반감시킬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을 비롯한 영상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콘텐츠의 공유라는 문제가 다시금 대두된다.

## 2. 영화 관람의 의례적 기능과 텔레비전 영상 경험의 특성

영화 영상의 상상적 기능이 대중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극장이라는 실재 공간이다. 물리적 차원에서 극장은 영화 상영을 위한 기술적 시설을 갖추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정서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현실로부터 영화의 상상 세계로 이동해 들어가는 공간적 매개 역할을 한다. 비디오, DVD,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영화 수용의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극장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극장이라는 광고 슬로건이 있듯이, 최근 세계적으로 나날이 팽창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도시의 대중문화 현장에서 극장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극장의 공간성 자체가 영화 텍스트와 더불어 관객에게 영화의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영화 관람은 특별한 경험이다. 영화 관람은 일상의 단조로움을 벗어나는 신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원에서도 일상적 삶으로부터 이탈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영화 관람을 통해 마음껏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고 나서 다시 현실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는 영화를 보기 이전의 자신과 조금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사회적,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변화의 행위를 의례라고 한다. 전통사회에서 종교 행사 및 예식이 주로 의례 기능을 담당하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행사는 물론 정치적 사건, 마케팅 이벤트, 문화 행사 등, 보다 세속화되고 일상적인 형태로 대중적인 의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례가 본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속성을 지니지만 오늘날 개인적 형태의 의례가 발달하게 된 것은 이처럼 현대 대중사회의 환경과 매스미디어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영화 관람은 현대 대중사회의 대표적인 의례로서 행해지고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디지털 영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영화를 보는 방식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일상 공간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영화 소비 방식이 변화한다고 해서 영화를 관람하는 의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장르를 보다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극장에서 보는지, 혹은 인터넷으로 보는지, 인터넷에서 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획득하고 보관하고 (재)유통시키는지, 관람의 구체적인 시공간적 질서는 어떻게 조직하는지 등에 관해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영화 관람 스타일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의 역사는 단지 1961년에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텔레비전 영상 경험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 없겠다.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오락 기계인 동시에 세계의 창인 텔레비전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가족 매체로서 자리를 잡았다. 텔레비전은 텅 빈 집 안에 시공간적으로 짙은 느낌을 제공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시간의 틀 속으로 침투한다. 출근 시간에 방송되는 일기예보, 미취학 어린이들을 아침잠에서 깨우는 유아 프로그램,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에 편성된 요리 프로그램 등 수많은 사례들은 텔레비전의 일상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은 의례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며, 저녁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대가족이 등장하는 일일 연속극들이다. 한 가정 다수 수상기화(化)가 진행되면서 텔레비전은 점점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의 경험을 안겨 주는 미디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동시에 동일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다는 상황은, 텔레비전을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통의 문화적 경험과 기억 형성의 매체로 간주하게 만든다. 1970년대 후반 이

후, 텔레비전 드라마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통의 기억을 반영,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고, 해외거주 동포들은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고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고는 한다. 물론, 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있어서 텔레비전은 공통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공공영역을 형성시켜 준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텔레비전을 매개로 한 공통의 문화적 경험과 기억 형성 과정임을 고려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텔레비전은 단지 오락적인 차원이나 단기적인 수준에 국한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뉴미디어의 시대에서, 특히 디지털 융합 환경하에서 텔레비전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적인 변화를 겪었다. 케이블과 위성, VOD, 그리고 디지털 쌍방향 텔레비전 등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전송 기술상의 변화와 더불어, 고화질 텔레비전, 와이드 스크린과 화면의 대형화 등 수상기 형태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텔레비전 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기존의 텔레비전 화면이 와이드 스크린으로 대체되고, 화면이 대형화되며 정세도가 높아지는 것은,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스펙터클의 느낌을 영화의 스펙터클에 비견되도록 만들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화면으로 제공되는 영상은 영화의 영상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다. 그러나 대형 화면, 와이드 스크린, 그리고 고화질 텔레비전 등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텔레비전의 영상은 영화의 영상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미학적 수준을 담보하게 되었다.

매체로서의 영화와 텔레비전, 즉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완결된 구조 중심의 의례적 기능을 수행하는 영화와 일상성과 공통의 사회적 경험을 담보하는 텔레비전은 여전히 구별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영상산업의 통합화 및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영화와 텔레비전은 점차 개별적 문화 형식이 아닌 동일한 유통구조의 각기 다른 위치를 점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다시 말해 통합 문화 속의 구성요소들로서 공통 분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텔레비전의 방송 분량은 방송 시간과 방송 채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케이블에 이어 위성채널이 출범하고, 동시에 수백 개의 채널을 송출하거나 쌍방향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텔레비전마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다매체, 다채널화의 경향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영상물은 대량으로 제작, 소비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세계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다고 할 수 있다.

### 3. 초창기 영화 산업의 주요 이슈들

뤼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탄생시킨 이후, 1903년경까지는 단순한 기록물들이 영화의 주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기록영화들은 매우 단순하였지만, 산업혁명 이후의 급격한 사회변동이라는 외부적 상황과 맞닿아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사회의 모든 것이 천천히 진행되던 농경사회로부터 사회의 전반적 속도가 빨라진 근대사회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었고, 영화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는 유일한 매체였다. 당시의 관객들이 단지 일상생활을 그대로 옮겨 놓은 단순한 기록물에 대해서도 열렬히 반응하였던 이유는 바로 그 영화들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잘 짜인 이야기의 전달보다는 볼거리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러한 초기영화를 ‘시네마 오브 어트랙션(cinema of attractions, 건인의 영화, 또는 매혹의 영화)’라고 부른다. ‘원시영화(primitive cinema)’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영화들은 현대영화에서와 같은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때문에 이러한 영화들을 열등한 영화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로 뮤직홀이나 보드빌(vaudeville) 쇼, 혹은 유랑극단이나 놀이공원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었던 초기영화들은 그 자체로 형식적인 완결성을 지니

고 있었으며, 훗날 아방가르드 영화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멜리에스의 <달나라 여행 A Trip to the Moon>(1902)이 제작, 상영되면서부터 서서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마술사였던 그는 이야기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영화제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일관성 없이 각기 따로 떨어져 있는 볼거리로 구성된 단순 기록물보다는 완성된 형태의 서사체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사체, 즉 이야기가 있는 내러티브 영화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이윤 창출의 측면에서도 단순 기록물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략 1903-4년경부터는 서사 형식을 갖춘 영화들이 서서히 영화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초기영화와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자막(inter-title) 기술의 등장과 편집 문법의 발달, 영화 배급 방식의 변화, 영화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신속하고도 대량적인 영화제작의 필요성, 긴 상영시간을 가진 영화들에 대한 관심과 그로 인한 체계적인 이야기 구성의 필요성 등과 맞물리며, 훗날 고전적인 내러티브 영화의 시대를 예고한다.

당시, 보드빌(Vaudeville)은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망라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형식을 지칭한다. 1880년대에 시작되어 20세기 초, 주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성황을 누린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보드빌은 유럽에서 19세기 이전부터 자리를 잡아 온 뮤직홀 문화에 비견될 만한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었다. 전형적인 보드빌 무대에는 클래식 음악 연주자, 대중음악가와 가수, 무용수, 코미디언, 묘기 공연가와 서커스 동물, 마술사, 독심술가, 성대모사 배우, 곡예사, 시인 등이 등장했고, 이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짧은 무대를 각각 선보였다. 영화의 탄생 이후에는 영화가 보드빌 무대의 주된 아이템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초기영화의 보급과 대중적인 인기의 지속적인 확산에 있어서는 영화 ‘쇼맨(showman)’의 역할이 지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영화는 주로 뮤직홀이나 보드빌(vaudeville) 쇼, 혹은 유랑극단이나 놀이공원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 장소를 찾아가 영화를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영화 쇼맨이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장시를 중심으로 지게나 붓집으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동했던 전문 행상인들인 보부상과 유사한 존재였다.

영화 쇼맨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유랑극단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때로는 공연 기획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영화 ‘변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달리 말하면, 영화 쇼맨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다분히 노력했던 초기영화의 전도사와도 같았다. 영화 쇼맨은 영화 필름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여, 자신의 소유인 영화를 통해 최대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영화사에서 일종의 배급업자 역할도 수행했다. 구매한 영화 필름이 닳을 때까지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그 영화를 보급할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당시의 영화 보급은 영화 혹은 영화관 중심의 ‘배급’ 방식이 아닌, 사람 중심의 ‘방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영화 쇼맨과 방문 방식의 영화 상영은 훗날 니켈로디언이나 영화 전용관이 들어서며 고전적이고도 전통적인 배급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된다.

초기영화 즉 시네마 오브 어트랙션의 시대에서는 볼거리 중심의 영화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러한 볼거리 중심의 영화들은 뮤직홀이나 보드빌 쇼, 혹은 유랑극단이나 놀이공원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었다. 또한, 초기영화의 시대에서는 영화 쇼맨이 영화의 보급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었고, 쇼맨이 영화를 보급하는 방식은 영화 혹은 영화관 중심의 ‘배급’이 아닌 사람 즉 관객 중심의 ‘방문’ 형태였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영화의 경향들은 니켈로디언이나 무비 팰리스와 같은 영화 전용관의 등장과 함께 ‘고전적인 내러티브 영화’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영화 전용관의 등장으로 인해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고전적이고도 전통적인 영화 ‘배급’의 정착이었다. 이제는 영화가 관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 쇼맨이 영화를 들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영화관을 찾아가 영화를 보는 방식으로 영화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화 제작자도 영화 쇼맨에게 영화 필름을 ‘판매’하는 대신, 영화 상영관에 영화 필름을 ‘대여’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컨대 영화 필름의 구매 후 방문이라는 쇼맨의 영화 보급 방식이 영화 필름의 대여 후 관객 유인이라는 영화 전용관의 배급 및 상영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1903-4년경을 기점으로 관객의 영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영화를 신속히 대량으로 제작할 필요가 생기는 등의 영화의 산업적인 경향과 맞물린다.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 많은 영화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구성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영화 시나리오 작업이 영화제작의 출발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시나리오의 구성, 즉 이야기의 체계화를 통해서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영화들을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장르의 초석 역시 점차 다져지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1910년대에 들어서서는 제작, 배급 및 상영이라는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서 ‘수직통합 시스템’이 그 모습을 드러냈고, 상영시간 두 시간이 넘는 현대적 의미의 ‘장편 영화(feature film)’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경향은 영화라는 매체의 기술적, 형식적 발전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복잡하게 구성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새로운 영화적 기법들이 필요했고, 그러한 기법들의 발전은 역으로 영화의 산업적, 사회문화적 지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였다. 1910년대에 급속한 발전을 보였던 영화적 기법들로는 자막(inter-title) 기술, 딥 포커스(deep focus)와 유사한 의미로서의 ‘깊이 있는 무대(deep staging)’, 샷(shot) 거리 조절과 카메라의 촬영 각도(angle) 활용, 그리고 편집(editing) 문법을 들 수 있다.

초창기, 니켈로디언(Nickelodeon)은 다양한 영화들을 보여 주는 최초의 실내 전시 공간이었다. 대략 1905년부터 1914년까지를 니켈로디언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니켈로디언이라는 이름은 단 니켈(Nickel, 5센트짜리 동전)과 오데온(Odeon, 음악 연주와 시 낭독을 위한 고대 그리스의 전시 공간)이라는 용어로부터 비롯되었다. 니켈로디언은 영화의 소비 방식과 상영시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는데, 영화만을 상영하는 공간의 등장으로 영화 소비 방식이 방문 형태에서 배급 형태로 바뀌었고, 상영시간이 긴 영화일수록 제작자의 입장에서건 상영관의 입장에서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에 영화의 길이 또한 현저하게 길어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긴 영화의 상영은 여러 개의 짧은 영화들을 편집하고 구성하는 상영자의 수고 또한 덜어주게 되었다.

이러한데, 니켈로디언은 상영시간이 긴 영화의 경우에는 니켈로디언(5센트 극장)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10센트의 입장료를 받기도 했는데, 애초에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것처럼만 보이던 이러한 긴 영화의 등장이 훗날 역으로 니켈로디언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관객은 더욱 안락한 시설이 필요했고, 단지 아담한 전시 공간에 불과했던 니켈로디언은 그러한 관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기에 니켈로디언은 대략 1915년경부터 넓고 화려하면서도 편안한 영화 관람 환경을 제공했던 무비 팰리스(Movie Palace, 영국에서는 Picture Palace)에게 영화 전용관으로서의 주된 지위를 넘겨주게 되었다. 무비 팰리스는 텔레비전의 대중화로 인해서 영화산업이 위기를 맞기 이전이었던 1940년대까지 꾸준히 매년 관객 수를 늘려갔다. 참고로, 장편영화(feature film)라는 용어도 상영시간이 긴 영화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었다. 한 상영관에서 여러 영화를 상영할 때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화를 당연히 먼저 홍보하여

야 하는데, 상영 영화 목록 즉 카탈로그의 맨 윗부분에 상영시간이 긴 영화를 ‘주요 프로그램(feature)’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장편영화를 홍보했기에, 장편영화를 ‘주요 프로그램 영화’, 즉 장편영화(feature film)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 4.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의 주요 이슈들

전 세계 영상 산업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는 초창기부터 강한 상업적인 목적의식을 가졌다. 영화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흥행사들과 자본가들은 여러 가지의 단편영화를 골라 상영하는 극장을 탄생시켰다. 보통 이 극장은 5센트라는 작은 돈을 내면 볼 수 있는 극장이라고 해서 ‘니켈로디언’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극장이 만들어지면서 영화는 단순한 단편 영화에서부터 서부극이나 조로 시리즈와 같은 연속 기획물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한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대중 오락으로서 영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 시스템이 탄생했으며 원시적인 형태의 장르영화 역시 선보이기 시작했다.

단편영화들의 계속된 성공은 영화의 장편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장편화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감독이 데이비드 그리피스였다. 그는 1915년 <국가의 탄생>을 만들어 세계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은, 약 2만 3천 달러의 평균 제작비를 사용하였던 기존 영화들과 달리, 11만 달러라는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 만들어진 대작 영화였다. 이런 과감한 투자는 엄청난 흥행 성공을 이끌어내, 현재 추정하고 있는 이 영화의 흥행 수익은 총 5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과감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흥행 성공 사례는 영화가 단순한 오락거리일 뿐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다.

오늘날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불리는 스튜디오 시스템은 장편영화 제작에 유리한 제작 및 배급의 산업 체계를 말한다. 스튜디오 시스템은 영화 촬영장을 운영하는 영화사가 안정된 배급과 상영을 위해 배급사와 극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명칭이었다. 초창기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은 영화산업의 중요한 영역, 즉 제작, 배급, 상영의 세 가지 영역을 하나의 영화사가 통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수직통합이라 부른다. 초창기 5대 대형 영화사는 극장 체인망까지 완벽하여 완벽한 수직적인 통합 시스템을 갖추었고 개봉관 매출의 4분의 3을 독점했다. 주요 개봉관을 갖지 못한 소형 메이저 3사와 여타의 소규모 영화 제작 배급사는 그 나머지 매출을 놓고 경쟁해야만 했다. 중소 규모의 영화 제작사들은 주변부 극장의 상영을 목표로 질 낮은 영화를 제작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개봉관 진출을 모색해야만 했다.

일례로, 토머스 에디슨은 뛰어난 발명가이기도 했지만, 냉철하고 무자비한 사업가이기도 했다. 영화의 역사 초기부터 자신만의 영화회사인 에디슨 스튜디오(Edison Studios)를 설립해 운영해 왔던 에디슨은 영화의 제작 관련 기술과 영화의 제작 및 배급을 독점하기 위해, 당시 막대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던 코닥(Kodak) 등과 함께 1908년 MPPC(Motion Picture Patents Company, 영화 특허 회사)를 만든다. MPPC는 에디슨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영화 관련 특허를 바탕으로 경쟁자들, 특히 당대 최대의 영화사였던 바이오그래프(Biograph Company)를 견제, 탄압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MPPC는 누군가가 에디슨의 영화 카메라가 아닌 다른 기계, 특히 유럽에서 들어온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화를 찍었다면, 해당 영화의 보급 자체를 철저하게 막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

들을 통제하려 들었다.

에디슨의 최대 경쟁자였던 바이오그래프는 그나마 그러한 탄압과 경쟁에서 버틸만한 여력이 있었지만, 그 외의 다른 영화사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애초의 영화산업의 근거지였던 뉴욕 일대, 즉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동부를 벗어나서 에디슨의 영향력이 조금이나마 덜 미치는 곳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서부의 ‘인스빌(Inceville)’, 즉 오늘날의 할리우드(Hollywood)이다.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를 즈음해서 할리우드에 자리를 잡은 스튜디오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산업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들은 훗날 5대 메이저 스튜디오(Paramount, Loew's, Fox Film, Warner Bros., RKO)로 발돋움하게 되고, 이들이 개발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은 1930~1950년대에 ‘수직통합 시스템’으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역설적으로, 에디슨은 자신이 설립한 MPPC 덕분에 영화산업에서 점차 힘을 잃게 되었고, MPPC의 독점을 피하고자 할리우드로 도피했던 스튜디오들은 새로운 독점체계인 수직통합 시스템을 공고히 했다.

그런데 1952년, 할리우드 영화산업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무엇보다도 그 해는 텔레비전 방송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1년 내내 미국 전역으로 방송하기 시작한 해였다. 전국 방송이 시작되면서 텔레비전은 영화 산업 전반을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그해에는 와이드 스크린과 스테레오 사운드가 등장했으며, 이전에 비해 제작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칼라 필름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시점부터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의 공생 관계 내지는 경쟁과 애증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194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독립제작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제작, 배급, 상영이라는 일련의 산업적 과정에 대해서 보다 커다란 관심이 기울여지기 시작했다. 1938년부터 1948년까지 10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마침내 미국 대법원이 ‘미국 정부 Vs.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사건에서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의 수직통합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는데, 루즈벨트 시절 미 법무부의 제소로 시작된 이 재판의 판결에 의해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극장 체인을 늦어도 1952년까지는 처분해야만 했다. 덕분에 메이저 영화사들은 제작과 배급은 할 수 있었지만 상영까지 통제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의 영화 산업에서 20년 이상 지속되었던, 제작과 배급, 그리고 상영을 일관적으로 통제하는 거대 스튜디오들의 수직통합 산업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이렇듯, 이미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오래전 겪었던 제작, 배급, 상영 과정에 대한 독과점 논쟁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이슈로 남아 있다. 영상 산업을 논함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이슈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콘텐츠의 배급 및 상영 과정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영상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영화산업은 다량의 소규모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제작비를 들여 거대한 수익을 내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메이저 영화사들이 자체 제작 편수를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비디오와 텔레비전의 판권을 이용하여 초고예산 영화, 즉 블록버스터의 제작 전략을 채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블록버스터 제작 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특징은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은 세계 최대의 국내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내 영화 상영관과 텔레비전, 비디오, 케이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급 및 유통 과정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한 영화사가 영화, TV, 비디오 등 여러 매체들에 대하여 콘텐츠를 공급하는 전략과 동일한 상품, 즉 동일한 영화가 여러 분배 채널을 거치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창구효과는

1950년대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보급과 동시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영화라는 한 상품을 극장 이외의 다른 매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 시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영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구독’의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영화 필름의 구매 후 방문이라는 초창기 영화 쇼맨의 영화 보급 방식이 영화 필름의 대여 후 관객 유인이라는 영화 전용관의 배급 및 상영 방식으로 바뀌게 된 이후, 오랫동안 영화의 소비는 전통적인 과정, 즉 영화 필름의 전세계 배급 및 극장 상영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구독(subscription)’이라는 형태의 영상 콘텐츠 소비 방식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애초에 구독(購讀)은 말 그대로 독자(讀者)가 정기적으로 서적이나 신문, 잡지 등을 받아서 읽는다는 뜻이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구독의 영역이 영상 콘텐츠로까지 확장되었다. 현재 영상 콘텐츠의 구독은 주로 OTT(Over-The-Top media service)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OTT는 기존의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처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전 IPTV가 통신망(network)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에 비해서, OTT는 통신망이나 셋톱박스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의 구독자는 KT든 SKB든 LG U+든 통신망에 상관없이, 그리고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디즈니 플러스가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OTT는 넷플릭스(Netflix)이고,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과 디즈니 플러스(Disney+)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뒤를 이어 티빙과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의 토종 OTT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 III. 영국의 영화 산업

#### 1. 영국 영상산업과 테크놀로지

영화를 제작하는 것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유사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융합 환경하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용 영화와 같이 특정 영역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혼합적 성격의 콘텐츠 제작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텔레비전 관련 업자가 영화제작을 위해서 자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공동 투자 내지는 합작 투자의 형식이 흔히 목격되곤 한다. 물론, 영화 제작과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의 현저한 차이 또한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완성된 상품의 질적 완성도와 관련된 것이다. 영화 상품이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예술적 완성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덕션 과정에서의 다소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과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에서의 가장 현저한 공통점은 바로 편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소위 편집이라고 불리는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이 디지털 시대의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이 가장 먼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평가되는 것이고, 그러한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은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한 콘텐츠의 유통 과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디지털화 경향은 방송 산업에 대해서보다 영화 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 있어서는 디지털화 경향의 영향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영국 영화에 있어서 디지털로 화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프레임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디지털화 경향으로 인한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의 변화는 영화제작에서의 포스트 프로덕션 관련 업체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방증 된다. 예를 들어, 1995년 런던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소호넷이라는 업체는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 작업, 즉 CGI 작업에 특화된 포스트 프로덕션 회사로서 현대 영상 산업에서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후반 작업에 특화된 전문 능력을 보여주었다.

방송 산업에서의 디지털화 경향은 훨씬 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최근 영국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현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은 라디오 신호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방영이 일반적이었는데, 주파수 대역의 확대와 채널 수의 증가로 인한 방송 산업계의 변화는 케이블 산업 및 위성 방송 산업의 확장을 야기했으며, 스카이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성장을 도왔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채널의 설립 비용은 상당히 적은 것에 비해서 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은 무척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영화 콘텐츠라든지 스포츠 콘텐츠의 확보 및 방송 산업 이외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업체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확충의 기회가 늘었고, 영상 산업을 영화, 방송 및 통신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이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방송 영역에서의 디지털화 경향은 상호작용적 서비스 영역으로부터의 수입의 증가를 낳게 되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방송 산업이 거둬들이는 수입 중에서 상호작용적 서비스 영역으로부터 생겨나는 수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 2. 영국 영상산업과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을 아우르는 영국 미디어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점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여타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의 각종 미디어의 진화 및 발전은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꾸준한 진화의 양상은 미디어 산업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때 더욱 뚜렷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선, 영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은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유화와 민영화의 지속적인 추진해 온 정부의 역할이 컸던 때문이다. 다음으로, 영국의 미디어 산업은 소프트웨어, 창의성, 그리고 미디어 패키지 판매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극히 양적이고도 경제적인 기준으로 영국의 미디어 산업을 바라본다면, 영국의 IT 산업은 세계적 기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가 점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 미디어 시장을 간파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영국 언론시장의 흐름을 분석, 전망함과 동시에 향후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가장 큰 변수인 미디어 규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에 대한 규제 정책 및 관련 법제야말로 영국의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점진주의적인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엿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시장의 각 부문 영역에서 생존을 위한 개별적 노력이 멈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미디어 산업계는 날이 갈수록 수직적 통합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미디어 기업의 일차적 관심은 여타의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입과 이윤을 늘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

렇다고 하더라도, 미디어를 완전한 자유경쟁 시장에 내맡기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물건이 여타의 다른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들과 같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재, 혹은 문화 생산품이므로, 그것 전체에 대한 규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물론, 예전과 같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줄어들긴 했지만, 미디어 산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태껏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활발한 규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문화재 혹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1980년대 이전의 영국 영화 산업은 미국 중심의 영화 업계로부터 자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보호주의적인 입장과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적절한 혼합 양상으로 설명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1927년 제정되었던 영화법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와 비견될 만한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의 영화법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영화들에 대해서 무려 7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영국 사회의 점진주의적인 성격은 역설적으로 영국 영화 산업의 수직적 통합을 제한하는 경향 또한 보이고 있었는데, 소위 독과점 논쟁으로 인하여 하나의 영국 영화 업체가 제작, 배급, 상영을 모두 관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앞서 미국의 영화 산업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스튜디오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 영화 산업의 오랜 기간의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영국의 영화 스튜디오 수는 7개로까지 줄어들게 되었고, 1980년대 들어서까지도 한 해에 제작되는 영국 영화 제작 편수는 30개 안팎에 머물렀다.

영국 영화 산업은 1984년에 세금 부과 정책이 변화하고 미국 중심의 영화제작 및 배급 업체들이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에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미국과 같은 강력한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국의 영화 산업은 배급과 상영 영역에서 현저히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커다란 이윤 창출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영역에서의 역할이 실로 미미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1997년 개정 영화법과 세법은 영국 영화 제작비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고, 이는 저예산 영화들을 중심으로 한 영국 영화 제작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미국의 처지에서도 이러한 개정 영화법과 세법으로부터 비롯된 세금 면제라는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영국 영화 산업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들을 꾸준히 전개하였기에, 당시의 상황을 온전하게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때부터 과연 영국 영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진정한 영국 영화에 대해서만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힘을 받게 되었다.

한편, 영국의 방송 산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바로 BBC이다.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영국의 방송 산업을 주도해 왔던 BBC가 서서히 상업화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영국 방송 산업은 커다란, 그러나 점진적인 변화 과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방송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상업화 경향은 방송용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을 장려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방송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로, 1986년 피콕 위원회는 영국의 대표적인 지상파 채널인 BBC와 ITV에 대해서 40퍼센트 이상의 외주 제작을 권장하였고, 1990년의 방송법은 영국의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들에 대해서 25퍼센트의 외주 제작을 권장하였으며, 1996년의 방송법은 디지털 텔레비전 채널들에 대해서 10퍼센트의 외주 제작을 권장하였고, 2003년의 커뮤니케이션법은 모든

공공 서비스 채널들에 대해서 25퍼센트의 외주 제작을 권장하였다. 이는 외주 제작사의 중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단지 방송용 프로그램의 제작만이 아닌 영화, 게임 등 다른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과 그 콘텐츠의 다양한 통로로의 유통이라는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친 중요한 변화 과정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3. 조직기구 차원에서의 영국 영화 산업

조직기구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영국의 영화 산업은 미국의 영화 산업과는 달리 거대 스튜디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영화의 탄생 이후 미국의 영화 산업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요소가 바로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작과 배급 및 상영을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대 조직기구를 영국의 영화 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영국에서도 1920년대와 1950년대 사이의 기간에 미국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유사한 조직기구가 그 모습을 드러냈던 시기가 있었지만 1950년대 이후까지 살아남지 못했고, 1960년대 들어 그러한 조직기구의 필요성이 논의될 때는 이미 미국의 자본과 인력이 영국의 영화 산업을 충분히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영화 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대 조직기구가 새로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영국의 영화 산업은 195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침체기를 경험했는데, 그 침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배급 및 상영 영역까지 아우르는 거대 조직기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오늘날 영화 산업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배급 및 상영 영역이고, 나아가 영상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문제까지 이들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영국 영화 산업의 침체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영화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미국의 스튜디오를 필두로 한 거대 배급사가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영화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영화 라이브러리 역시도 그들 거대 배급사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여러 창구를 통한 영화 콘텐츠의 단계적인 판매와 이윤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영국의 영화 산업은 취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은 공통으로 개개의 프로그램 제작을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단기적 사업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을 주된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영화나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인력의 대부분을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외주 제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응을 펼치고 있는 영국의 방송 산업의 현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하지만 단기적 프로젝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주된 영화 인력과 방송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의 미흡함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영화 산업에 있어서보다는 애초부터 고정된 타임 슬롯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방송 산업에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의 커뮤니케이션법은 공공 서비스 영역의 방송 사업자와 독립 프로덕션에 속한 인력들에 대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보였다. 이는 곧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제권을 방송용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독립 프로덕션 쪽으로 더 많이 주도록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독립 프로덕션은 자신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영화 산업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통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것과는

다소 상반된 상황으로, 결국 방송 산업이 영화 산업보다 다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방송 산업은 결국 영화 산업에서도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문화 분야 전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채널4는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 자금을 처음으로 조성했고, 이전부터 꾸준히 자체적으로 영화 제작에 관여해 왔던 BBC는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 자금을 현저히 늘렸다. 결국 이렇듯, 방송 산업의 영역과 영화 산업의 영역 간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영국 영상 산업은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영상 산업의 주체들이 더욱 안정적인 이윤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이윤 창출을 통해 여태까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영상 산업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이슈 또한 해결할 가능성까지도 열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영상 산업도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 영국의 방송 산업과 BBC, 그리고 수신료

세계적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BBC는 실로 방대한 규모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BBC는 텔레비전 채널의 경우, 아날로그와 디지털 중 어느 방식에나 상관없이 수신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중파 채널인 BBC 1과 BBC 2를 비롯해, 디지털 방송을 위한 채널들인 BBC 3, BBC 4, CBBC, CBeebies, BBC Parliament, BBC News 24 등과 더불어, 인터넷과 디지털 방송을 포함한 각종 멀티미디어를 통해 수신이 가능한 Interactive TV 등 총 9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BBC는 10개에 달하는 라디오 채널을 소유,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처럼 BBC는 양적, 질적으로 광범한 영역을 아우르는 채널들을 통해서 영국 국내와 세계 곳곳을 향하여 그 자신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국 내 최대의 권력 기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BBC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잠재력은 단순히 채널의 수로부터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BBC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의 협의 과정 및 격렬한 논쟁 등이 바로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사로서의 BBC를 만들어내는 일차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허튼 보고서를 둘러싼 파동 이후, BBC의 입지가 전례 없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로 인해 BBC의 주된 수입원, 즉 수신료의 독점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국에 텔레비전 방송이 도입된 이래로 줄곧 BBC가 독점적으로 거두어들이어 왔던 수신료는 BBC 힘의 원천임과 동시에, BBC의 역사를 관통하는 질곡의 토대이기도 했다. 특히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한 작금의 현황에서, 수신료의 존폐 여부는 영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며, 그에 대한 독점적 수혜자로서의 BBC는 바로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BBC가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는 BBC와 영국 방송계 전반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토대를 제공하는 교과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례보고서에서 드러나는 BBC의 경영 성과와 뉴미디어 방송에 대한 투자, 미래의 방송 환경에 대한 견해 등이 영국 미디어 산업의 담론을 생산하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임과 더불어, 이 연례보고서를 토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BBC의 재정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 및 감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BBC의 방송활동과 재정 현황은 매년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BBC 경영위원회가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를 토대로, 의회의 평가를 받는다. 오프컴으로부터의 외부적 규제 및 왕실로부터의 칙허장, 혹은 BBC 경영위원회로부터의 내부적 규제가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BBC 연례보고서에 대한 국정감사는 BBC의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간섭을 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다. 전술했듯, BBC의 재정에 대한 논의의 중심부에는 수신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BBC가 수입의 대부분을,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그리고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Sports)가 최종 결정을 내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BBC와 영국방송의 전반적인 상황 모두를 고려할 때 필요한 일은, 공영방송과 공공 서비스 방송이라는 개념을 구별하는 일이다. 공영방송보다 높은 차원의 개념으로서 영국의 방송 전반을 관통하는 지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은 ‘방송’을 ‘공공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정의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영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두 이 공공 서비스라는 일차적인 개념 아래에서 자신의 활동 근거를 찾아야만 하는 것인데, 때문에, 방송의 공익성에 관련된 논쟁이 진행될 때마다, 흔히 교육이라든가 영국식 무상의료 시스템인 국민의료 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와 같은 영국 내 여타의 공공 서비스 부문들이 비교 지점으로 설정되곤 한다. 영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사회적 혜택이라는 관념이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셈이다.

애초에, 공공 서비스 방송 일반과 공영방송 BBC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26년에 라디오 방송으로 그 서비스를 시작한 BBC는 한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었다. 마치 NHS가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었듯이, BBC는 국민의 방송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었던 셈이다. 물론, NHS가 국가에 속한 기구로 세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면 BBC는 시청료라는 독특한 재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독립적인 공영기구라는 점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기는 하다. 시청료라는 것이 일종의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차이의 무의미함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국영방송이나 민영방송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체계로서 공영방송 시스템의 원형을 이룬 과정을 검토해 본다면, 그것이 단지 명목상의 세금이나 아니냐의 문제로 환원될 수는 없는 커다란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BBC는, ‘공영방송’이자 ‘공공 서비스 방송’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지위를 통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비판적 언론문화 기구로서의 명확한 상을 정립해 왔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BBC의 중요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수신료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BBC의 상업적 사업 활동에 관한 문제 역시 간과할 수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공영방송 BBC가 상업적 사업 활동을 벌인다는 데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영국 사회 내에서의 주된 여론은 BBC의 상업적 활동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이는 어느 정도의 상업 활동이, B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필요조건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듯 보인다. 특히, BBC가 제작한 프로그램과 그 관련 상품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영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심지어는 장려하기까지 하는 듯하다. 물론, 상업적 활동이 지나치면, 공영방송으로서의 BBC의 지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겠지만, 공영방송으로서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나 특정 기관으로부터의 상명하달식 명령이나 요청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돌이켜 보자면, 공공 서비스 방송이 공영방송 BBC와 구별되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BBC 1과 BBC 2를 제외한 여타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하나둘 설립되는 시점에서부터이다. 재원 구조의 측면에서는 시청료에 의존하지 않는 상업적 기관으로서 민영방송 체계를 만들되, 그것 역시 ‘공공 서비스’의 연장선 위에 존재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방송을 위한 전파라는 것이,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까닭에, 이러한 공공재를 활용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기관에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책무가 요청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별다른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다. 1980년대 이후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채널이 새로 설립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제한된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 방송은 일차적으로 공공 서비스로서의 방송이었고, 민영방송이라는 것은 특정 사업체나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실무적인 차이, 즉 재무구조의 차이를 지칭하는 보조적인 언어였을 뿐이다.

이렇듯, 영국에서 BBC의 지위는 유일한 ‘공영방송사’를 뛰어넘어, ‘공공 서비스 방송’의 주축을 이루는 방송사 중의 하나이기도 한 것인데, 따라서 BBC 및 여타의 방송사들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공공 서비스’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영국에서는 이들 방송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규제의 형식보다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고전적이고도 원숙한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 특히 그 재정적 활동에 대하여서는, 전술했듯, 연례보고서의 국정감사 외에는 뚜렷한 감시의 체계조차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하다. 어쩌면 너무도 느슨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이러한 방법론이 아직껏 그 효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사 입장에서건, 정부의 입장에서건, 시민의 입장에서건, 이익집단의 입장에서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짚어내고, 적절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의 양심에 맞게 실천하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하게 배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게는 수신료를 둘러싼 문제, 크게는 BBC와 영국 정부와의 관계의 전개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방송사들과 방송계 전반에 걸친 이슈들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 IV.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의 영화 산업

캐나다의 영화 산업은 창의적이면서도 그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큰 것으로 유명하지만, 미국 할리우드의 영향력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도시들이 미국을 필두로 한 국내외 영화 제작자들의 인기 촬영지로 자리 잡으면서 "할리우드 북부(Hollywood North)"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캐나다의 영화 산업은 배우, 감독, 기술 스태프 등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광범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먼저 캐나다 영화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그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2022년과 2023년 기준으로, 약 140억 5천만 달러의 GDP에 대한 기여도와 23만 9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구독을 바탕으로 한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에서도, 해당 기간 캐나다의 영화 산업에서의 추정 이익은 약 46억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는 매년 100편 이상의 자국 장편영화를 제작하여 캐나다 특유의 문화와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주된 촬영 장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선도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그리고 퀘벡주는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의 요지이며,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는 그중에서도 허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영화 산업은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 디지털 배포, 신기술에 대한 적응의 필요성과 관련된 각종 과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캐나다의 영화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캐나다 영화 산업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세계 영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영화 산업 역시 자국의 문화와 경제 영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수준의 스튜디오와 다채로운 자연 경관을 함께 갖추고 있기에, 주요 영화들의 촬영지로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영화 산업은 캐나다의 영화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할리우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스크린 호주(Screen Australia)’를 비롯한 각종 정부 기구 및 기관을 통해서 영화 제작비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적 지원이나 보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ZFC, The New Zealand Film Commission)’를 통해서 지역 영화 제작 지원, 국제 공동 제작 장려, 주요 영화 촬영지로서의 뉴질랜드 홍보 등의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인도의 영화산업은 다양한 방언의 활용과 독특한 제작 방식이라는 말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도에는 15개의 공식 언어 외에도 무수한 방언이 있어, 할리우드의 영어판 영화의 흥행을 저지하는, 자연스러운 수입 장벽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인도 영화의 독특한 제작 시스템과 복합적인 장르의 관습은 영화, 엔터테인먼트, 음악, 춤의 통합으로 설명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인도 영화는 노래와 춤을 곁들인 뮤지컬 식의 영화이자, 액션 장면과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어우러진 ‘복합 장르영화’이다. 뮤지컬 음악을 전문 가수가 녹음하고 배우는 립싱크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또한 인도 영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영화가 개봉하기 전, 뮤지컬 음악을 뮤직비디오나 음반의 형태로 선(先)출시하여 제작비를 동원하는 경우도 많다.

인도 영화는 스타 시스템으로의 자본 집중으로도 유명하다. 이에 따라서, 기타 분야의 발전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 스타급 배우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과다함에 따라서, 영화 자체가 탄탄한 줄거리 흐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두 명의 스타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완벽한 춤과 노래 실력, 그리고 영어 구사 능력이 영화 배우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크리켓 경기 외에는 특별한 여가선용의 수단이 없는 인도에서 스타급 팔방미인 영화배우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는 데도 스타급 영화배우들이 일조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부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 편수를 제작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도 영화 산업은 1992년 한해의 예를 들더라도 개봉을 앞두고 심사를 기다리는 영화 편수가 무려 8백 36편을 기록하였다. 인도 전역에 걸쳐서는 무려 1만 2천 개의 영화 상영관이 있다. 2003년에는 총 1,100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또한 인도는 자국 영화 점유율이 무려 9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첫 번째 장편영화라는 평가를 받는 <라자 하리산드라>(Raja Harishchandra, 1913)는 뭄바이에서 만들어졌다. 무성영화인 탓에 춤과 노래는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기술 스태프나

여배우를 서양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스크리트 연극을 영화화한 <샤쿠타라>(Shakuntala, 1920)처럼 인도의 전통적 여인을 미국 배우가 맡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사운드의 도래와 함께 노래는 자연스럽게 인도 영화에 깃든다. 첫 번째 유성영화 <알람 아라>(Alam Ara, 1931)는 이미 노래와 춤, 판타지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발리우드 영화의 꼴을 갖추고 있었다. 플레이백 싱어(배우 대신 노래하는 가수)도 빠질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후 대부분의 발리우드 영화에는 장르를 불문하고 노래가 빠지지 않는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발리우드에선 네오리얼리즘을 연상시키는 사회드라마, 스릴러와 로맨스를 결합한 뮤지컬 등 코미디 속에 개인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신파영화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서구의 모던 댄스를 끌어들이고 인도의 전통 춤을 각색한 새로운 춤, <벤허>를 능가하는 장대한 스케일 등을 통해 특유의 산업을 구축한 발리우드의 60년대가 구축되었고, 그 위용은 현재까지도 고스란히 물려지고 있다.

## V. 영상산업과 영상 문화의 독자성

세계적으로 영상산업 정책은 크게 미국식 시장주의와 유럽식 보호주의로 구분된다.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시장 제일주의 정책은, 문화상품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세계무역기구나 다자 간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매년 유럽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예외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 각국이나 우리나라의 영상산업 지원제도와 쿼터제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철폐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유럽의 국가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의 문화적 예외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앞장선 유럽 국가들은 문화상품과 기타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 논리의 문제가 아닌 자국의 정체성과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자본시장과 배급시장에 대한 장악력, 세계시장 점유율 등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영상 산업이 자유경쟁이라는 시장 논리까지 등에 업고 세계적으로 그 힘을 더욱 키우게 된다면 여러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임은 분명하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던 영국의 영상산업은 영어권 국가뿐 아니라, 자국의 영상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모든 다른 나라에서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여주었다. 산업혁명이라는 근현대사의 전환점에서, 영화라는 매체의 탄생은 과학적 호기심과 기술적 실험 및 실습이라는 근본적인 전제를 깔고서야 가능한 사건이었다. 영화의 탄생과 결부된 다양한 과학적, 기술적 요소들은 영화를 대중매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이윤 창출을 주된 목표로 하는 사업적인 마인드를 영화에 도입하게 하는 필요조건이 되기도 했다. 물론, 감독이나 제작자, 혹은 작가의 창조적인 활동의 산물로서의 영화를 ‘예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발명과 사업가 정신이 결합하여 완성된 영화라는 매체는 공동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상품’임에 틀림이 없다.

1995년의 영화 진흥법은 우리나라에서의 영화산업을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해, 다양한 형태의 세제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비로소 영화 텍스트가 ‘영화상품’으로, 영화업이 단지 예술 활동이나 문화현상이 아닌 ‘예술이자 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후 약 30

년 동안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영상산업으로 발전하여 왔고, 예술적으로든 산업적으로든 영화 및 영상이 국내외 문화 및 경제 영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지극히 높아졌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인 법. 우리나라의 영화 및 영상 문화의 독자성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꾸준히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연구, 비교하면서, 그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영상산업이 취할 전술 및 전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의 사례들을 살펴 보았고, 이는 분명 우리나라의 영상산업에 중요한 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승구, 장일, 이성민. <영화 산업과 마케팅>. KNOU Press, 2022.
- 데이비드 보드웰. 김숙, 안현신, 최경주 옮김. <영화 스타일의 역사>. 한울, 2010.
- 데이비드 보드웰, 크리스틴 톰슨. 주진숙, 이용관 옮김. <영화 예술>. 지필미디어, 2011.
- 루이스 자네티. 박만준, 진기행 옮김. <영화의 이해>. 케이북스, 2012.
- 장일, 김예란. <대중영화의 이해>. KNOU Press, 2024.
- 장일, 이성민, 이홍우. <사진영상론>. KNOU Press, 2021.
- 정준영 외. <문화산업과 문화기획>. KNOU Press, 2019.
- 정태수, <세계 영화예술의 역사>, 박이정, 2016.
- 켄 댄시거, 오명훈 옮김, <영화편집: 기술, 역사, 이론,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 토마스 소빅, 주창규 외 옮김, <영화란 무엇인가>, 거름, 1998.
- Daniel Browne. *Mediated Landscapes: Technology and Environment in Recent Canadian Cinema*. A Dissertation to Ryerson University and York University, 2020.
- Cambridge Econometrics. *Economic Impact of the UK Screen Industries*. Cambridge Econometrics, 2005.
- Angus Finney. *The International Film Business: A Market Guide beyond Hollywood*. London: Routledge, 2022.
- Stephen R. Greenwald and Paula Landry. *The Business of Film: A Practical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22.
- Anne Jackel. *European Film Industries*. London: BFI Publishing, 2003.
- Robin Laurence. *Sustaining National Feature Film Production: Knowledge Transfers from Pre-Production Processes in Globalised Filmmaking*. A Dissertation to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2023.
- Petros Losifidis, Jeanette Steemers and Mark Wheeler. *European Television Industries*. London: BFI Publishing, 2005.
- Geoffrey Macnab. *The British Film Industry in 25 Careers: The Mavericks, Visionaries and Outsiders Who Shaped British Cinema*. London: Bloomsbury, 2021.
- Paul McDonald and Janet Wasco. *The Contemporary Hollywood Film Industry*. London: Wiley-Blackwell, 2007.
- Oxford Economics. *The Economic Impact of the UK Film Industry*. Oxford Economics, 2010.
- Andy C. Pratt and Paul Jeffcutt. *Creativity, Innovation and the Cultural Economy*. London: Routledge, 2009.
- Sunny Singh. *A Bollywood State of Mind: A Journey into the World's Biggest Cinema*. New York: Footnote Press, 2024.
- Alan Smithee. *Film and Audiovisual Industry: The Truth about Writing, Financing, Producing, Distributing, and Working in Movies*. Independently Published, 2018.
- Victoria Swart. *New Zealand Film Industry: Building Culture and Identity*. The Kabod; Volume 4; Issue 2, 2018.
- UK Film Council. *Film in the UK: A Briefing Paper*. UK Film Council Research and Statistics Unit, 2009.
- UK House of Commons. *The British Film Industry*. UK House of Commons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2002.

UK House of Lords. *The British Film and Television Industries: Decline or Opportunity?* UK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Communications, 2010.

Neelam Sidhar Wright. *Bollywood Eclipsed: The Postmodern Aesthetics, Scholarly Appeal, and Remaking of Contemporary Popular Indian Cinema*. A Dissertation to University of Sussex, 2023.

## \* ABSTRACT \*

This thesis deals with visual culture and industry in general, especially on the context of the digital convergence. It considers the way how film industries and television industries can be networked altogether. Previously, film industries and television industries were treated as independent agents so that issues from the outside of each industry were being considered as the not-must-be-thought-of-as-the-wholes. However, recent trends of the digital convergence and shift to an ‘another world’ make us think about the very ‘different things’. ‘The different’, what I mean, is not new. Netflix originally started from the mailing service. Analogues originally started from the old forms when even the word ‘Analogue’ did not exist. My main interest is in the context of now and what there was previously. On the seen level, this thesis is about (as it were) policies, regulations, and systems. But on the profound level, it will deal with as many things on the visual culture as I can, concerning about films and future visuals. I believe that what I see to understand can make the world different. And what I actually see and everything that I am watching is the thing that makes the world different.

#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방법 연구\*

이기재\*\*

## Weighting Approach in Dual Frame Survey

LEE Kee Jae

###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이중추출틀 조사의 가중치 산출 방법 |
| II. 이중추출틀의 개념과 유형             | V. 결론 및 제언              |
| III. 아동실태조사를 위한 이중추출틀<br>표본설계 | 참고문헌<br>논문초록            |

## I. 서론

이 연구는 모집단 포함 범위를 개선하고 단일 추출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편향을 줄이기 위해 두 개의 개별 표본추출틀을 활용하는 이중추출틀(dual frame) 조사에서의 가중치 산출 방법론을 탐구한다. 이중추출틀을 이용한 조사는 조사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두 추출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추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가중치 산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 사례를 통해 저소득 계층과 같이 특정 유형 계층의 과표집(over-sampling)을 통해 통계를 산출해야 하는 이중추출틀 조사에 대한 효율적인 추정을 위한 가중치 산출 방법을 연구한다.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가중치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추정치를 만들기 위해 각 표본 단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 생산과 대상 모집단에 대한 유효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므로 조사 분석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이중추출틀을 이용한 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방법을 구현하는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추출확률 계산: 각 추출틀에 대해 각 추출단위의 추출확률을 계산하며, 설계가중치는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3분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계·데이터과학과 교수.

- 겹침 여부 파악: 한 추출틀의 단위가 다른 추출틀의 단위와 겹치는 정도를 결정하여,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두 추출틀 모두에 존재할 수 있는 단위를 설명하는 데 이용된다.
- 이중추출틀 조정계수 계산: 중첩 정보를 기반으로 이중추출틀 조정 계수를 계산한다. 이 요소는 두 추출틀 간의 잠재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추정치의 편향(bias)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 무응답 및 기타 요인 통합: 무응답 또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이 있는 경우 추가 조정 요인을 계산하여 가중치에 통합할 수 있다.
- 최종 가중치 계산: 각 표본 단위의 최종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에 이중추출틀 조정 계수 및 무응답 조정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정보 또는 보조 정보(예: 연령, 성별, 지역)에서 알려진 모집단 정보와 일치하도록 설계가중치를 조정한다.

가중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중추출틀 조사의 표본설계 방법과 추정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사례를 통해 이중추출틀 조사의 구체적인 가중치 산출 방법을 연구한다.

최근에는 전 국민에 대한 통계 산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 가구,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의 통계 산출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표본추출 과정에서 인구총조사 등의 국가 단위 전수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아동 가구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통계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조사 환경의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효율적인 추정을 위한 가중치 산출 방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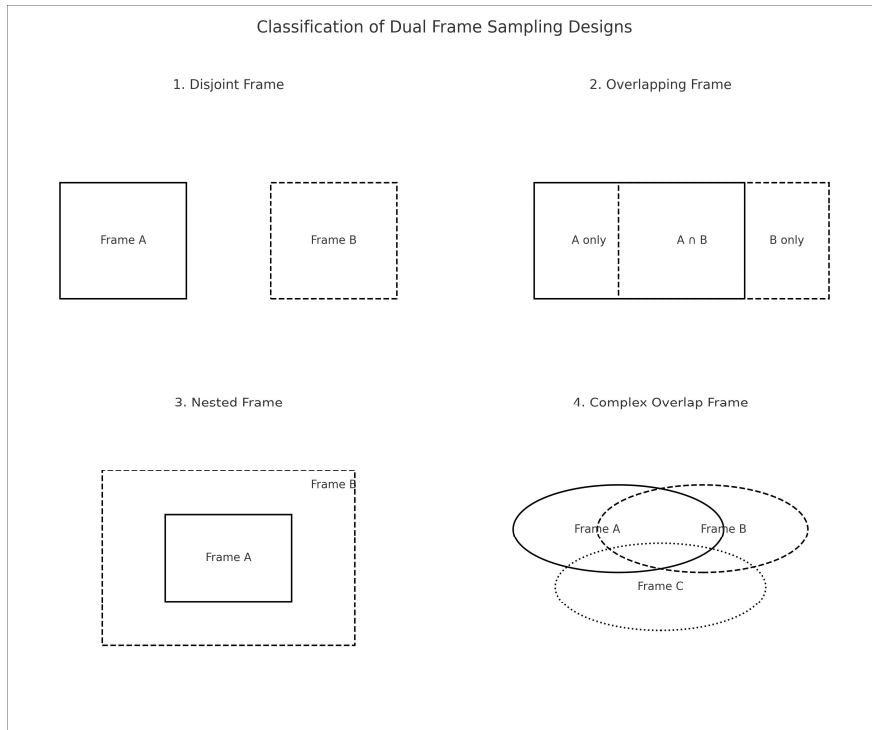
## II. 이중추출틀의 개념과 유형

### 1. 이중추출틀(Double Frame)의 개념

이중추출틀(Double Frame) 표본조사는 두 개 이상의 표본추출틀을 이용하여 동일한 모집단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추출틀로는 모집단 전체를 효과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 복수의 추출틀을 활용함으로써 비포함 오차(coverage error)를 줄이고 추정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Lohr, 2010).

### 2. 이중추출틀의 분류

이중추출틀 표본조사는 하나의 추출틀로는 모집단 전체를 효과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모집단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표본추출틀을 활용함으로써 비포함 오차(coverage error)를 줄이고,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설계 방법이다. 이중추출틀은 추출틀 간의 포함 및 중복 여부에 따라 상호배타적 추출틀(Disjoint Frame), 중첩형 추출틀(Overlapping Frame), 포함형 추출틀(Nested Frame), 복합형(Complex Overlap Frame)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Kalton and Anderson, 1986; Skinner and Rao, 1996).



<그림 1> 이중추출틀 조사의 유형 구분

#### 가. 상호배타적 추출틀 (Disjoint Frame)

두 추출틀 A와 B가 상호 배타적인 경우, 즉  $A \cap B = \emptyset$ 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두 추출틀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모집단의 각 요소가 어느 한 추출틀에만 속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한 추출틀은 병원에 등록된 환자 목록이고 다른 추출틀은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는 환자 목록이며, 두 목록 간에 중복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다. 전체 모수  $Y$ 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추출틀별 추정량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hat{Y} = \hat{Y}_A + \hat{Y}_B$$

이 경우는 중복 처리가 필요 없으며, 표준적인 층화추출법에서의 추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나. 중첩형 추출틀 (Overlapping Frame)

일반적인 이중추출틀 유형으로, 두 추출틀이 모집단의 일부를 공유하며 중복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유선 전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추출틀 A)와 휴대 전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추출틀 B)를 결합하는 경우, 유선 전화와 휴대 전화를 모두 사용하는 가구는 중복 영역에 해당한다. 즉, 두 추출틀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 즉  $A \cap B \neq \emptyset$ 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모집단은 다음 식과 같이 세 개의 도메인으로 분할된다.

$$U = A \cup B = (A - B) \cup (A \cap B) \cup (B - A) = D_A \cup D_{AB} \cup D_B.$$

전체 추정치는 세 영역 추정치의 합으로 표현되며, 중복 영역은 가중 평균 방식으로 조정한다.

#### 다. 포함형 추출틀 (Nested Frame)

하나의 추출틀(더 작은 추출틀)이 다른 추출틀(더 큰 추출틀) 내부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이다. 즉, 작은 추출틀에 속하는 모든 개체는 큰 추출틀에도 속하지만, 큰 추출틀에는 작은 추출틀에 속하지 않는 개체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모든 사업체 목록(추출틀 A)과 그 지역의 대기업 목록(추출틀 B)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대기업은 사업체에 포함되지만, 모든 사업체가 대기업은 아닌 경우이다.

포함형 추출틀은 추출틀  $A \subset B$ 인 경우로, 추출틀 A가 추출틀 B의 부분집합인 구조이다. 추출틀 A는 추출틀 B의 특정 도메인으로 간주되며, 도메인 분석이 요구된다.

#### 라. 복합형 (Complex Overlap Frame)

세 개 이상의 프레임이 서로 중복 또는 포함되는 복합적 구조. 추출틀 간 중복 도메인이 다층적으로 존재하므로, 추정 및 가중치 설계에 있어 복잡한 중복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주 추출틀이 모집단의 대부분을 포괄하지만, 일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추출틀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보충 추출틀은 주 추출틀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일반 전화번호부를 주 추출틀로 사용하고, 신규 이주민을 위한 별도의 추출틀을 보충 추출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중추출틀 설계에서 중복 영역의 식별 및 처리, 각 추출틀의 포괄 범위와 누락 비율 분석, 추출틀 간 이질성 분석을 통한 가중치 산출 계획, 추출틀별 표본 추출율과 분산 비교 등은 최종 추정량의 편향과 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계적 정밀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앞서 설명한 이중추출틀의 각 유형은 가중치 작성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중치는 표본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하도록 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중추출틀 조사에서는 각 추출틀에서 추출된 표본이 가지는 모집단 내에서의 확률과 두 추출틀 간의 중복 여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요 가중치 작성 방법으로는 승수법(Multiplicity Weighting), 결합확률 가중치(Composite Weighting), 그리고 모집단 크기 추정 기반 가중치 등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적합한 가중치 부여 방식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이중추출틀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가중치 작성 방법론과 함께 실제 적용 사례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다.

### III. 아동실태조사를 위한 이중추출틀 표본설계

본 연구의 사례 연구 대상인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복지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아동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이 조사는 특히 취약 계층 아동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과 같이 특정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소수 집단에 대한 대표성 있는 통계 산출이 요구된다.

## 1. 이중추출틀 적용의 필요성 및 배경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대한민국 아동 전체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취약 계층 아동,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 상태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인구 기반 조사에서 저소득층 아동과 같은 특정 소수 집단은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표준적인 무작위 추출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집단에 대한 통계적 추정치의 정밀도를 저하시키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될 수 있다 (Lohr, 2010; Kalton, 2003).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대표성 및 통계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이중추출틀(Dual Frame) 설계를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기존의 일반 가구 추출틀(Main Frame)과 더불어 저소득층 가구를 특정하여 과표집(Oversampling)할 수 있는 보조 추출틀(Auxiliary Frame)을 함께 활용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는 행정 데이터(예: 복지 수급자 명단)를 활용하여 구축되었으며, 이는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특정 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표본 확보를 가능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이중추출틀은 비포함 오차(Coverage Error)를 줄이고, 관심 집단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추정치의 분산(Variance)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조사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Hartley, 1962).

본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적용된 이중추출틀의 구조는 포함형 추출틀(Nested Frame)에 해당한다. 이는 보조 추출틀(저소득층 가구)의 모든 요소가 주 추출틀(일반 가구)에도 포함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Kalton and Anderson, 1986). 즉, 저소득층 가구는 일반 가구의 부분 집합이므로, 중복되는 표본 단위에 대한 적절한 가중치 처리 및 통합 방식이 요구된다.

## 2. 표본설계 개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인구총조사 조사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2단계 층화집락 계통추출 방식이 적용되었다. 전체 표본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에 제시되어 있다.

### 가. 일반가구 대상 조사

<표 1>은 시도별 조사구, 가구,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분포 현황이다. 표본설계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표본 추출틀 정보는 2022년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표본추출틀로 활용하는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분석한 것이다.

표본추출틀 내의 전체 조사구는 388,902개이고, 가구는 21,773,507호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 조사구의 24.2%와 18.6%를 차지하고, 가구 수의 24.8%와 18.8%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도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은 전체 조사구나 가구의 시도별 분포 현황과 대체로 유사하다.

<표 1> 조사구, 가구 및 조사대상자 현황

| 시도 | 조사구     |        | 가구         |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
|----|---------|--------|------------|--------|---------------|--------|
|    | 조사구 수   | 열%     | 가구 수       | 열%     | 인구            | 열%     |
| 서울 | 72,343  | 18.6%  | 4,098,818  | 18.8%  | 1,152,492     | 15.2%  |
| 부산 | 26,549  | 6.8%   | 1,447,825  | 6.6%   | 433,468       | 5.7%   |
| 대구 | 17,171  | 4.4%   | 1,010,834  | 4.6%   | 345,760       | 4.6%   |
| 인천 | 20,878  | 5.4%   | 1,212,731  | 5.6%   | 443,040       | 5.9%   |
| 광주 | 10,598  | 2.7%   | 623,252    | 2.9%   | 238,918       | 3.2%   |
| 대전 | 10,956  | 2.8%   | 646,474    | 3.0%   | 225,407       | 3.0%   |
| 울산 | 8,339   | 2.1%   | 453,998    | 2.1%   | 182,418       | 2.4%   |
| 세종 | 2,667   | 0.7%   | 154,019    | 0.7%   | 88,977        | 1.2%   |
| 경기 | 93,946  | 24.2%  | 5,406,963  | 24.8%  | 2,173,348     | 28.7%  |
| 강원 | 12,957  | 3.3%   | 684,895    | 3.1%   | 210,880       | 2.8%   |
| 충북 | 12,839  | 3.3%   | 704,864    | 3.2%   | 237,102       | 3.1%   |
| 충남 | 16,974  | 4.4%   | 931,370    | 4.3%   | 332,610       | 4.4%   |
| 전북 | 14,377  | 3.7%   | 777,680    | 3.6%   | 257,072       | 3.4%   |
| 전남 | 14,685  | 3.8%   | 784,645    | 3.6%   | 254,828       | 3.4%   |
| 경북 | 22,161  | 5.7%   | 1,166,306  | 5.4%   | 360,031       | 4.8%   |
| 경남 | 26,085  | 6.7%   | 1,392,608  | 6.4%   | 510,775       | 6.8%   |
| 제주 | 5,377   | 1.4%   | 276,225    | 1.3%   | 116,850       | 1.5%   |
| 전국 | 388,902 | 100.0% | 21,773,507 | 100.0% | 7,563,976     | 100.0% |

자료: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표본설계에서는 8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로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하여 26개 층을 구성하였다. 이후 서울, 광역시(세종시 포함) 및 9개 도 지역(동) 층에 대해서는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로 나누어 세부 층화하였고, 도 지역(읍·면) 층에서는 따로 세부 층화하지 않았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일반가구 대상 조사는 900개 표본조사구로부터 4,500가구 내 아동·청소년을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의 최대 허용오차 한계는  $\pm 1.5\%p$  수준으로 예상된다.

표본설계에서 1차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가구이다.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의 추출은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표본조사구의 추출은 43개 각 층 내에서 조사구를 행정구역 번호에 따라 정렬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으로써 해당 층을 지리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표본 조사구로부터 10~18가구에 대해서 접촉 성공하여, 이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5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는 전국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표본추출틀 상의 전국 저소득층 가구 내의 아동·청소년은 326,372명이다. 시도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의 저소득층 가구 내의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중 19.9%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시에 12.0%가 거주하고 있다.

표본추출틀은 2023년 6월 말 기준의 전국 저소득층 가구 내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리스트(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다. 이 조사는 1차추출단위(PSU)를 동/읍면으로 하고, 2차추출단위(SSU)를 아동·청소년으로 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표본설계에서는 8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층화하여 전체 17개 층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 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의 표본크기는 전국에서 1,000명이다. 각 층별 표본배분은 1,000명의 아동을 17개 시도별로 저소득층 가구 아동·청소년(18세 미만)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칙적으로 1개 동/읍·면에서 10가구를 조사하여 총 100개 표본 동/읍면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는 층화2단계집락추출법에 따라서 추출된다. 각 층에 배분된 표본크기에 따라 각 동/읍·면별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청소년(18세 미만)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표본 동/읍·면을 추출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표본 동/읍·면에 대해서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리스트를 작성한다. 작성된 리스트에서 실사 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임의출발점과 추출간격을 이용하여 10가구를 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 다. 최종 표본 구성 및 특징

일반 추출틀과 저소득층 추출틀에서 추출된 가구를 통합하여 최종 표본 가구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추출틀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는 중복 가구(저소득층이면서 일반 가구에 포함되는)에 대한 식별이 중요하며, 이는 가중치 산출 단계에서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중추출틀을 통한 과표집은 특정 관심 집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단일 추출틀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Skinner and Rao, 1996). 따라서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이중추출틀 설계는 아동 복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분화된 통계 생산의 토대가 된다.

### IV. 이중추출틀 조사의 가중치 산출 방법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가중치 산출은 표본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하고,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를 얻으며, 추정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Lohr, 2010; Särndal et al., 1992). 특히 「아동종합실태조사」와 같이 일반 가구 추출틀(Frame A)과 특정 과표집 집단(저소득층 가구)을 위한 보조 추출틀(Frame B)을 함께 사용하는 포함형 추출틀(Nested Frame) 구조에서는, 두 추출틀 간의 중복 영역을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가중치 산출의 핵심이다 (Kalton and Anderson, 1986).

본 장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적용된 이중추출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 1. 가중치 산출의 기본 원칙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일반가구 내 아동·청소년 조사와 저소득층 가구 내 아동·청소년 조사로 구분된다. 전국 일반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조사와, 저소득가구 내 아동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보완조사를 함께 수행하며, 이 중 보완조사는 이중추출틀 유형 중 포함형(Nested Frame) 추출틀을 통해 표본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저소득층 가구 조사를 추출틀(B)는 일반가구 조사 추출틀(A)에 완전히 포함된다. 이와 같은 포함형 추출틀에서 가중치 산출의 핵심은 A에만 속하는 개체와 A와 B 모두에 속하는 개체(즉, B에 속하는 모든 개체)를 적절히 구분하고, 각 개체가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중추출틀 가중치 산출은 크게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i) 설계 가중치(Design Weight) 계산: 각 표본 단위가 추출될 확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이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등한 추출 확률을 보정한다 (Kish, 1965).

(ii) 무응답 조정(Nonresponse Adjustment): 조사 참여에 실패한 표본 단위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을 줄이기 위해, 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조정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무응답률이 유사한 그룹(응답 성향 그룹)별로 이루어진다.

(iii) 이중추출틀 통합 및 중복 조정: 두 추출틀(Frame A와 Frame B)에서 추출된 표본을 결합하고, 두 추출틀 모두에 속하는 중복 영역의 표본에 대한 가중치를 적절히 조정한다. 이는 복합 가중치(Composite Weighting)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Hartley, 1962; Skinner & Rao, 1996).

(iv)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최종 가중치를 외부 모집단 정보(예: 인구총조사 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연령, 성별, 지역 분포 등)에 일치시키도록 조정하여,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고 추정치의 정밀도를 높인다.

## 2. 이중추출틀 조사를 위한 결합 가중치 산정

### 가. 이중추출틀 이용에 따른 조정

저소득층 가구내 아동·청소년의 표본추출은 이중추출틀(dual frame)을 이용한 경우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내 아동·청소년 리스트를 표본 추출틀로 이용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일반 가구 조사를 위한 추출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리스트에서도 추출될 수 있다.<sup>1)</sup>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두 종류의 추출틀에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P(i \in S_A \cup S_B) &= P(i \in S_A) + P(i \in S_B) - P(i \in S_A \cap S_B) \\ &= \pi_i^A + \pi_i^B - \pi_i^{A \cap B} \end{aligned}$$

여기서  $S_A$ 와  $S_B$ 는 일반 가구 조사를 위한 추출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리스트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의미한다.

1) 설문항목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일반가구에서 조사된 아동·청소년 중 저소득층 대상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계산식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두 추출틀로부터 동시에 추출될 확률인  $\pi_i^{A \cap B}$ 은 대단히 작은 값이므로  $P(i \in S_A \cup S_B) = \pi_i^A + \pi_i^B$ 으로 계산할 수 있어 표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설계 가중치는  $w_i = (\pi_i^A + \pi_i^B)^{-1}$ 를 이용하였다.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무응답은 추정치의 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응답자 가중치를 조정하여 무응답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무응답 성향을 보이는 그룹을 정의하고, 해당 그룹의 응답률 역수를 곱하여 가중치를 조정한다. 이 조사에서 무응답 그룹은 1차추출단위인 조사구와 읍면동으로 하였다.

무응답 조정 이후 전체 가구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벤치마킹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추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 가중치 작성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23년 기준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내 아동·청소년 수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가중치는 최종적으로 모집단 정보에 대해서 레이킹 방법을 통해서 벤치마킹되었다. 레이킹비 방법을 적용할 때 사용된 변수는 시도\*성별, 시도\*연령대, 시도\*(일반 아동·청소년 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수) 등이다. 이들 모집단 정보에 대해서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이 조사의 주요 추정대상은 모평균이나 모비율이고, 각종 모평균 추정은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표본평균 형태의 추정량을 이용한다. 모평균이나 모비율 추정량의 분산 계산은 층화와 2단 집락추출, 가중치 등의 복합표본설계 요소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 3. 조사데이터 분석 및 가중치 산출 현황

#### 가. 조사 현황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일반가구 내 아동·청소년 4,753명, 저소득층 가구 내 아동·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인구총조사 조사구 리스트(추출틀 A)를 이용한 일반가구 대상 조사는 1,053개 표본조사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저소득층 가구 리스트(추출틀 B)를 이용한 조사는 13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추출틀에서 조사된 가구 유형별 응답자 현황은 <표 2>와 같다. 인구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로부터 얻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응답자는 8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8%에 불과하다. 만약 전체 표본크기 5,753명을 인구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로부터 추출하여 조사했다면 104명이 조사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이중추출틀을 이용하여 조사하지 않았다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독립적인 통계 산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 2> 추출틀 유형 및 가구 유형별 응답자 현황

| 구분      | 추출틀 A<br>(조사구 리스트) |        | 추출틀 B<br>(기초생활수급자 리스트) |        | 합계    |        |
|---------|--------------------|--------|------------------------|--------|-------|--------|
|         | 아동수                | 열%     | 아동수                    | 열%     | 아동수   | 열%     |
| 저소득층 가구 | 86                 | 1.8%   | 1,000                  | 100.0% | 1,086 | 18.9%  |
| 일반 가구   | 4,667              | 98.2%  | 0                      | 0.0%   | 4,667 | 81.1%  |
| 합계      | 4,753              | 100.0% | 1,000                  | 100.0% | 5,753 | 100.0% |

각 추출틀에서 조사된 가구 유형별 응답자 가중치 분포 현황은 <표 3>과 같다. 인구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로부터 조사된 응답자의 가중치는 기초생활수급자 리스트로부터 얻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응답자의 가중치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6.18배 크다. 이는 이중추출틀을 이용한 표본설계를 통해서 저소득층 가구의 추출률을 높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표 3> 추출틀 유형별 응답자 가중치 분포 현황

| 구분       | 추출틀 A<br>(조사구 리스트) | 추출틀 B<br>(기초생활수급자 리스트) | 전체      |
|----------|--------------------|------------------------|---------|
| 표본크기     | 4,753              | 1,000                  | 5,753   |
| 100% 최댓값 | 9,148.3            | 915.6                  | 9,148.3 |
| 99%      | 7,785.9            | 846.9                  | 7,655.9 |
| 95%      | 3,993.9            | 560.1                  | 3,580.8 |
| 90%      | 2,984.4            | 464.1                  | 2,749.9 |
| 75% Q3   | 1,727.0            | 312.8                  | 1,557.1 |
| 50% 중위수  | 1,168.7            | 215.7                  | 990.8   |
| 25% Q1   | 760.1              | 144.2                  | 555.7   |
| 10%      | 550.0              | 84.1                   | 225.0   |
| 5%       | 450.4              | 71.5                   | 144.3   |
| 1%       | 245.0              | 44.6                   | 63.6    |
| 0% 최솟값   | 17.7               | 24.2                   | 17.7    |
| 평균       | 1,539.0            | 249.2                  | 1,314.8 |
| 변동계수(%)  | 86.2               | 61.4                   | 99.1    |

<표 4>는 이중추출틀을 이용한 2023년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와 단일 추출틀을 이용할 때 예상되는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중추출틀을 이용한 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통계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방법 연구

<표 4> 이중추출틀 이용 조사와 단일 추출틀 이용 조사의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 비교

| 가구유형  | 설문항목           | 이중추출틀 이용 조사 |       |              | 추출틀 A 이용 조사(예상) |       |               |
|-------|----------------|-------------|-------|--------------|-----------------|-------|---------------|
|       |                | 응답자         | 추정값   | 상대표준 오차      | 응답자             | 추정값   | 상대표준 오차       |
| 저소득층  | (보호자) 건강 만족도   | 1,086       | 5.86  | <b>1.86%</b> | 104             | 5.82  | <b>3.90%</b>  |
|       | (보호자) 주관적 삶 평가 | 1,086       | 5.41  | <b>2.33%</b> | 104             | 4.98  | <b>6.75%</b>  |
|       | (아동) 건강상태      | 1,086       | 1.93  | <b>2.03%</b> | 104             | 1.94  | <b>4.53%</b>  |
|       | 안경, 렌즈 착용율     | 1,086       | 33.0% | <b>7.16%</b> | 104             | 39.7% | <b>16.54%</b> |
| 일반가구  | (보호자) 건강 만족도   | 4,667       | 6.91  | 0.57%        | 5,649           | 6.91  | 0.52%         |
|       | (보호자) 주관적 삶 평가 | 4,667       | 6.98  | 0.54%        | 5,649           | 6.98  | 0.49%         |
|       | (아동) 건강상태      | 4,667       | 1.69  | 0.89%        | 5,649           | 1.69  | 0.80%         |
|       | 안경, 렌즈 착용율     | 4,667       | 24.8% | 4.36%        | 5,649           | 24.8% | 3.96%         |
| 전체 가구 | (보호자) 건강 만족도   | 5,753       | 6.87  | 0.56%        | 5,649           | 6.90  | 0.52%         |
|       | (보호자) 주관적 삶 평가 | 5,753       | 6.91  | 0.53%        | 5,649           | 6.95  | 0.50%         |
|       | (아동) 건강상태      | 5,753       | 1.70  | 0.85%        | 5,649           | 1.69  | 0.81%         |
|       | 안경, 렌즈 착용율     | 5,753       | 25.2% | 4.15%        | 5,649           | 25.0% | 3.96%         |

## V.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두 개의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이중추출틀(dual frame) 조사를 통해 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높이고 편향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사례로, 포함형(Nested Frame) 추출틀 구조에서의 가중치 산출 방법을 연구하였다. 일반가구 조사와 저소득층 보완조사는 각각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와 기초생활수급자 명부를 추출틀로 하여 별도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가중치 산출은 추출확률, 중복 여부, 무응답 보정, 모집단 정렬(사후층화, 레이킹) 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저소득층 표본은 별도의 가중치 조정을 통해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중추출틀 방식은 저소득층 아동 표본 수와 통계 정밀도를 현저히 개선하였으며, 단일추출틀에 비해 상대표준오차(RSE)를 크게 낮추었다. 결합 가중치를 산출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비편향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향후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출틀의 최신성과 정확도 확보가 필요하다. 이중추출틀 조사의 신뢰도는 추출틀의 품질에 크게 좌우되므로, 인구주택총조사 및 행정자료의 정기적인 갱신과 검증이 필수적이다. 또한 추출틀 간 중복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포함형 구조에서는 추출틀 간 중복 식별이 중요하며, 중첩 단위의 정확한 분류 및 처리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결합 가중치 방법의 정교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중치 산출 과정에서 다양한 조정 변수(성별, 연령, 지역 등)를 반영하는 방법론의 고도화 연구가 요구되고, 레이킹비(Raking Ratio) 조정 변수 측면에서도 모집단 정보와 가중치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성별 외에도 추

가 보조 변수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 과표집 설계의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과표집 비율과 표본크기 설정에 관한 사전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조사 설계의 표준화 및 매뉴얼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조사 시 일관된 설계와 분석을 위해 이중추출틀 설계와 가중치 산출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표본조사와 행정데이터의 통합 활용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여 가중치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론적 연구가 향후 통계 품질 제고에 핵심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추출틀 설계를 통해 일반가구 및 저소득가구 내 아동을 포괄하는 표본조사를 실현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가구 기반 표본만으로는 대표성이 낮은 저소득층 아동을 보완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 대한 통계 산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향후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의 정확도와 추출틀의 최신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갱신과 검증이 요구되고, 가중치 산출 방법에 대한 정교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Bethlehem, J., Cobben, F., and Schouten, B. (2011). *Handbook of Nonresponse in Household Surveys*. Wiley.
- Hartley, H. O. (1962). Multiple frame surveys. *Proceedings of the Social Statistics Section,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6.
- Kalton, G. (2003). *Introduction to Survey Sampling*. Sage Publications.
- Kalton, G., and Anderson, D. W. (1986). Sampling rare popula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General)*, 149(1), 65-82.
- Kish, L. (1965). *Survey Sampling*. John Wiley & Sons.
- Lohr, S. L. (2010).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2nd ed.). Brooks/Cole.
- Särndal, C. E., Swensson, B., & Wretman, J. (1992). *Model Assisted Survey Sampling*. Springer-Verlag.
- Skinner, C. J., and Rao, J. N. K. (1996). Estimation in dual frame surveys. In *Analysis of Complex Surveys* (pp. 15-38). Wiley.

## \*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the methodology of weight calculation in dual-frame surveys, which utilize two sampling frames to improve population coverage and reduce bias. Using the 2023 Child Well-being Survey in Korea as a case study, the research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a nested frame structure, where a supplementary sample of low-income households is drawn in addition to the general household sample.

Because low-income children comprise a small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e survey incorporated administrative data on welfare recipients to oversample this group effectively. The paper details the weight construction process, including base weights, adjustments for nonresponse, and post-stratification using population benchmarks such as age, gender, and region. For the dual-frame integration, a composite weighting method was employed to combine the general and low-income samples while accounting for any overlaps.

The results show that without the dual-frame approach, reliable statistics on low-income children would not be achievable. The dual-frame design significantly improved both sample representation and the precision of estimates, particularly for vulnerable subpopula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dual-frame surveys are an effective approach for producing representative and unbiased statistics in complex population structures, especially when certain subgroups require targeted oversampling.



## 호주 빅토리아 대학 유아교육과의 블렌디드 러닝 사례 연구\*

이영애\*\*

A case study on blended learning practice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at  
Victoria University, Australia

Youngae Lee

###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 결과 | ABSTRACT    |

## I. 서론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 전문성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OECD, 2020).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 교사 양성과정은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Barnett, 2011). OECD(2019)는 ‘Starting Strong’ 보고서를 통해 유아교사 교육의 내용, 실습 과정, 자격 기준의 명확성과 함께 이들 요소의 구조적, 실천적 일관성이 유아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 현장과 연계된 실천적 양성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Heikka et al., 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학에서 온, 오프라인 과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방적 온라인 강의 방식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과정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희정, 신혜정, 2022; 황소영, 김선영, 2020). 블렌디드 러닝은 전통적인 대면 교육(face-to-face learning)과 온라인 기반 학습(e-learning)을 유기적으로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년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결합한 학습 방식으로, 학습자의 참여도와 자기주도성을 증진시키는 교수-학습 설계 전략이다(임정훈, 2004). 블렌디드 러닝은 일반적으로 혼합방식과 보조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우종정, 김보나, 이옥형, 2009; 전병호, 김용, 2017), 플립러닝도 선행 학습 개념이 추가된 블렌디드 러닝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강의실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혼합해서 최적의 교육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전병호, 김용, 2017). 선행연구들은 학습자, 교수자, 학습 내용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여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모두 활용하는 블렌디드 학습을 강조한 바 있다(강문숙, 박수홍, 김두규, 2012; 이상수, 2007). 오프라인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한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온라인 학습의 이점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학습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들은 오프라인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불충분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는 블렌디드 러닝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강문숙, 박수홍, 김두규, 2012; 김준호, 김태석, 2010).

박희정과 신혜정(2022)의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이 학습만족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효능감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고, 특히 유아교사 교육에서 블렌디드 러닝은 이론 학습과 실습, 피드백 및 자기성찰 과정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교육모형으로 주목받고 있다(Means et al., 2013). Garrison과 Vaughan(2008)은 블렌디드 러닝을 교수-학습 공간의 재설계로 정의하며, 학습의 깊이와 유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교육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비동기적 학습의 확장, 실시간 상호작용 기반 활동의 가능성이 확대되며, 교사 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학습성도가 보고되고 있다(Brown et al.,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의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블렌디드 PBL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예비교사들의 문제해결력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강문숙, 박수홍, 김두규, 2012). 또한,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블렌디드 러닝은 예비교사들의 학습 참여도, 반성적 사고력, 실습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McKenney & Reeves, 2018). 예를 들어, 뉴질랜드와 핀란드에서는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온라인 반성적 저널,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이 유의미한 학습성적을 창출한 바 있다(Heikka & Waniganayake, 2011).

호주에서도 다양한 대학이 블렌디드 러닝 기반 교사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특히 빅토리아 대학교는 이론과 실습, 평가를 통합한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 project) 및 온라인 기반 교수설계모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Victoria University, n.d.). 또한 부속 유치원과의 협력 운영을 통해 온라인 실습 준비 활동, 동영상 사례 분석, 실시간 피드백 세션 등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호주는 유아교사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 기준인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AQF)과 유아교육 품질 기준인 National Quality Standard(NQS)를 바탕으로 교사 양성과정을 설계하고 있다(ACECQA, n.d.). 특히 호주의 유아교사 자격 인정기관인 ACECQA(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는 교사 교육과정의 질, 실습 시간, 평가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유아교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유아교육 관련 학위 취득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유아교육과 학생 대상 등록금 지원 등 유아교사 양성과정에 상당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주별로 교육 정책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빅토리아 주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빅토리아 주 멜버른에 본교를 두고 있는 빅토리아 대학은 다양한 캠퍼스를 두

고 온, 오프라인 과정의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많은 수의 학생을 성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 고등교육과 직업교육(TAFE)을 모두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대학 중 하나로, 자격증부터 박사과정까지 다양한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앞두고 교사 자격을 일원화해 가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내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최근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교사 양성과정에 관한 자격 기준은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이다(김은영 외, 2014; 이영애, 2024). 이러한 사회적 이슈 가운데 온라인 기반 학습과 오프라인 실습의 통합적인 운영 방식인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유아교사 양성과정은 대체로 이론과 모의수업 시연을 포함한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습은 단일 연령 대상 단회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격수업과 실습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연구적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설양환 외, 2017; 이 선, 2020). 특히 팬데믹 이후 온라인 기반 교육환경이 일상화되면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나지은, 2023; 자위에, 2024).

그러나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대부분은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적 논의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나 정책적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해외 대학 유아교사 양성 온라인과정에 관한 연구(이영애, 박진이, 2024)에서도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연구된 전반적인 교사자격 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현장의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 방문을 통한 면담, 관찰, 현장 자료 등이 포함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 방문을 통한 해외의 실질적인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유아교사 양성과정과 연계된 블렌디드 러닝 모델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해외 우수사례들을 다각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설계와 정책 결정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최근 실습학기제 등 현장 실습 강화와 관련한 교육 정책의 흐름 속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현장 실습 운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과과정 재구성, 자격 기준 통합,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 방법 도입 여부에 있어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빅토리아 대학의 유아교사 양성과정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유아교사 자격 관련 정책 결정과 후속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는 교수-학습의 특징은 무엇인가?
3. 블렌디드 러닝 중심의 현장 실습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문헌자료는 선행연구(김지현, 김자현, 2022; 박은혜, 장민영, 2015; 이영애, 박진이, 2024; 한지혜, 2002)를 통해 호주의 온라인 대학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1차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중 온, 오프라인 과정의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유아교사 자격과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학생 규모, 학위 및 비학위 과정등을 운영하고 있어 사례연구로 적절하다고 판단된 빅토리아 대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빅토리아 대학의 웹사이트, 호주 교육부 웹사이트, 호주 자격증 발급 관련 웹사이트가 주요 문헌 연구 대상이다.

한편, 빅토리아 대학의 구체적인 블렌디드러닝 운영 사례 조사를 위해 유아교육과 교수, 빅토리아 대학 학생, 부속유치원 교사 면담 및 환경 관찰이 이루어졌다. 블렌디드 러닝 사례에 대한 주요 면담 대상은 유아교육과 S 교수이다. S 교수는 유아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전임교수로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현장에서 10년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2. 자료수집 과정

1차 자료는 호주 빅토리아 대학 웹사이트를 통해 유아교사자격과정을 위한 학위과정, 입학자격 조건, 교육과정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안내자료(예: 입학가이드북, 실습자료 등), 교육부, 자격증 발급 관련 사이트를 통해 추가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연구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웹사이트 상으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 빅토리아 대학 유아교육과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을 호주 빅토리아 대학 유아교육과 학과장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였다. 호주 빅토리아 대학 학과장 교수는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방문을 허락하였고, 유아교육과 S교수를 소개해 주었다. 연구자는 11월부터 6일부터 8일까지 호주 빅토리아 대학 두 개의 캠퍼스(City Campus, Footscray Campus)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먼저, 유아교육과 S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City 캠퍼스에서 쉬고 있는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빅토리아 대학은 멜버른 도시에 City 캠퍼스, Footscray 지역에 2개 캠퍼스(Footscray Park, Foot Nicholson), 기타 멜버른 서부지역에 3개 캠퍼스(St. Albans, Sunshine, Werribee), 기타 지역에 2개 캠퍼스(VU Brisbane, VU Sydney)가 있다. 이 중 유아교육과는 주로 Footscray Nicholson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며 이 캠퍼스에는 교재교구 실습실이나 모의수업 활동실 및 부속 유치원(Footscray Nicholson Children's Centre)이 있다. 도시에 있으며 32층 건물로 최근 리모델링된 City 캠퍼스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 연구자는 City Campus와 Footscray Nicholson 두 개의 캠퍼스를 방문하였는데, City 캠퍼스에서는 강의실, 휴식 공간, 자율학습 공간 등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둘러보고 학생과 간단한 면담을 나누었으며, 이후 유아교육과 S교수의 동행하에 Footscray Nicholson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수업, 부속 유치원과 교직원의 인트라넷 등을 관찰하였다.

S교수와 인터뷰는 3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대화 내용은 참여자인 S교수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S교수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10년간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빅토리아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속 유치원은 유아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을 촬영 및 관찰하였으며, 교사들의 학급 일지, 계획안, 포트폴리오 등을 사진 촬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외에 학생 면담, 부속유치원 교사 면담 등을 통해 추가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 분석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김지현, 김자현, 2022; 박은혜, 장민영, 2015; 이영애, 박진이, 2024; 최현자, 2005; 한지혜, 2002)를 참고하여 연구문제에 맞춰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찰된 분석 기준에 준거하여 녹음자료는 전사 및 번역하였으며, 전사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며, 반복되는 주요 어휘와 유사한 내용들을 1차 분류하였다. 1차 분류한 전사본과 관찰 메모, 사진 등 수집한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각 자료에서 핵심이 되는 사례를 추출하여 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내용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의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교사 자격증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과 역할을 살펴보고, 교과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아교사 자격증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과 역할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Victoria University)의 유아교육과는 다양한 학위과정을 통해 유아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각 과정은 유아교육 및 보육품질청(ACECQA, 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과 빅토리아 교사협회(VIT, Victorian Institute of Teaching)의 인증을 받아 졸업 후 유아교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유아교사 양성과정은 호주 국가 자격 체계(NQS, National Quality Framework)에 근거하여, 학위 수준에 따른 자격 구조와 빅토리아 교사자격 관리기관(VIT: Victorian Institute of Teaching)등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증 유형과 지원 자격은 <표1>과 같다.

<표1> 빅토리아 대학 유아교사 자격증 유형

| 과정명                                                   | 자격증 유형                                     | 지원자격                         | 역할                                                                     |
|-------------------------------------------------------|--------------------------------------------|------------------------------|------------------------------------------------------------------------|
| Certificate III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교육보조인력 자격 (Assistant Educator)             | 고등학교 졸업 수준, 영어 능력 기준 있음      | 보조교사(educator), 교사지원업무                                                 |
| Diploma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룸리더/현장 책임자 (Room Leader), 유아반 보조교육계획 수행 가능 | Certificate III 수료자 또는 동등 자격 | 룸리더(room leader), 교육계획 운영, 교사와 협력                                      |
| Bachel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유아교사 (ACECQA/VIT인증)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자격             | 3-5세 유아반 교사 (Early Childhood Teacher, ECT), 교육과정 총괄, 최종 실습 시 3주간 단독 운영 |
| Maste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유아교사 (ACECQA/VIT인증)                        |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 무관)             | 0-5세 대상 유아반 교사, 최종 실습 시 단독 책임 운영                                       |

표 1과 같이 각 자격증은 호주 유아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교육적 책임과 역할에 따라 구분되며, 학위 수준과 실습 요건, 배치되는 아동 연령층 등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 현장 내 위치와 역할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ertificate III(Certificate III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유아교육·보육 3급 자격)은 교육보조인력의 역할을 하는 자격이며, Diploma(Diploma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를 가진 자는 Room Leader와 유아반 보조교육계획 수행이 가능하다. Certificate III 과정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이 결합된 형태로 1년 과정이며 보육 기관에서의 실습이 포함된다. Diploma 과정은 1년이며 다양한 연령대의 영유아 대상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은 학사과정으로 편입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Certificate III 과정과 Diploma 과정은 학과가 아닌 직업교육기관인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직업전문기관)를 통해 운영된다. TAFE는 고등학교 이후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공공 교육 시스템으로 미용, 디자인, 보육, 회계, 비즈니스,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KPMG Australia, 2018). TAFE는 일반적으로 TAFE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온라인 및 대면 학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형태가 많다. 빅토리아 대학교는 학위과정인 고등교육과 TAFE 과정을 모두 제공하는데 빅토리아 대학의 TAFE는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운영된다.

유아교육과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정식 유아교사(Early Childhood Teacher, ECT) 자격을 가지며 교육과정을 총괄한다. 특히 정식 교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VIT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위취득, 80일 이상의 실습 이수, 영어 능력 증명, 범죄경력조회 등이 요구된다. VIT(Victorian Institute of Teaching)는 빅토리아 주 교사 자격 인증기관으로,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교사로 일하려면 이 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VIT는 예비교사가 학위나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해당 자격이 VIT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등록을 유지하려면 전문성개발(PD: Professional Development)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VIT는 빅토리아 주에서 교사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관리하는 법정기관이다.

유아교육과를 졸업 후 임시 교사 자격 등록인 ‘Provisional registration’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의

근무 경험과 평가를 거쳐 정식 유아교사 등록인 ‘Full registration’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한국의 교사 자격 체계와 유사하나, 졸업과 동시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교사 등록과 자격 구분이 보다 엄격하고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빅토리아 대학 유아교육과에는 교육보조인력 자격인 Certificate III와 Diploma 과정은 운영하지 않으며, 이는 TAFE에서 담당한다. 빅토리아 대학은 학사학위를 제공하고 학사학위 미만의 과정은 TAFE에서 제공한다.

## 2)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과과정

빅토리아 대학교 유아교육과의 교과과정은 이론 과목과 실습으로 구성된 3년간의 체계적인 과정이다. 호주의 대학 학사과정(Bachelor's degree)이 일반적으로 3년제로 운영되는 배경은 역사적으로 호주 고등교육 체제가 영국의 교육체도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본 과정은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모든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Core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총 288학점(Core)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한 학기당 최대 이수 가능한 학점은 48학점으로 제한된다. 일부 과목은 선수과목 이수를 전제로 하며,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정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본 교과과정을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대면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Online Real Time), 그리고 자기주도형(Online Self-Paced)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된다. 빅토리아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과과정의 구체적 과목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2> 빅토리아 대학교 유아교육과의 학년별 교과과정 과목 구성

| 학년                    | 교과목명                                                                 | 학점 | 내용                                                         | 수업유형*     |
|-----------------------|----------------------------------------------------------------------|----|------------------------------------------------------------|-----------|
| 1학년<br>(8과목,<br>96학점) | Personal and Professional Learning                                   | 12 | 학습자로서의 정체성과 학습경험 성찰을 통한 학습 역량 함양                           | CC<br>ORT |
|                       | Human Development, Sustainability and Wellbeing                      | 12 | 아동·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간 발달 이론 탐구                         | CC<br>ORT |
|                       | Reconciling Australian Humanities Education                          | 12 | 호주 원주민의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포용 실천             | CC<br>ORT |
|                       | Creativity and the Arts in Education                                 | 12 | 창의적 접근을 통한 예술(음악, 연극, 무용 등) 학습                             | CC<br>ORT |
|                       | Playing with Play                                                    | 12 | 다양한 유형의 놀이 참여를 통한 놀이의 중요성 탐색                               | CC<br>ORT |
|                       | Professional Understandings of Quality frameworks in Early Childhood | 12 | 유아교육 실무의 질적 프레임워크 이해 및 전문적 실천을 위한 기초 지식 함양                 | CC<br>ORT |
|                       | Educational Programs and Practice                                    | 12 |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실재를 기반으로 영유아 학습 계획·실행·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 증진 | CC<br>ORT |
|                       | Safe, Secure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Environments           | 12 |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략 개발                 | CC<br>ORT |

| 학년                    | 교과목명                                                               | 학점 | 내용                                                                          | 수업유형*        |
|-----------------------|--------------------------------------------------------------------|----|-----------------------------------------------------------------------------|--------------|
| 2학년<br>(8과목,<br>96학점) | History, Philosoph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 12 | 역사·철학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맥락에서의 성찰 능력 함양                                  | FN, OSP, ORT |
|                       | Moving with Young Children                                         | 12 | 유아의 움직임이 교수 ·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해                                                 | FN, OSP, ORT |
|                       | Engaging with Place through Play                                   | 12 | 플레이워크(playwork) 실습을 통한 유아 주도 놀이 기회 창출 및 지원 역량 함양                            | FN, OSP, ORT |
|                       | Engaging with Place through Rethinking Childhoods and Development  | 12 | 놀이공간에 대한 비판적 장소성 탐색과 상호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교수학습 방법 함양하고, 플레이워크(playwork) 실습을 통해 적용 | FN, OSP, ORT |
|                       | Materiality in Early Childhood: Visual and Creative Arts           | 12 | 유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예술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예술 재료 탐구                                       | FN, OSP, ORT |
|                       | Music, Movement and Dramatic Arts                                  | 12 | 철학적 관점의 미학·시학 언어 탐구 및 예술 기반 유아교육 경험 설계                                      | FN, OSP, ORT |
|                       | Practice in Partnership 1                                          | 12 | 3세 미만 영유아 교육실습을 통한 실천 역량 함양                                                 | FN, OSP, ORT |
|                       | Practice in Partnership 2                                          | 12 | 3~5세 유아 대상 교육실습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                                                | FN, OSP, ORT |
|                       | Thinking with Young Children: Language and Literacy                | 12 | 유아 언어와 문해의 고유성 이해 및 사회적 맥락 속 언어와 문해를 통한 의미 구성 탐구                            | FN, OSP, ORT |
|                       | Practice in Partnership 3                                          | 12 | 15일간의 협력 유치원 프로그램 실습을 통한 교수 실천 구체화                                          | FN, OSP, ORT |
| 3학년<br>(7과목,<br>96학점) | Thinking with Young Children: Science, Maths and Technology        | 12 | 유아의 의미 구성을 지원하는 수학, 과학, 기술 이해 및 다학문적 교육 경험 설계 역량 함양                         | FN, OSP, ORT |
|                       | Advocacy in Leadership and Manag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12 | 유아교육 기관 운영 체계 내 윤리적 리더십 및 관리 역량 함양을 위한 옹호 및 실천 활동                           | FN, OSP, ORT |
|                       | Critical and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12 | 지역, 공간(place)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아교육 교수학습 실천 모색 및 현대 연구 패러다임 이해                    | FN, OSP, ORT |
|                       | Equity, Social Justice and 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12 |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수 실천 방안 학습                                            | FN, OSP, ORT |
|                       | Practice in Partnership 4                                          | 24 | 사회적 포용과 차이 존중 원칙을 실천하는 실습 수행을 통한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                               | FN, OSP, ORT |

\*CC = City Campus (대면 수업), FN = Footscray Nicholson Campus (대면 수업), ORT = Online Real Time (실시간 온라인 수업), OSP = Online Self-Paced (자기주도형 온라인 수업)

자료: Victoria University. (n.d.) Bachel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BEC  
<https://www.vu.edu.au/courses/bachelor-of-early-childhood-education-ebec>  
Victoria University. (2024). Bachel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ourse code: EBEC.  
<https://content.vu.edu.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4-10/ebec-2025.pdf>

빅토리아 대학의 교과과정 특징은 블록형 교과과정(Block model)으로 1 교과목당 4주간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한 번에 1과목만 수강하게 되고 한 학기에 총 4개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학생들을 인터뷰했을 때, 이러한 블록형 교과과정이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대학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는 한 과목에 집중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실습을 연계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1학년 과정의 경우 학업 경험이 서로 다른 신입생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VU First Year College®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멜버른에 위치한 City Campus(CC)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1학년 과정은 유아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은 개인적 학습 역량을 개발하는 동시에 유아교육 관련 다양한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실습을 위한 준비를 수행한다.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Footscray Nicholson 캠퍼스에서의 대면 수업(FN), Zoom을 통한 주 3회 실시간 온라인 수업(Online Real Time, ORT), 주 1회 지원(support) 세션이 포함된 자기 주도형 온라인 수업(Online Self-Paced, OSP)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2학년 과정에서는 유아교육과 관련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습을 수행하며 영유아, 가족,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3학년 과정에서는 교직 진입을 목표로 전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수업을 수강하며, 2학년 과정보다 심화된 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포용성을 실천하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진다.

석사과정의 경우 2년 과정이며, 2년 후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빅토리아 주를 포함하여 호주는 유아교사 공급에 대한 시급함이 있어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교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 기금을 제공한다. 4년제 학생들도 3년 후에 유아를 가르칠 수 있다. 대학원 현장 실습은 3-5세 유아 대상 15일, 0-2세 대상 15일, 그리고 유치원에서 25일이며 최종 3주간은 완전한 교사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가르친다.

## 2.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과정 운영

### 가.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과정 구조

빅토리아 대학교는 다양한 교육 수요자(직장인, 지방 거주자 등)를 고려해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수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플랫폼은 VU Collaborate, Padlet, Zoom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운영이며 수업방식은 크게 실시간 화상강의와 비실시간 콘텐츠, 오프라인 대면 수업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빅토리아 대학교는 다양한 지역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유아교육과 대면 수업은 주로 Footscray campus에서 운영된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Zoom 기반 주 3회 저녁 수업이 있으며, 비동기 온라인 수업(자기주도 학습 + 주 1회 지원 세션)이 있다. 온라인 수업은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니라, Padlet, 인포그래픽 제작, 포스터 발표, 비디오 과제, 반성적 글쓰기 등 다양한 형식의 학습활동을 포함하며,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실천 중심 평가로서 리포트 형식보다 실제 수업 적용 중심(포스터, 수업계획안, 영상 등)이고, 둘째, 디지털 도구 활용으로 Padlet, Canva,

Flipgrid 등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셋째, 학문적 성실성 관리로 유사도 분석, AI 탐지, 면대면 방어(oral defense)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한 후, 강사와 Zoom에서 구술로 자신의 과제를 설명하는 절차를 통해 AI 사용 여부 및 진정성을 검증받는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교수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1명의 전임교수 당 20명의 스태프가 팀을 구성하여 수업 및 피드백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 나. 교수-학습 운영 특성

빅토리아 대학교에는 학습 설계자(학습 디자이너)가 상주하고 있어 각 학과와 협업하면서 교수 학습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 약 3년 주기로 학습 환경을 재설계하고 있는데, 교수진은 학습 목표를 제공하고 학습설계자가 기술을 도입하고 제안하는 형식이다. 유아교육과 전임교수는 총 24명이며, 유아교육 전문가이고 이들이 각 과목을 운영하는 주요 책임자이다. 교수들은 교재를 책임지고 계약 강사들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한 학급을 맡으며 자신의 과목당 20명의 계약 교수나 강사가 있다.

예를 들어 M00라는 교수의 경우 통합교육 전공의 통합교육 실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교재를 책임지고 계약 강사들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는 한 클래스를 맡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자신의 수업이 있는 20명의 강사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강사와 소통하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1500개의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M00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단지 20명의 스태프로부터 20개의 이메일에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20명의 스태프를 5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강사가 팀장으로 있어요. 팀원 강사들 중 일부는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직원이 있고 종종 신규 직원들을 맞이해요. 그래서 네 명은 팀장에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음 팀장은 더 많은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면 팀장에게 물을 수 있어요.

(2024. 11. 7. S교수 면담)

이 대학의 학생들은 직업과 연령이 다양한데, 예비유아교사들은 가족 구성원 또는 자녀와 함께 실습할 수 있도록 가정 기반 학습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놀이, 노래, 춤 등 참여적인 활동을 과제로 활용하고 이론과 실제의 연결을 강조하며, padlet 등을 활용하여 반성적 저널쓰기, 개인 정체성에 대한 시각화활동(자상화 그리기) 등을 통해 정체성 개발과 실천가로서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는 학습 설계가 이루어진다.

한 교수당 학급을 세 개에서 여섯 개를 가르치는데 하나 또는 두 가지 다른 과목을 수업하며 한 반에 35명의 수업인 경우 두 개의 수업을 하여 두 배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18시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개의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세 가지 평가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라가고, 답변을 패들렛에 올리고, 세 가지 평가 과제를 제출합니다. 정보 그림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는데, 가족이나 교육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2024. 11. 7. S교수 면담)

평가 방식은 4주 동안 3개의 평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자기 성찰 및 반성과 연결되고, 두 번째는 이론적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에 관한 것인데 배운 이론을 실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보여주는 것이다. 지필시험은 없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를 제출한 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만약 ChatGPT를 사용했거나 친구의 작품을 모방하여 제출했을 때 교수와 면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실습 관련 과목에 이러한 평가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실습 후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며 10분 내외의 구두 인터뷰를 통해 평가한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형식(포스터, 시각자료 등) 중심으로, 학부생은 실무 경험을, 대학원생은 정책 분석 등을 강조한다. 과제로 학문적 글쓰기나 리포트는 지양하고 현장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부모, 동료교사, 사회와의 소통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실습 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실습 도중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 다. 학생지원체계

학생지원체제로 온라인 오피스아워가 있어서 Zoom을 활용한 교수-학생 간 실시간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학생이 궁금한 점을 즉시 물어 볼 수 있는 개별 상담 시간을 Breakout room을 활용하여 제공한다. 전공 주제별 전문 초청 강연을 대규모 웹세미나로 운영하고 이때 졸업생 및 현직 교사도 참여할 수 있다. 전담 부정행위 조사팀을 구성하여 표절,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있고 유사도 검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ChatGPT 사용 여부까지 판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학문적 성실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즉 부정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합니다. 따라서 강사들이 가르치고 채점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아내려 많이 노력하지요. 그래서 부정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문적 성실성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방식을 알려줍니다. (중략). 정책상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원래 타 문헌을 인용하는 것이 10~20% 포함되어야 하는데 유사도 점수가 0으로 나오면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AI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사성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과제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조사됩니다.

(2024. 11. 7. S교수 면담)

빅토리아 대학은 자체 표절률 검열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관찰한다. 학교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학부생들은 주로 친구나 동료의 과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고, 대학원 과정의 경우 AI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과제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정 비율 이상의 타 문헌 인용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절률이 있다고 하여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표절률을 판단할 때 단순한 수치로 판단하지는 않고, 내용이 학생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경우에 표절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까다로운 일입니다. 특히 ChatGPT를 활용해 작성된 글의 경우, 그렇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5% 표절률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많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로 한 인용과 참고의 내용이라면 괜찮으나, 만약 전체 문단을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된 경우, 우리는 학생과 대화를 나눕니다.

(2024. 11. 7. S교수 면담)

### 3. 블렌디드 러닝 현장 실습

실습은 전체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중심축으로, 온라인 수업과 병행되어 블렌디드 러닝으로 설계된다. 현장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나 피드백과 보고서 제출 등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실습 기간은 차이가 나는데, 학사과정의 경우 정해진 5단계 실습 루트를 따라 표 3과 같이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80일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실습으로 10일은 빅토리아 대학 부속유치원 플레이워크(playwork)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15일은 0-2세 대상 보육기관에서 실습을 하며, 55일은 3-5세 대상 보육기관 또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총 60일의 실습이 요구되는데 10일은 0-2세, 10일은 2-3세 영아 대상이며, 10일은 3-5세 유아 대상, 5일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25일은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습을 한다. 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동보호 및 의무 보호 교육 등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하며,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실습계획서를 제출한다. 실습 기간 동안 예비교사들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받고 실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학생들은 보고서를 제출 후 강사와 만나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피드백을 받는다. 학생은 최종 실습 종료 후, 멘토 교사 평가와 강사 면담(실시간 평가)을 통해 교사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정받는다. 이는 단순한 출석 중심 실습이 아닌, 문서 능력·성찰·상호작용·리더십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이다.

학생들은 0세부터 2세 반에서 15일 동안 실습을 합니다. 그들이 평가를 제출할 때 포트폴리오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강사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간으로 10일이 주어지게 되며 강사와 10분 동안 이야기할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피드백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습 단위에서 학생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실습을 마치기 전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실습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3주 동안 일을 쉬어야 해서 좋은 일이 아니죠.

(2024. 11. 7. S교수 면담)

빅토리아 대학교는 다양한 국제 및 지역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3주간의 말레이시아 유아교육기관 실습, 6개월간의 스웨덴 칼스타드 대학교 교환 프로그램, 4주간의 호주 북부 원주민 지역 실습 등이 있다. 학사과정 실습의 특징은 다양한 연령대 유아와 상호작용 경험을 할 수 있고 지도 강사와 면담 등을 통해 다면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대학원 과정의 경우 초등 저학년을 포함한 폭넓은 교육환경에서의 실습 경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lt;표3&gt; 현장 실습단계 및 내용

| 실습단계       | 기간          | 실습내용                                                |
|------------|-------------|-----------------------------------------------------|
| VU Play 실습 | 10일         | 놀이 기반 팝업 공간에서 실습 (playwork 개념 적용)                   |
| 0-2세반 실습   | 15일         | Birth-to-2 room (관찰, 상호작용 중심)                       |
| 3-5세반 실습 1 | 15일         | 관찰 및 문서화 중심 실습                                      |
| 리더십 프로젝트   | 15일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도적 프로젝트 수행 (예: 원주민 문화 통합, food bank 도입) |
| 3-5세반 실습 2 | 25일<br>(3주) | 최종 실습, 25일간 완전한 수업 책임 부여 (3주간 독립 운영)                |

자료: Victoria University. (n.d.) Bachel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BEC  
<https://www.vu.edu.au/courses/bachelor-of-early-childhood-education-ebec>

유아교육과가 주로 수업하는 Footscray Nicholson Campus에는 Footscray Nicholson Children's Centre라는 부속유치원이 있어 유아교육과의 현장 실습과 연구에 협력하고 있다. 이 센터는 3개월부터 6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일제 또는 시간제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3세와 4세 유아를 위한 통합 유치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반 최대 정원은 54명이며 ACECQA의 국가 품질기준(NQS) 평가에서 우수 등급(Exceeding NQS)을 받은 바 있다. 이 기관의 주요 교육철학은 Playwork<sup>1)</sup>라는 영국의 놀이 기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실내외에서 다양한 놀이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 반별로 실외놀이 환경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다. 교실에 통합된 관찰실을 통해 학부모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영유아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7:30~오후 6:00까지이고, 빅토리아 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인 우선 순위로 입학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도 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빅토리아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호주 빅토리아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블렌디드 러닝 기반 유아교사 양성과정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유아교사 양성과정과 연계된 블렌디드 러닝 모델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 빅토리아 대학은 유아교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격증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과 역할이 달랐다. 유아 연령 학급을 총괄할 수 있는 유아교사 정교사 자격증은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고, 교육보조요원 자격은 Certificate III 과정, 림 리더 자격은 Diploma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들은 학과가 아닌 대학 내 직업전문기관인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어드벤처 놀이터 운동에서 기원한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문적인 분야로 발전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TAFE를 통해 이수할 수 있었다. 유아교사 자격취득 체계는 우리나라의 자격 체계 및 지원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자격증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과 역할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을 알 수 있었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앞두고 교사의 역할,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가운데, 교사의 역할이 자격에 따라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면, 교사 수급 문제와 자격 기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유아교사 양성 경로를 다양화하고 각 경로에 따른 역할과 전문성 기대 수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둘째, 교과과정의 경우 4주간 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블록형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교과과정 구조의 유연성과 집중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전통적인 다과목 동시 수강 방식과 대비되는 혁신적 교수-학습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 과목에 집중하여 학습 심화를 유도하고 학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Garrison & Vaughan, 2008). 일반적으로 학기별 5-6개 과목을 병행 수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학습 분산과 학습몰입 저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 받는 반면, 단기 집중형 수업이 가능한 블록형 교육과정 모델은 학생의 수업 이해도 증가에 기여하며 영재 학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점수 상승의 효과를 보이며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Victoria University, 2018). 특히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앞두고 단기간에 교사자격을 일원화해야 하는 과도기적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 블록형 수업모델을 적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빅토리아 대학은 유아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론 과목과 실습으로 구성된 3년간의 교과과정이 운영되었고, 1학년은 대면 중심의 교과로 수업을 듣고,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모든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학년 과정은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여 대학 적응과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온라인 수업 비중을 확대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도록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는 온라인 대학의 특성상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고 1학년 적응이 학습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정혜령 외, 2019)을 고려할 때, 1학년을 대면 중심 교과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 적응과 학습 지속에 있어 효과적인 전략이라 사료된다.

셋째,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과정은 실시간 화상강의와 비실시간 콘텐츠, 오프라인 대면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수-학습 운영 특성으로 상주하는 학습 설계자와 학과 교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교수 학습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었고, 3년 주기로 학습 환경을 재설계하였다.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교수진이 주도하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학습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역할은 학습 설계자가 담당하는 점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다. 이는 블렌디드 러닝이 단순한 수업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교수-학습 지원체계의 구조적 혁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한 최근 사범대에 교직이 아닌 학습과학 전공 등이 신설된다(박정훈, 한영원, 2025)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교수-학습 설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교수 학습 설계자와 교수자의 협업을 통해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 지원체계로는 Zoom을 활용한 오피스아워를 운영하였고, 표절 자체 검열 프로그램과 부정행위 전담팀을 통해 학생들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찰이 이루어졌다. 온라인 대학뿐 아니라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오피스아워는 잘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Zoom을 활용한 오피스아워를 이용한다면 학생과 교수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오피스아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빅토리아 대학에는 표절 방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자가 다양한 자료로 평가하고, 평가물 제출 후에는 면담을 통해 학생의 표절 여부 등을 살펴본다고 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자의 윤리적 해이를 예방하고 성실한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방대한 인터넷 자료들이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들도 온라인 학습 환경 확대에 따라 학습 윤리 강화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장 실습은 온라인 수업과 병행되어 설계되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학사과정의 경우 4단계 실습 루트를 따라 이루어지며,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를 모두 경험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 유아교사 양성과정은 대체로 이론과 모의수업 시연을 포함한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습은 단일 연령 대상 연속적인 4주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빅토리아 대학의 경우, 0세부터 5세까지 전 연령을 각각 기간을 다르게 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있어서 예비교사들의 다양한 연령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향후 현장 실습 연령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회성 실습보다는 다년간에 걸친 연속성과 누적성을 지닌 실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호주도 유아교육·보육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빅토리아 주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아교사 자격증 일원화를 이루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었으나 교육과 보육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관의 특성과 계약상황에 따라 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은 상이하였다. 이는 자격 기준의 일원화만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순 자격 일원화에 그치지 않고, 교사 처우와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빅토리아 대학의 유아교사양성과정에서 블렌디드 러닝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다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교사양성과정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웹사이트 조사를 통한 문헌연구 중심이었던 기존 선행연구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장 중심의 과제, 블록형 교과과정 운영, 0세부터 5세를 아우르는 현장실습, 이론과 실습의 통합, 학습 윤리 강화, 체계적 학습지원 체계 구축 등은 국내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질 향상과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 환경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 자격과정과 블렌디드 러닝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자 하였으므로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측면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 내 다른 주들과의 유아교사 자격 체계와 자격과정 운영 방법, 유아교육·보육 통합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국내 유아교육 관련 정책 결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장문숙, 박수홍, 김두규. (2012).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블렌디드 PBL 프로그램 개발. **교사교육연구**, 51(3), 333-352.
- 김은영, 김길수, 이연주. (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연구보고서 2014-18).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778>
- 김준호, 김태석. (2010). 대학에서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관리회계교과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31, 111-127.
- 김지현, 김자연. (2022).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 28: 호주의 육아정책 동향.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나지은. (2023). 블렌디드러닝과 플립드러닝을 적용한 기악 교육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혜, 장민영. (2015). OECD 국가별 유치원 교사양성제도 분석: 공립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2(4), 327-354.
- 박정훈, 한영원. (2025. 4. 28.). 서울대 사범대, 교직과 무관한 전공 2학기 개설 추진: 다른 진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5/04/28/BJF3R7O43NEMNEOVAQEITFFZQ/>
- 박희정, 신혜정. (2022). 블렌디드러닝 수업이 학습만족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31(3), 83-90.
- 설양환, 신수범, 안정현, 최현주, 박일수, 김윤옥, 윤소영. (n.d.). 세계 수준의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글로벌 오픈 온라인 교육실습지원 시스템 플랫폼 개발 [KRM 과제정보 2017S1A5B8059786]. 한국연구재단.  
[https://www.krm.or.kr/krmnts/link.html?dbGubun=SD&m201\\_id= 10080203&res=y](https://www.krm.or.kr/krmnts/link.html?dbGubun=SD&m201_id= 10080203&res=y)
- 우중정, 김보나, 이옥형. (2009). 대학에서 면대면 수업 대안으로서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7(2), 219-225.
- 이상수. (2007). Blended learning의 의미와 상호작용 설계원리에 대한 고찰.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2), 25-53.
- 이선. (2020). 예비교사들의 온라인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연구. **교육실습연구**, 2(2), 27-41.
- 이영애, 박진이. (2024). 해외 온라인 대학의 유아교원양성과정 분석: 스페인, 미국,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44(3), 89-111.
- 임정훈. (2004).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전략의 초·중등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학연구**, 42(2), 399-431.
- 자위에. (2024). 블렌디드러닝 환경에서 학습자특성이 학습몰입 및 학습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북부지역의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전병호, 김용. (2017). 블렌디드 러닝에서 교수자 요인이 학습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러닝학회논문지**, 2(1), 35-40.
- 정혜령, 주형선, 김재우, 황성혜, 정현찬, 정지연, 최형숙, 안병무, 최상경, 김진솔, 박혜성, 장혜진. (2019). 방송대 졸업소요 이수학점 축소 방안 연구 (정책과제 19-0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2021000039417&sysid=nadl#none>
- 최현자. (2005). 유아교사양성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9(4), 219-244.
- 한지혜. (2002). 프랑스 유아초등교사교육제도: 국가교사양성기관(IUFM)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2(2), 289-312.
- 황소영, 김선영. (2020).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학업탄력성, 학습몰입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211-240.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n.d.). *National Quality Standard*. <https://www.acecqa.gov.au/nqf/national-quality-standard>
- Barnett, W. S. (2011). Effectiveness of early educational intervention. *Science*, 333(6045), 975-978
- Brown, M., Hughes, H., Keppell, M., Hard, N., & Smith, L. (2015). Stories from students in their first semester of distance learning.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16(4), 1-17.
- Garrison, D. R., & Vaughan, N. D. (2008). *Blend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Framework, principles, and guidelines*. Jossey-Bass.
- Heikka, J., Pitkaniemi, H., Kettukangas, T., & Hyttinen, T. (2021). Distributed pedagogical leadership and teacher leadership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texts.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in Education*, 24(3), 333-348.
- Heikka, J., & Waniganayake, M. (2011). Pedagogical leadership from a distributed perspective within the contex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in Education*, 14(4), 499-512.
- KPMG Australia. (2018). *The importance of TAFE to Victoria's prosperity: Final report* (June 2018). Victorian TAFE Association.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au/pdf/2018/importance-of-tafe-to-victorias-prosperity-kpmg-final-report-june-2018.pdf>
- McKenney, S., & Reeves, T. C. (2018). *Conducting educational design research* (2nd ed.). Routledge.
- Means, B., Toyama, Y., Murphy, R., & Baki, M. (2013). The effectiveness of online and blended learning: A meta-analysis of the empirical literature. *Teachers College Record*, 115(3), 1-47.
- OECD. (2019).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OECD Publishing.
- OECD. (2020). *Building a high-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Further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OECD Publishing.
- Victoria University. (n.d.). *Bachel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BEC*. <https://www.vu.edu.au/courses/bachelor-of-early-childhood-education-ebec>
- Victoria University. (2018. 11. 28.). *The Block Model's rewarding first year*. <https://www.vu.edu.au/about-vu/news-events/news/the-block-models-rewarding-first-year>
- Victoria University. (2024). *Bachel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ourse code: EBEC [PDF]*. <https://content.vu.edu.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4-10/ebec-2025.pdf>

##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blended learning practi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at Victoria University in Australia, focusing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program. The researcher conducted on-site visits, including interviews with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and observations of the affiliated kindergarten, lecture halls, and staff intranet. Additional data were gathered through the university's official website and admission materia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arly childhood teacher qualification process varied depending on the type of certification. To obtain full teacher qualification for leading an early childhood classroom, candidates needed to complete either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program. Bachelor's programs required applicants to have completed high school, while master's programs require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Second, the curriculum for teacher qualification was a three-year program composed of theoretical courses and practical placements, organized progressively by academic year. All courses were compulsory. Third, the blended learning model combined live video lectures, asynchronous online content, and offline face-to-face classes. Instructional practices were enhanc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faculty members and dedicated instructional designers, with a redesign of the learning environment conducted every three years. Academic support systems included Zoom-based office hours and a dedicated academic integrity team to prevent and monitor plagiarism and misconduct. Finally, practical placements were integrated with online learning and structured into a five-stage progression for the bachelor's program, providing experience across a range of age groups. This study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 Korea and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online-based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and curricula.

Keywords: Online higher education, Blended learning, Teacher qualification, Case study

---

• 편 집 위 원 •

---

|     |   |   |   |
|-----|---|---|---|
| 위원장 | 장 | 영 | 재 |
| 위원  | 서 | 지 | 원 |
|     | 이 | 석 | 호 |
|     | 박 | 종 | 성 |
|     | 이 | 봉 | 민 |
|     | 박 | 지 | 호 |
|     | 정 | 성 | 욱 |
| 간사  | 이 | 영 | 애 |
|     | 이 | 현 | 주 |
|     |   | 선 | 영 |

---

KNOU 논문 <第80輯>

---

2025年 8月 31日 印刷  
2025年 8月 31日 發行

|     |                       |
|-----|-----------------------|
| 編輯人 | 韓國放送通信大學校<br>論文集編輯委員會 |
| 發行人 | 高 晟 煥                 |
| 發行處 | 韓國放送通信大學校             |
| 印刷處 | 社會文化社(☎2263-0523)     |

---